

“이랜드가 원하는 만큼 다 주겠다”

中 최고 감사 왕젠린 완다 회장 레저사업 ‘통큰 투자’
10년지기 박성경 이랜드 부회장과 끈끈한 ‘의리’ 화제

“이랜드가 원하는 만큼 다 주겠다.” 왕젠린(王健林) 완다그룹 회장이 박성경 이랜드 부회장에게 백지수표를 내밀었다. 박 부회장은 “적절한 투자 규모를 정해 우리가 다시 제안하겠다”면서 뜨거운 악수로 화답했다. 왕젠린 완다그룹 회장이 이랜드에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왕 회장과 이번 계약을 성사시킨 박성경 부회장과 관계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왕 회장은 순자산 규모 142억 달러(약 15조9040억원)의 중국 최고 갑부다. 올 초에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사우샘프턴을 약 3056억원에 인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된 바 있다. 완다그룹이 투자하기로 한 부분은 이랜드가 추진 중인 레저사업 분야다. 액수에 관계없이 투자하겠다고 밝힌 왕 회장의 제

안에 오히려 이랜드는 적절한 투자 규모를 왕 회장에게 다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완다의 이번 통 큰 투자 결정은 10여년간 쌓여 온 박성경 부회장과 왕 회장의 상호 신뢰가 밑바탕이 됐다. 첫 비즈니스 파트너가 된 것은 지난 2004년. 완다그룹은 부동산 등 여러 사업부문에서 탄탄하게 입지를 굳힌 기업이지만 백화점 등 유통부문에서는 신통치 못했다. 완다가 청두(成都)에 백화점 2호점을 오픈할 때 주요 패션 브랜드들은 왕 회장의 백화점에 의존 부호를 던졌다. 입점 성공 가능성을 놓고 열심히 계산기만 두들긴 다른 곳과 달리 중국에서 스코필드와 이랜드, 티니위니 등을 명품 브랜드로 키워낸 이랜드는 왕 회장의 비전에 공감하



며 과격적 입장을 결정했다. 브랜드 파워가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린 박성경 부회장의 과감한 결정이었다. 이후 완다는 유통업에서도 폭발적 성공을 거뒀고 이랜드 그룹은 2010년 완다가 운영하는 200여개의 백화점과 쇼핑몰에 300개의 매장을 입점시키며 현지에서 대박 신화를 이뤘다. 어려운 때 도와준 박 부회장에게 왕 회장은 진심으로 화답했다. 2012년 6월 왕젠

린 회장이 이랜드와 포괄적 업무제휴 협약(MOU)을 맺기 위해 한국을 찾았을 때의 일화다. 왕 회장은 2박3일간의 방한 일정 중 다른 국내 재계 기업인들과 전혀 만나지 않고 오로지 박 부회장과 함께 했다. 식사도 이랜드파크에서 운영하는 뷔페 브로드웨이와 이랜드 크루즈 등 이랜드의 브랜드로만 해결했다. 명동을 찾았을 때도 그는 박 부회장과 함께 걸으며 스킨오, 폴더, 티니위니 등 이랜드 매장만 둘러봤다. 당시 왕 회장과 박 부회장을 수행했던 왕사 고위 관계자는 “왕 회장은 자신에게 이랜드밖에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박 부회장과 우리 회사를 배려했다”며 “이랜드가 하는 것이면 다 믿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남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왕 회장은 박 부회장의 완다그룹 방문에 화답하기 위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랜드에 대한 완다의 투자 규모는 이번 방한 때 구체적으로 밝혀질 전망이다. 윤철규 기자 yoonck@

현대증권 매각주관사 선정 산업은행 전관예우 ‘잡음’

산은 고위직 출신 재직 EY한영
공동 주관사에 올라 매각 자문
인수후보사와 MOU 맺어 논란

산업은행이 현대증권 매각 주관사 선정과 관련, 전관예우 시비 논란에 휘말렸다. 산업은행은 최근 EY한영회계법인을 현대증권 매각 공동 주관사로 선정, 본격적 매각작업에 착수했으나 EY한영이 현대증권의 인수 후보자 가운데 하나인 파인스트리트와 MOU를 맺고 있어 불공정 시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EY한영의 Y고문이 산업은행 고위 임원 출신이라는 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보경제연맹(전 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산업은행과 EY한영 사이에 이해상충이 존재한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정보경제연맹 손준혁 정책국장은 “EY한영은 지난해 퇴직한 산업은행의 고위 임원이 사가 고문으로 영입된 회사”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관피아 척결 등 전관예우 논란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산업은행이 현대증권 매각 진행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치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Y한영은 지난해 말 산은지주 사장 출신의 Y씨를 고문으로 영입했다.

문제는 현대증권 예비입찰에 참여한 파인스트리트의 계열사인 파인스트리트 자산관리가 올 초 EY한영과 포괄적 업무제휴를 체결한 상황에서 EY한영이 현대증권 매각 자문까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수경쟁 상황과 가격 등 주요 정보가 특정 인수자 측에 흘러 들어가 입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매각자문과 인수자문을 같은 자문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흔한 일은 아니다”라며 “자문사가 인수자, 매도자 모두와 공고한 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비밀유지 각서를 체결한 후 두 고객사의 동의를 받은 다음엔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이번 매각 주관사 선정은 현대그룹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대그룹이 EY한영을 공동 주관사로 선정한 것은 Y고문과 상관없이 고객사 요청에 의한 결정이었다는 얘기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대그룹은 EY한영이 파인스트리트와 업무협약 MOU를 체결한 것을 이미 인지했고 관련 MOU가 이번 인수전 매각 주관사 작업 진행 시 별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EY한영 역시 향후 문제가 불거질 경우를 고려해 파인스트리트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현대그룹에 제출하고 자문업무를 수행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아 기자 kakim@

언론인 출신 첫 총리 후보자 문창극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IBK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 나서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연합뉴스

양극화 갭 확대... 다시 고개 드는 '경제민주화'

상대적 빈곤율 20년새 2배로
성장률 통계와 현실 괴리감 커
전문가 소득불평등 개선 절실

경제활성화 목표에 가려졌던 불평등 문제가 표면화됨에 따라 가려졌던 듯 보였던 경제민주화 논의도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 세계적 이슈가 되면서 한국에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 소득 기준으로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4.5%로 20년 전인 1993년

8.2%보다 약 2배 커졌다. 연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의 10%나 된다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한 'OECD 2014 통계연보(Fact Book)'를 보면 더욱 비참한 결과가 나온다. 이 자료에 따르면 빈곤갭(Poverty Gap) 비율이 한국은 39%로 스페인(42%)과 멕시코(41%)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3위다. 한국의 빈곤가구 소득이 최소 생활에 필요한 소득 수준에서 동떨어진 정도가 빈부격차로 유명한 멕시코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라는 얘기다. 그동안 국내에서 경제지표와 관련한 주된 관심은 '장밋빛 성장전망'에 초점이 맞

춰져 있었다. 때문에 정책적 관심도 주로 성장지표에 지출한 측면이 컸다. 예를 들면 2017년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선다는 전망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는 전체 생산성을 인구 수로 단순히 나누는 것으로 그 내부에서의 분배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GDP 통계를 담당하는 한국은행 관계자는 “1인당 3만 달러를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억3000만원이라는 것인데 국민 중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GDP 성장과 체감경기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가계소득의 70% 이상이 임금소득인데 우리나라 실질임금이 2008년부터 최근까지 거의 정체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해소돼야 내수가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이고 실질임금은 노동생산성에 맞춰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알립니다

시니어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BRAVO MY LIFE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품격 시니어 전문 미디어

16일 오프라인 지면 창간

“시니어들의 꿈과 행복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고품격 시니어 전문 미디어 '브라보 마이 라이프(BRAVO my LIFE, www.bravo-my-life.co.kr, 대표 이석중)'가 지난 2월 5일 사이트 오픈에 이어 16일 지면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신중년층의 애환과 고통, 기쁨과 슬픔을 진솔하게 담아내고자 합니다. 경제발전을 이룬 산업역군으로서 샌드위치 세대이기도 한 신중년층에 힘과 용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신중년층의 '사랑방'이자 'Dynamic Senior'들의 신나는 놀이터입니다. 그분들이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하면서 재밌는, 그리고 유익한 콘텐츠를 선보이겠습니다. 특히 정신적으로는 당당하게,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 건강과 재테크,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욕망인 건강(性)을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지면 창간을 기념해 한길리서치에 의뢰, 전국 2030·5060세대 500명을 대상(5월 28-30일)으로 실시한 '세대 간 존경-존중'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세대 간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니어-시니어 세대 간 존경-존중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한 2030세대와 5060세대 간 갈등의 주 원인은 존중-존경 덕목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존중-존경 가치 덕목에 대해 5060세대는 경제력에 큰 비중을 둔 반면 2030세대는 도덕·양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창간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중년층 희로애락 담아
'세대간 존경-존중 가치관'
창간 기념 설문조사 게재

숫자로 본 NEWS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
695조5000억원

687.2 (2013년 12월) → 688.1 (2월) → 690.6 (5월)
685.2 (2014년 1월)

(단위: 조원) * 출처: 한국은행

세월호 참사 수습에
투입한 예산
829억7000만원

주요부처 사고 수습 비용
국방부(259억9000만원) : 교육부(107억원)
해양경찰청(234억원) : 해양수산부(70억원)

가계대출 잔액 3개월째 최고치

국방부, 세월호 예산 최다지출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700조원에 육박하며 3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우체국예금)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695조 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원 늘었다. 지난해 12월 6조1000억원 오른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이진영 기자 mini@

정부가 세월호 사고 수습에 8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실이 기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각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사고 수습에 829억7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부처별로는 국방부가 259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해양경찰청 234억원, 교육부 107억원 등의 순이었다. 국방부는 조병탄과 합정·비행기 유류비, 해군 현장지원 장비·인력을 지원했다. 박성영 기자 sypark@

이종희 이사장 ▶ 장원기 사장 ▶ 16

Money
수요섹션
19~24면
커버스토리
'카톡 결제' 개봉박두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하성민 SKT 사장 'ICT노믹스'... 황창규 KT 회장 '기가토피아'

중국서 이동통신 미래 비전 '맞붙'

SK텔레콤과 KT를 이끄는 두 수장이 각각의 ICT 미래 청사진을 들고 글로벌 전파에 나섰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과 황창규 KT 회장은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모바일 아시아 엑스포2014(이하 MAE)'에 나란히 참가, 미래 핵심 전략으로 각각 제시한 'ICT노믹스'와 '기가토피아'를 설명한다.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 하 사장과 황 회장은 국내 이동통신사를 대표하는 수장으로 참가한다. 두 수장이 모바일의 미래를 내다보는 국제 전시회에서 조우, 미래 전략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밝히는 셈이다.

우선 하 사장에겐 이번 MAE가 최근 미래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ICT노믹스'를 세계에 알리는 본격적 자리다. 그는 이번 MAE 기간 중 GSMA 의장단 외에도 ICT산업계의 글로벌 리더들을 만나 ICT노믹스를 알린다. 동시에 5G 네트워크, 신속하고 효율적 모바일 인증채널 구축 등 'ICT노믹스 시대'의 비전에 대해 논의한다.

SK텔레콤은 ICT노믹스 시대에 맞춰 미래 성장사업 분야의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대거 공개한다. 특히 헬스케어, 스마트 교육, 안전 서비스, 실내측위기술 등 융복합 상품·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신제품도 공개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11~14일 '모바일 아시아 엑스포 2014' 나란히 참가 청사진 세계에 알리고 해외 진출 위한 신제품 공개

다. SK텔레콤은 이번 행사에서 '스마트 에어'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 스마트 에어는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측정해 실시간 공기질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초소형 액세서리다. 올해 3분기 국내 출시를 목표로

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중국·일본 등으로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KT의 황 회장은 기가 인터넷 시대를 이끌 혁신적 유무선 인프라와 글로벌을 겨냥한 융합 서비스를 들고 나왔다. 특히 황 회장은 이번 MAE에서 오프

닝 기조 연설을 맡으며 KT의 미래 청사진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황 회장은 지난달 20일 융합형 기가 시대를 선포하고, 빠른 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가 인터넷 시대인 '기가토피아' 실현을 약속했다. 이번 기조 연설에서는 기가토피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KT는 '기가와이파이' 등 KT의 대표적 기가 인프라 기술과 증강 현실을 활용한 한류 스타 포토박스 등 글로벌 아이템을 통해 다양한 융합 기술을 선보인다. 기가와이파이는 KT의 고품질 광통신 인터넷을 기반으로 최대 1.3Gbps 속도의 와이파이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기존 와이파이에 비해 3배 이상 빠르다. KT는 스마트폰 확산과 더불어 빠른 무선 인터넷이 요구됨에 따라 와이파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향후 디지털 커머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과 합쳐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의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MAE는 매년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의 아시아관 행사다. 2012년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대규모로 개최되고 있다.

김병근 기자 nova@



황창규 KT 회장



몸집 줄이는 BHP빌리턴

(세계 최대 광산업체)

맥킨지CEO 리더십 주목

세계 최대 광산업체 BHP빌리턴이 본격적인 비핵심사업 매각에 착수하면서 앤드류 맥킨지(사진) 최고경영자(CEO)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광산업계의 인수·합병(M&A)을 주도했던 BHP빌리턴의 주요 자산 매각이 본격화하면 업계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BHP와 빌리턴은 지난 2001년 합병했다. 그러나 빌리턴의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그룹 전체의 실적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합병 당시 전체 이익의 30%를 차

산에 투입된 비중은 전체의 9%까지 낮아졌다.

BHP빌리턴의 합병 이후 주가는 선전했지만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합병 다음해인 2002년에는 이익이 12% 감소했다. 경영진의 갈등도 심화했다. 2003년에는 브라이언 길버트스 신임 CEO가 이사회와의 의견 차이를 이유로 사임하기도 했다.

2007년에는 칩 쿤이어 CEO가 물러나고 리오티노와의 합병을 위해 이사회가 마리아스 클로퍼스를 CEO로 임명했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끝났다.

3년 뒤인 2010년에는 390억 달러에

중 수요 감소에 망간 광산·알루미늄 사업 부진

철광석 광산에 사업 집중...주요자산 매각 나서

지했던 빌리턴 사업부의 비중은 현재 10%까지 줄었다. 원자재 블랙홀인 중국의 성장 둔화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맥킨지 CEO는 매장량이 풍부해 장기적 사업성이 보장된 광산과 유전 그리고 가스전에 사업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요 핵심사업은 철광석 광산이다.

BHP빌리턴은 지난해 전체 이익의 절반을 철광석 광산에서 거뒀다. 이는 2000년의 12%에 비해 비중이 4배 높아진 것이다.

반면 이전 빌리턴 사업부의 주요 자산인 아프리카 망간 광산과 알루미늄 사업부의 성장은 둔화하고 있다. 중국 수요감소에 따른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BHP빌리턴은 비핵심사업에 대한 자본 지출부터 줄이고 있다. 그룹의 자본 지출에서 이전 빌리턴 사업부의 자

포타시코프를 인수하려 했지만 캐나다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고, 2011년에는 페트로호프를 120억 달러에 사들였지만 인수자금이 지나치다는 우려 속에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결국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클로퍼스가 2013년 사임하고 맥킨지가 CEO 자리에 올랐다.

팀 허프 RBC캐피탈마켓 애널리스트는 "빌리턴과의 합병은 나쁘지 않았지만 앞으로 20~30년 동안 전망은 불안하다"고 평가했다.

맥킨지 CEO는 자산 매각을 포함해 분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단순화할 계획이다. BHP빌리턴은 사업 재편을 위해 골드만삭스와 계약했으며 지난 2012년 이후 17억 달러 규모의 매각과 관련해 지급한 수수료만 1900만 달러에 달한다.

뉴욕=윌태성 특파원 tsmin@

이종휘 "서민 웃을 수 있게... 미소금융 문턱 낮춘다"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요건 까다로워 이용 저조 재산·부채비율 기준 폐지 "상환 능력 위주로 심사"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서민금융 지원 제도인 미소금융이 까다로운 지원 기준으로 대출이 잘 이뤄지지 않자 이종휘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이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종휘(사진) 이사장은 지난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보다 많은 저소득, 저신용자가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지원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소금융은 다른 서민금융 상품보다 지원 기준이 복잡하고 엄격했다"면서 "지원 기준 개선 및 관계형 금융심사 도입을 통해 미소금융 이용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층에 창업자금, 운영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이다.

이 이사장은 "세부 지원 기준 중 부채 규모, 재산 규모, 부채 비율 등이 형식적 요건이라고 판단됐다"면서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해 현금흐름표 심사로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이하, 총부채 7000만원 이

하, 재산 1억~1억5000만원 이하, 부채 비율 60% 이하 등 저소득·저신용자가 지원 대상이다.

미소금융재단은 다음달부터 부채 규모·재산·부채 비율 기준을 폐지하고 채무자의 실제 현금 유출입 흐름만 심사해 부채가 많더라도 상환능력이 충분하다면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소금융은 지원요건이 엄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이사장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심사 과정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업종 특성을 가·감점으로 차등 적용하고 창업자의 특성 등 정성평가 요소를 반영해 대출 가부를 결정하는 관계형 금융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원 기준 완화"에 따른 보완책은 신청자의 사업장·가계



현금흐름 분석을 통한 상환 능력을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태현 기자 holjiak@



이투데이는 굿네이버스를 후원합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별은 반짝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응원도 받아보지 못한 쓰레기 줍는 소년이지만, 언젠간 수많은 관중의 응원을 받는 축구선수를 꿈꾸는 소년

이 아이의 꿈을 응원하는 최초의 관중이 되기로 했습니다. 땀을 흘리는 이곳을 벗어나 더 높은 곳에서 반짝일 날을 기다려주세요

가수 김장훈

내일을 잃어버린 수많은 아이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외아동결연 신청 (매월 3만원)

1599 - 0300

해외아동결연을 신청하시면 도움이 필요한 해외아동과 후원자가 1:1로 결연을 맺어,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희망 TV SBS와 함께하는 <희망 축구단 프로젝트>로 아프리카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인이 설립하여 국내 및 해외 35개국에서 전문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www.gni.kr



세월호 여파 안전규제 개혁 '올스톱'...기업 투자도 '스톱'

전경련·대한상의 규제 개혁 건의 주요 내용

전국경제인연합회

-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
- 과소공급 사업 규제 철폐
- 10년 이상 된 규제 재검토
- 한국에만 있는 비합리적 규제 철폐
- 건설업종 칸막이 및 은행 수요 규제 철폐
- 액티스X, 공인인증서 등 온라인 상거래 관련 규제
- 영어리 규제 철폐

대한상공회의소

- 여러 부처에 걸친 복합규제 개선
-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규제 개혁
- 음식 배달 등 다양한 생활 규제 재검토
- 규제시스템 네거티브 전환
- 규제 개혁 공직자 불이익 없게 배려
- 신사업 막는 사전 규제 혁파

* 3월 20일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

규제개혁 신문고 처리 현황

(5월말 기준)

· 접수: **7,458건**

분류	답변(14일)	답변기일 이후 조치
규제건의 (5,262건)	수용(940건)	이행계획 제출 → 현상점검
	중장기검토 (1,291건)	소명 조치 (401건) → 규제위 개선권고 3개월 내 추진상황, 6개월 내 결과통보 (890건)
	불수용 (2,438건)	소명 조치(317건) → 규제위 개선권고 정책참고 (2,121건)
	검토중 (593건)	검토 진행중
	일반민원 (2,196건)	권익위(국민신문고) 처리

* 출처: 국무조정실

정부, 940건 규제 해제...2438건 '불수용' 결정

규제를 뚫던 규제개혁 논의가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한 모습이다. 특히 안전 관련규제 완화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재계는 안전규제 완화가 투자 확대 및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실망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11일 정·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개월간 규제신 문고를 통해 접수된 5262건의 규제 민원 중 940건을 수용하고 1291건은 중장기적으로 수용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가 수용하기로 한 주요 규제 개선 내용은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 코스닥시장 관리종목의 실시간 매매결제 허용 등이다.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 추진에 따라 관계부처는 5인 이하 사업장·100만원 미만 금액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던 기존 법령 개정에 착수, 결제액이나 사업장 규모 등에 관계없이 전면 가능하게 됐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30분 단위로 매매결제 이 이뤄지는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거래시스템이 내년 1월부터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완화를 검토할 규제로는 배너·에어폰 등 유통광고물 합법화(소명조치), 금융규제(LTV·DTI),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등이다.

이처럼 정부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안전 관련규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안전 관련규제 개선 요구 등 2438건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린 것.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 중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 추진 대형마트 의무휴일 등 중장기 검토

내년 1월 시행 화평법·화관법은 논의대상 제외...업계 실망감 비용 부담에 유동자산만 늘려

하나로 선박 운항 수명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준 사실이 논란이 됐던 만큼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개선 건의 불수용 규제로는 내년 1월 시행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을 들 수 있다. 산업계는 소량 및 연구개발용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규정 신설(화평법),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가벼운 규정 위반에 대해 과징금 없는 경고·계도 조치(화관법)를 각각 요구했다.

특히 화평법·화관법은 정부와 산업계가 합의를 통해 하위법령이 마련됐던 만큼 추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법률이다. 화평법·화관법은 애초 정부와 산업계의 극심한 의견 대립으로 진통을 겪다 지난해 8월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갈등이 봉합된 바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화평법·화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 금지 대상이나 과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업의 부담이 크다"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문제가 부각되면서 규제 완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닌 지나친 규제에 대해서 손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규제 완화의 기대감이 사그라지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1년 이내에 환급할 수 있는 대기업들의 유동자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0대 그룹 81개 제조업 상장사(12월 결산법인)의 유동자산은 250조7667억원으로 2011년 219조1899억원, 2012년 228조3656억원에 이어 증가 추세다. 이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투자에 주저하고 있는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재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경영환경이 위약에 불투명하다 보니 혹시 모를 자금색을 대비하기 위해 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집행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재계가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기업이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나친 안전 관련 규제의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효진 기자 js62@

'안전경영' 강화하는 산업계 "자율성 줘야 효율성 높아져"

"지나친 규제는 기업 '옥죄기' 전문가 "저비용 방안 강구"

기업의 안전경영 기초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재계는 규제가 아닌 기업 자율성에 기반한 안전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안전경영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규제에 의한 비용 증가가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아서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규제 비용은 낮추면서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적절한 규제 수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다수 기업들은 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 조치를 정비하고, 안전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웠다. 전자·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전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환경안전센터를 신설하고, 올해 환경안전 전문인력을 162명 늘리기로 했다. 또한, 올해 1조1000억원의 안전환경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집행한다.

LG전자는 분사 환경안전팀을 환경안전실로 격상해 운영 중이며, 환경안전분야 최우선 투자정책으로 2013-2015년 1200억원을 투자한다.

조선·기계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대표이사 직속의 안전환경실을 신설하고, 담당자 직급을 실장에서 부사장급으로 격상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국내 모든 사업장에 안전점검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충원을 하고 있고, 기아차가 사장 직속 안전환경기획실 및 각 공장 안전총무실, 생산안전과 등 안전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화학 업계에서는 LG화학이 안전환경 조직과 위상을 강화할 목적으로 분사 안전환경 팀

당 임원을 신설하고, 사업장 안전환경 조직도 지난해 2개에서 올해 4개로 확대한다. 정유 업계 역시 GS칼텍스가 안전 전담을 총괄하는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신설해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배속시켰고, 에스오일은 CEO를 의장으로 하는 최고 안전협의회를 신설했다.

문화·식품업계도 안전경영이 화두다. CJ그룹은 11일 그룹차원의 안전 전담 조직인 안전경영실(주)CJ 대표 직속으로 신설하고 안전경영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전경영실 산하에는 산업안전 담당, 식품안전 담당, 정보보안 담당을 각각 두고, 그룹 안전·보안 역량 확대를 위한 로드맵, 전략 수립을 담당하게 된다.

재계는 이처럼 안전경영 강화에 적극 동참하면서, 안전강화 기초가 지나친 기업 옥죄기로 흐르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어떤 기업이 안전에 관대할 수 있겠느냐"며 "한 번의 사고로 기업 이미지와 신뢰가 무너지는 만큼, 기업들이 자발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정책·경영부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안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키지 않고 존재만 하는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은 비용으로 규제가 의도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최원락 기업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대표적 사회적 규제 중 하나인 안전 규제는 꼭 필요하고, (기업에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지금의 방향성은 맞다"며 "문제는 피규제자에 대한 규제준수 비용을 작게 하는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guty@



연금저축 자산관리 하나대투에서 시작하자!

스캔하면 다 나와~
휴대폰으로 확인하세요



연금 자산관리 동영상





자산관리전문가(PB)가 상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산관리 모바일 앱 하나대투 HOW에서 확인하세요 | m.hanaw.com 1588-3111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통예금이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가입하기 전에 투자대상, 매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의 과세대상, 과세율 및 세제혜택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C브랜딩-140327-21



그래픽 손미경 기자 sssmk@

40년 보수논객... 野 “장고 끝 악수”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

“김대중, 재산 해외도피 의혹
노무현, 세계 최대 자살국 오명”
언론인 시절 칼럼 도마위로

차대통령 대선 전 인신공격성
당선 후 ‘용비어천가’식 칭송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IBK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빠져나가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문창극(66) 총리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의 초대 이사에게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 초대 이사장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둘의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야당은 문 후보자의 총리 지명을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소통하고 변화하라는 국민적 요구와는 정반대로 간 인사”라고 했고,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장고 끝 끔찍한 악수”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이처럼 들고 일어난 건 문 후보자가 40년 가까운 세월을 언론인으로 활동해 온 보수논객이라는 점 때문이다. 중앙일보 정치부장을 거쳐 논설위원실장, 논설주간, 주필, 대기자를 거치며 보수 색채가 강한 사실과 칼럼을 써 왔다.

그 때문에 문 후보자가 언론인 시절 썼던 칼럼이 세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파헤쳐 폄하하는 내용이다.

문 후보자는 김 전 대통령의 병세가 위

문창극 총리 후보자

- 66세
- 출생 : 충북 청주
- 학력 : 서울고-서울대 정치학과
- 가족관계 : 부인 채관숙(62)씨와 3녀
- 주요 경력 : - 중앙일보 정치부장·주필
- 관운클럽 총무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석좌교수

중하던 2009년 8월 초 ‘마지막 남은 일’이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자금 조성과 재산 해외 도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도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은 없어야 한다. 그렇다고 이런 제기된 의혹들을 그대로 덮어 두기로 할 것인가. 바로 이 점이 안타까운 것”이라고 적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2009년 5월엔 ‘공인의 죽음’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세계 최대의 자살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이 나라에서 대통령을 지낸 사람까지 이런 식으로 생을 마감한다면 그 영향이 어땠겠느냐”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는 인신공격도 마다치 않았다. 당선 뒤에는 칭송하는 글을 쓰는 등 ‘용비어천가’식 칼럼도 오르내리고 있다.

문 후보자는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 한창이던 2007년 7월 ‘권력의 비늘을 때리는 칼럼’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를 향해 “외국의 예를 많이 들지만,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어머니의 정치’다. 자녀를 키우고 집안 살림을 꾸려 본 여자들이, 나라 살림도 남자보다 더 섬세하게 할 수 있으리라는 기

대 때문”이라며 “박 후보는 이런 경향이 있는가”라고 인신공격성 비난글을 올렸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2012년 12월 박 대통령의 당선을 ‘신의 축복’에 비유하며 칭송하는 ‘낮뜨거운 칼럼’을 썼다.

그는 ‘하늘의 평화’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반대의 결과(문재인 당선)가 되었을 때 지금 이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역사의 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역사의 신은 늘 우리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 때로는 배일 뒤에서 지켜보고 있기만 한다. 그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그는 배일을 뚫고 나타나는 것 같다. 마치 통화에서 수호천사가 갑자기 나타나 위기에 처한 주인공을 구해 주듯이 말이다”고 썼다.

김의중 기자 zerg@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 67세
- 출생 : 서울
- 외무고시 : 8회
- 학력 : 경북고 - 서울대 외교학과
- 가족관계 : 부인 심재령(62)씨와 1남1녀
- 주요 경력 : - 주제네바 대표부 근무
- 대통령비서실 의전수석(노태우)
- 안기부 2차장
- 2007년 박근혜 경선 캠프 선거대책부위원장
- 주일대사

친박 핵심인물로 ‘멘토’ 역할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서 출신

안기부 2차장 거친 일본통

불법선거자금 전달 꼬리표도

10일 신임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된 이병기 주일대사는 직업 외교관인 동시에 정치권 인사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경선 인사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경선 인사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경선 인사다.

이 후보자는 충남 홍성 출신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외시 8회로 외무부에 들어갔다. 1970년대 말 당시 노신영 주제네바 대사 밑에서 3등 서기관으로 근무했다. 그를 눈여겨본 노 대사가 198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부장관을 할 때 비서관

으로 파견됐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이 내무부 장관,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민주정의당(민정당) 총재, 대통령이 됐을 때 각각 장관비서관, 비서실장, 총재 보좌역, 대통령 의전수석으로 줄곧 중용돼 왔다.

정권이 바뀐 1996년 12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해외담당 2차장을 지냈으며 당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망명’을 진두지휘했다. 이 후보자는 2000년대 한나라당에서 이회창 총재 안보특보를 지낸 이후 여의도연구소에서 박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정부 출범 이후 첫 주일 대사에 임명됐다.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진재 의원 측 김윤수 공보특보에게 5억원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외교-안보 분야와 정치권을 넘나들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지만, 과거 한나라당 불법선거자금, 일명 차떼기 사건 당시 거액을 전달한 이력들이 꼬리표로 남아 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n@

추가 인선 속도... 靑 개편 시기는 불투명

경제부총리에 최경환 유력 부처 장관 10여명 바뀔 듯

새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경제부총리 등 추가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각 및 청와대 개편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을 떠나는 16일 전후 연재가 될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개각 대상은 경제부총리와 교육부,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장관 등 10명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역 부총리는 여론에서도 리더십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와 교체 1순위로 꼽힌다. 현 부총리 후임으로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새누리당 최경환 전 원내대표가 등용될 것이라 전망이 높다.

박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을 겸직하면서 복지, 문화까지 관장하는 사회부총리를 신설키로 하면서 현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교체가 확실시되고 있다. 또한 이주영 해수부 장관과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장관직을 수행한 기간이 각각 3개월, 2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세월호 참사에 따른 책임을 물어 경질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도 박준우 정무수석,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등 비서진 3-4명가량이 교체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야권의 사퇴 요구가 거센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은 유임이 확실시된다. 유인봉 국정기획수석도 정부조직개편 등 국가개조 작업을 위해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개각 및 청와대 개편 시기를 놓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국정운영 공백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박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인사 검증 속도에 따라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나눠 발표하거나 아예 순방 이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김미영 기자 bomnal@

청와대·내각 ‘서울고’ 출신 전성시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내각 고위직에서 서울고 출신이 대거 중용되고 있다. 문창극 새 국무총리 후보를 비롯해 김관진(국방부)·서승환(국토교통부)·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등 10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부산 경남 관중 인사 논란에 이어 특정 고교 출신의 ‘인사 독식’ 논란도 일 전망이다.

10일 헌정사상 첫 기자 출신 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서울고를 졸업(19회)

한 후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했다. 이번 문 총리 후보자의 발탁 배경으로 친박 원로 모임인 7인회 멤버로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안병훈 도서출판 기파랑 대표의 추천설도 제기된다.

서울고 출신의 문 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박근혜 정부 내각과 청와대는 서울고 전성시대를 맞게 됐다.

지난 1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된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서울고 출신이다. 김

장관은 문 총리 후보자의 고교 1년 후배(20회)다. 안보 라인 중에서는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17회)도 서울고를 나왔다.

내각에서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서울고 출신이다. 이중 서남수 장관(23회)을 제외한 5명은 27회 동기동창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김관진·서남수·방하남... PK 이어 ‘특정高’ 편중

박근혜 정부 서울고 출신 주요인사

이름	직위(출연기수)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17회)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19회)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20회)
서남수	교육부 장관(23회)
노태우	공정거래위원장(26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27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27회)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27회)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7회)
최수현	금융감독위원장(27회)

1시간 속성해설 셰일가스 혁명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지음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셰일가스와 관련된 주요 110개 기업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정제된 IT 산업, 반박에 나선 조선, 철강, 항공, 철도, 소재 산업...
일본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의 대부활!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지음
U&J유엔케이 번역
신국판 199쪽 120,000원

꿈의 에너지 셰일가스혁명!!!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 세계에너지 패권 경쟁과 기업의 흥망성쇠 전망
- 미국·일본 제조업 부활...세계에 미칠 영향 심도있는 분석
- 전기자동차·항공산업·조선산업 '대부흥'예측
- 중동의 발전권 약화...천연가스 대국 러시아 위상 흔들 '다원적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제3의 에너지’ 셰일가스 전쟁사적... 싸울 준비 됐습니까 (조선일보 2013년 5월 23일)
OPEC ‘美 셰일가스 대응’ 사본오열 (파이낸셜뉴스 2013년 5월 29일)
유럽까지 셰일가스 혁명... 에너지 독립 부른 꿈 (동아일보 2013년 7월 25일)
“셰일가스 인프라에 투자할 때” (한국경제 2013년 7월 31일)
“셰일가스 혁명 대처 못하면 도태” (한국경제 2013년 8월 2일)
셰일가스 시추장비 대대적 국산화 나선다 (헤럴드경제 2013년 9월 9일)
가장 비싼가스 쓰는 한국, 셰일가스로 에너지비용 줄여라 (매일경제 2013년 9월 11일)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이력

- 일본 경제신문 산교타임즈 대표이사겸 사장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출신
- 주요(中央)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1977년 산업타임즈사 입사
- 1991년에 반도체 산업 신문 발간, 편집장 취임
- 현재 일본반도체협회 부회장(회장대행)
- 일본 반도체 벤처협회 이사
- 제주시·부산시 명예시민(기업유치공로)

도서출판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문의 02-799-6727 팩스 02-799-2666

e-mail: youngsh@etoda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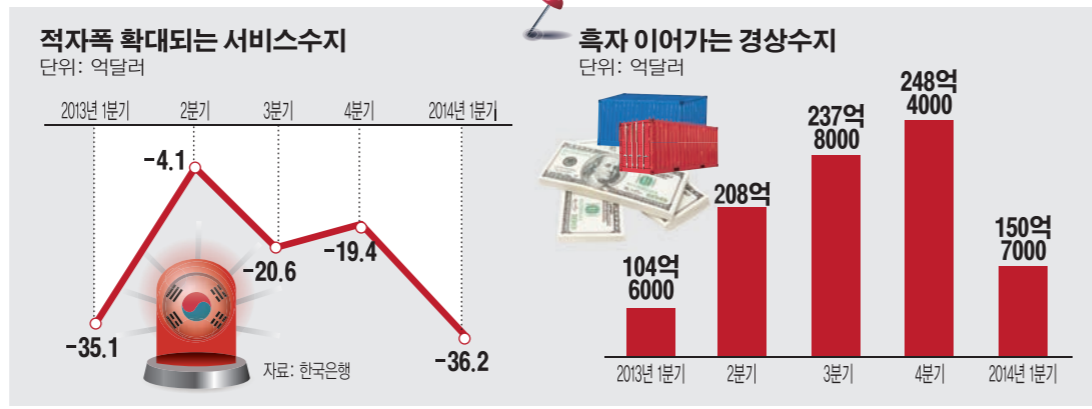
가파른 원高... 외국인 관광객이 안온다

서비스수지 6개월 연속 적자행진
경상특자 기조 흔들리는 불안요소
“서비스산업 수출 키워야 경제성장”

최근 원화강세(환율하락) 리스크에 서비스수지 약화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미국 달러화뿐만 아니라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에 대한 원화절상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행수지 등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돼 내용적으로도 견고한 흑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수출(잠정)은 작년 5월에 비해 0.9% 감소한 478억8000만달러, 수입(잠정)은 0.3% 증가한 425억3000만달러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수출입차는 53억5000만달러 흑자로 27개월 연속 흑자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막대한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은 결과다. 지난 4월 71억2000만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는 상품수지가 전월의 79억7000만달러에서 106억5000만달러로 확대돼 서비스수지(-10억4000만달러), 본원소득수지(-16억2000만달러), 이전소득수지(-8억6000만달러) 감소를 상쇄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서비스수지는 작년 10월 16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데서 11월 7억달러 적자로 전환되며 6개월째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적자폭 역시 작년 12월 -4억1000만달러, 올해 1월 -19억1000만달러, 2월 -10억6000만달러, 3월 -6억5000만달러, 4월 -10억4000만달러 등으로 커지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서비스수지 적자는 내수침체에 따른 수요부진, 교역조건 개선 등과 함께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흔들리는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가파른 환율하락과 중국 정부의 위안화 절하 추세 등이 맞물리면서 상품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환율 하락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

과 평균 환율이 달러 당 1028원일 경우, 재화와 서비스 수출은 0.46%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세태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위안화에 대한 원화 강세와 중국경제의 감속으로 전반적인 수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환율 변동에 민감하지 않고 수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고부가서비스업종의 수출 기반은 미약한 상황이다. 적자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서비스수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만한 여지가 낮다는 예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 요인이 생기면 해외로 나가는 한국인 수가 많아지고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가 적어지는 현상이 심화돼 서비스수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의료·관광·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키워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신흥위험국 GDP 1%P 하락때 한국 수출은 3.2%P 떨어진다”

산업연 “석유화학·철강 큰 타격”

신흥위험 11개국의 경기둔화가 우리 수출의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1일 ‘신흥권 시장의 주요 위험요인과 한국 수출에 대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신흥권 시장의 경기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을 제외한 신흥위험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포인트 변화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3.2%포인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11개국은 경제구조가 취약한 신흥취약 5개국으로 분류된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와 정치적 불안감이 증폭되는 ‘신흥불안 6개국’으로 분류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태국,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헝가리 등을 포함한 것이다.

권역별로는 신흥취약국이 우리 수출에 2.1%포인트, 신흥불안국이 2.3%포인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개별 권역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신흥권 시장 전역으로 위기가 확산될 때에는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도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신흥위험 11개국의 경제위기에 따른 우리 수출의 산업별 영향의 경우 신흥권 수출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4.6%)과 철강(4.5%), 자동차(2.7%) 분야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 수출에서 신흥위험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동차 부품(21.3%)과 일반기계(19.4%), 철강(18.8%) 분야의 순이고, 개별 권역으로는 신흥취약국이 자동차를 제외한 대다수 업종별 수출에서 신흥불안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와 신흥권 사이의 교역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상황 악화 시에는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김희준 기자 h9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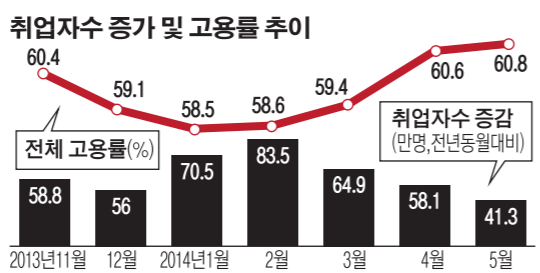
동반성장위원회 28차 회의 유창희 동반성장위원장(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28차 동반성장위원회'에 참석, 관계자와 자료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5월 취업자 증가 41만명... 10개월새 최저

세월호 참사 여파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40만명대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581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1만3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7월 36만7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월에 70만5000명, 2월에 83만5000명 각각 늘었지만 3월 64만9000명, 4월 58만1000명, 5월 41만3000명으로 석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4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이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로 본 고용률은 60.8%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5.6%로 작년 동월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청년



층(15~29세) 고용률은 40.5%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년 전보다 50대 취업자는 22만7000명, 60세 이상 취업자는 18만2000명, 40대 취업자는 2만2000명 각각 늘었다. 다만 8개월째 증가세였던 20대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1만1000명 줄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30대 취업자도 4만2000명 줄었다.

전민정 기자 puri21@

공공기관 CEO·감사 인선 본격화

인천국제공항공사·거래소 등 공모
관료·정치권 출신 배제될지 관심

지방선거 종료 후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와 감사 인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관료와 정치권 출신이 임명될지 주목된다.

1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임기 3년의 사장을 이달 27일까지 공모한다고 지난 4일 공고했다.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고위직 출신인 정창수 전 사장이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 3월 3일 사직직을 내려놓은 후 이뤄진 공모다.

한국거래소도 상임감사위원을 오는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늦은 인선 탓에 현재 고위 관료 출신인 김성배 상임감사가 임기만료가 됐음에도

직무를 수행 중이다.

강원랜드도 임기 3년의 부사장을 모집한다고 10일 공고했다. 강원랜드는 지난 2월 초 당시 최흥집 대표가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그만둔 데 이어 태백 오부리조트 지원과 관련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로 김성원 부사장이 4월 11일 물러났다. 주택관리공단도 상임감사와 상임이사의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이밖에 이달 29일 임기가 끝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공모를 포함해 기초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을 모집하는 공모가 지난달 23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관료나 정치권 출신이 획일적으로 배제될지 전관과 민간, 학계 등 출신을 가리지 않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문성·능력 검증이 이뤄질지의 여부가 관심이다.

김희준 기자 h9913@

www.dongsuh.co.kr

Maxim

“이제야 커피 마신 것 같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커피, 크림, 설탕의 황금비율과 최상급 콜롬비아 원두가 다른 커피로는 채워지지 않는 모카플란만의 '그 맛'을 만듭니다

맛있는 커피의 향기를, 맥심은 바나나를

좋은 원두, 좋은 커피

또 금감원 표적된 김종준 하나은행장

은행 해외점포 실적 깜짝반등

KT ENS 대출 사기·성과급 제재 대상 포함 이미 두 차례 퇴진 압박... 자리 보전 힘들 듯 이순우 우리은행장·서진원 신한은행장은 제외

금융감독원이 내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T ENS 부실 대출과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최고경영자인 김종준(사진) 행장을 또 다시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인 것이 자리를 보전하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김 행장이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버티고 있다 3차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 분석했다.

수령 적절성도 함께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승우 당시 하나금융 회장의 지시로 영업 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을 부당 지원한 게 금감원 감사에서 드러나 문책성 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김 행장에 대한 징계 내용을 조기에 공개하는 등 사퇴 압박을 가했다.



관련 제재에서 하나은행의 경우 대출 규모 등 문제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김 행장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위에는 김 행장에 문책성고라는 중징계를 의결한 4월 17일 전날 서둘러 지급한 성과급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미 문책 경고를 받아 퇴진압박에 시달린 김 행장이 이번에도 징계를 받는다면 더 이상 자리보전은 힘들다는 분석이다. 징계 수위를 떠나 최고경영자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연속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조직을 이끄는 내부통제력을 잃게 된다.

한편 대규모 징계를 앞두고 있는 은행권에서 이순우 우리은행장과 서진원 신한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영록 회장과 이근호 행장은 26일 제재심위를 앞두고 문책 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이철우 기자 acw@

부실채권 정리·연체율 개선 우리銀 영업이익 116% 급증

글로벌 저금리 기조속에서도 올해 1분기 은행들의 해외점포 실적이 급반등했다. 부실채권 정리로 연체율이 개선된 덕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64개 해외점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16.6%(3744만 달러) 급증한 6954만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기간 신한은행의 68개 해외점포는 3901만 달러(40.5%↑)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외환은행 91개 해외점포는 5015만 달러(21.4%↑)를 거뒀다. 특수은행 중 산업은행은 2613만 달러에서 3181만 달러로 21.7% 늘었고, 기업은행은 2068만 달러에서 2133억 달러로 3.1% 증가했다.

은행 해외점포 1분기 실적 (단위: 달러, %)

은행명	규모	전년대비 증감률
우리	6954만	116.6
신한	3901만	40.5
외환	5015만	21.4
산업	3181만	21.7
기업	2133억	3.1

외환은행은 지난 9월 러시아중앙은행(CBR: Central Bank of Russia)으로 부터 현지법인 설립 분인가를 취득했다. 8월부터 본격적인 현지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달 초 국민은행은 미안마 주택건설개발은행(CHDB)과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의 주택금융 노하우를 전수하는 동시에 미안마 현지사업의 협조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4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통합법인 PT Bank KEB Hana를 출범시켰다. 올해 안에 중국 통합법인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해외점포 수의 기반이 한정돼 있다며 성공적인 금융한류를 위해서는 경영전략 측면에서 그 기능과 영업모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회사 해외진출 체계 구축 초기단계에서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IBK기업銀 명예홍보대사 된 김태욱 시호비전그룹 회장

IBK기업은행은 거래고객인 김태욱(오른쪽) 시호비전그룹 회장을 IBK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김태욱 회장은 국내의 자소특종에 안경 기증 등의 나눔 활동을 실천하는 분”이라며 김 회장을 고객 첫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한 배경을 설명했다.

보험사 상반기 금감원 제재 급증

26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 업계 “작은 검사로 건수 높아져” 일부선 내부통제 문제 지적도

올해 상반기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보험사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보험사 임직원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작은 금감원의 검사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10일 현재까지 보험사를 대상으로 금감원이 제제한 횟수는 총 26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건과 비교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보험업권별로 보면 생보사 14건, 손보사 12건을 기록해 각각 전년대비 7건, 8건 증가했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생보사 가운데서도 흥국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이 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손보사 가운데서도 LIG손보와 흥국화재가 2건을 기록했다.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업권별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제재별로는 PCA생명과 알리안츠생명, 농협손보가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과징금 및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

과받은 보험사는 농협생명이 지난 3월 9억 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동부화재는 8억2000만원을 받았다.

이외에 AIG손보 3억9700만원, LIG손보 3억4800만원, 알리안츠생명 2억3700만원을 기록했으며, 이외에도 PCA생명 5000만원, 한화손보 5700만원, 미래에셋생명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보험사들의 금감원 제재가 급증하자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삼성화재의 부산 송도 지점에서 설비가 고가의 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고, 한화생명은 내부 직원이 지인에게 하위 보증 서류를 만들어 준 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보험사들은 금융권의 잇따른 금융사고로 인해 금감원이 검사를 강화해 보험사의 제재 건수가 높아졌을 뿐 내부통제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은행의 KT ENS 사기대출과 카드사들의 정보유출 사태 등으로 인해 금감원이 각종 금융사고를 선제적으로 잡기 위해 수시 검사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에 보험사들의 제재가 늘어난 것일 뿐 내부통제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현 기자 nls0118@

은행권 “中企 대출시장을 잡아라”

IP 자금지원 등 차별화 나서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시장 선전에 나서고 있다. 은행들은 특히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한 자금지원을 비롯해 환리스크 관리 등 차별화된 아이템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특허 등 IP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IP사업화자금대출을 통해 7개 기업에 총 5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기술 금융 부문에 적극적이다. 신한은행도 기술형 창업지원 대출상품 잔액이 출시 1년여 만에 4682억원을 기록하는 등 호실적을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7월 기술평가 전담부서인 산업 기술평가팀을 신설하는 등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올해 중기 대출지원 목표를 5000억원으로 잡았다. 김민지 기자 kimmj@



산업군별 대표기업도 다양한 강소기업도

ERP는 역시, 더존 ERP

자체 데이터 센터 보유

세계 최고 수준의 자체 인터넷 데이터 센터인 D-클라우드 센터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화, 모바일, 보안시스템 등 최신 IT 기술을 접목

단계별 ERP Line-up

확장형 ERP, 건설 ERP, 비영리법인용 ERP 등 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단계별 Line-up 보유

국내 독보적인 솔루션

IFRS 연결·개별 솔루션, XBRL 솔루션, FTA-원산지 관리시스템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국내 독보적인 솔루션 보유

안벽한 통합 시스템

22년 ERP업력으로 산업군별 표준 프로세스, 특화서비스 보유 및 자체 확장솔루션(그룹웨어, MES, POP 등)을 통한 완벽한 통합시스템 구현



기업용 움직이는 푸른심장  www.duzon.co.kr | 전국 통합 상담 **1688-5000**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은 꿈바라기

오직 고객님의 꿈만 바라보겠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은행이 지켜야 할 금융의 기본이 보입니다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투명한 금융!
고객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금융!
고객과 사회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꿈꾸고
함께 이루어가는 신한은행이 되겠습니다



금융브랜드 대한민국 1위, 세계 43위 | 3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PB |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대한민국 1위, 세계 30위 |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The Banker 誌 선정 | EUROMONEY 誌 선정 | 다보스 포럼 발표

신한금융그룹 | 신한카드 | 신한금융투자 | 신한생명 |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 신한캐피탈 | 제주은행 | 신한저축은행 | 신한데이터시스템 | 신한아이타스 | 신한신용정보 | 신한PE투자자문

삼성전자, 제일모직 최대주주 올랐다

삼성카드 지분·자사주 매입 지분율 11.17%...국민연금 처제 통합 삼성SDI 출범 앞두고 수직계열화 효과 극대화 전략

삼성전자가 제일모직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 삼성SDI, 제일모직 합병으로 부품 수직계열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제일모직에 대한 삼성카드의 보유 지분과 자사주 452만2720주(3.95%)를 모두 사들였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은 이날 10일 삼성전자 외 특수관계인 4인이 11.17%의 지분을 확보, 10%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을 제치고 새로운 최대주주에 올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최근 삼성SDI 자사주도 사

변경전	변경후	기타
최대주주	국민연금공단	삼성전자 외 특수관계인 4인
소유주식수	524만2953주	585만7010주
소유비율	10%	11.17%
세부 변경 내역 (주식수/지분율)		
삼성전자	452만2720주(8.62%)	
삼성문화재단	90만5492주(1.73%)	
삼성복지재단	38만4365주(0.73%)	
삼성생명	3만9433주(0.08%)	변경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송창룡 (제일모직 부사장)	5000주(0.01%)	5000주(0.01%)

들어 지분율을 24.29%로 끌어올렸다. 당초 삼성전자는 삼성SDI의 지분 20.4%를 확보 중이었으나 양사 합병으로 지분율이 13.5%로 축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삼성SDI가 보유 중인 자사주 4.8%(217만8399주)를 3441억8704억원에 사들인 데 이어,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 지분을 추가 확보해 통합 삼성SDI에 대한 삼성전자의 지분율은 19.6%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지분 확대가 통합 삼성SDI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 확보 차원이라는 시각이 많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제일모직을 자연스럽게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효과를 보게 되지만, 1, 2대 주주가 국민연금, 한국투자신탁운영인 점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 분석이다. 아울러 통합 삼성SDI가 거대 계열사로 재탄생하는 만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영향력을 키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두 회사의

합병이 완료되면 통합 삼성SDI는 연 매출 10조원, 자산규모 15조원의 거대 계열사가 된다. 직원도 1만4000여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업계는 통합 삼성SDI 출범이 삼성전자의 소재·부품 수직계열화에 '화룡점정'을 찍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삼성SDI 측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배터리 분리막과 다양한 소재 요소기술을 내재화해 배터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합 삼성SDI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지는 만큼 사업 시너지를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지배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거래를 통해 확보한 452만2720주(8.62%)의 지분과 특수관계인 삼성문화재단 90만5492주(1.73%), 삼성복지재단 38만4365주(0.73%), 삼성생명 3만9433주(0.08%) 등을 더해 제일모직의 1대 주주로 올라섰다. 정호진 기자 js62@

LG-유엔 글로벌콤팩트 지속가능발전 협력

LG가 유엔 글로벌콤팩트와 함께 질병, 환경문제 등 국제사회 이슈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에 협력키로 했다. LG는 10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유엔 글로벌콤팩트와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엔 글로벌콤팩트는 유엔(UN) 산하 전문기구다. 국제사회 이슈 해결에 기업의 동참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00년에 설립됐다. 현재 145개국 1만2000여개 민간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다.

LG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에 필요한 기업의 역할을 정립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식량안보, 물과 위생, 에너지, 교육, 빈곤퇴치, 건강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유엔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할 비전이자 목표다.

우선 LG는 그동안의 자개발국 지원 사회공헌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유엔 글로벌콤팩트와 공유해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활동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LG가 에티오피아에서 펼치고 있는 'LG 희망 커뮤니티 프로젝트'는 자개발국의 빈곤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사례로, 글로벌 기업들에게 사회공헌활동 가이드라인으로 전파될 예정이다.

LG 희망 커뮤니티 프로젝트는 △자립형 농촌마을 조성 △직업학교 설립 △한국 전 참전용사 후손 장학지원 등 현지 주민들의 자립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LG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주도적 회원사 50여개로 구성된 '리드 그룹(GC LEAD)' 멤버로 참여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재정 조달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사회 이슈 해결을 위한 기업 자문단으로 참여해 자개발국과 기업이 동시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등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SK케미칼 친환경제품 2년 만에 매출 10배

SK케미칼의 친환경 소재 에코젠을 적용한 마더스콘 스마트에코테이너가 제품 출시 2년 만에 매출이 10배가량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 소재 한 공원에서 마더스콘 스마트에코테이너 사용 고객이 용기에 유아용 이물질, 과일 등을 담아 피크닉을 즐기고 있다.

동부그룹 구조조정 다시 급물살

다음주 3~4개 펀드와 동부하이텍 인수의향 타진

금융권이 동부하이텍 매각과 관련해 투자자에 인수의향을 타진하면서 동부그룹 구조조정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공동 매각 주관사인 노무라증권은 다음 주 중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동부하이텍의 인수 의향을 타진할 계획이다. 동부하이텍은 동부그룹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수탁제조) 계열사로, 지난해 11월 동부그룹이 3조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발표하면서 매물로 나왔다.

동부하이텍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곳은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FI) 등 3~4개 펀드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하이텍 매각안내서(티저레터)는 국내외의 20여개 업체에 발

송했지만, 인수 의향을 보인 투자자 중 LG나 SK하이닉스 같은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로 동부하이텍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패키지 매각을 하는 방식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복수의 원매자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산업은행은 개별 매각으로 방향을 바꿨다.

업계 관계자는 "동부하이텍은 투자자들이 대상으로 제한적인 접촉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예비입찰이 아닌 복수의 인수 희망자를 대상으로 의향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동부특수강과 동부제철 당진항만 인수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은행은 사모펀드(PEF)를 설립해 동부특수강과 당진항만 지분 100%를 각각 1100억원과 1500억원에 인수하기로 지난 달 말 동부그룹과 합의했다.

동부특수강 매각에는 현대제철과 세아특수강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태성 세아베스틸 상무는 지난 10일 열린 '제15회 철의 날' 행사에서 "동부특수강이 매물로 나왔기 때문에 세아특수강을 보유하고 있는 세아그룹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인수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동부제철 인천공장도 동부당진발전소에 대한 패키지 매각도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실적 결과 검토를 2~3일 내로 마무리 짓고 인수의향 여부와 매각 가격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허리띠 조이는 정유사

지난해 정유업에서 영업손실을 본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실적개선을 위해 직영주유소를 꾸준히 줄이는 등 허리띠를 팍 조이고 있다.

11일 한국주유조합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국내 4대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는 총 665개로 지난해 4월 704개와 비교해 5.5%(39개) 감소했다. 정유사 영업점과 함께 임대직영점을 포함한 직영주유소도 지난해 4월 1363개로

올 4월 1293개보다 5.1%(70개) 줄었다.

일반적으로 직영주유소는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와 또 다른 형태인 임대직영주유소를 함께 지칭한다. 임대직영주유소는 정유사와 사업자 간의 계약 형태에 따라 여러가지 유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정유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유소 부지 및 시설을 사업자에게 임대시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임대직영주유소 사업자는 정유사에 시설 이용에 따른 임대비

를 계약형태에 맞춰 지급하면 된다.

특히, 정유사가 운영하는 직영주유소의 경우 GS칼텍스가 지난 1년 동안 60% 가량을 줄이면서 올 4월 기준으로 35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GS칼텍스의 브랜드로 운영되는 총 주유소 2819개 중 1.2%에 불과하다. GS칼텍스는 지난해 정유부문 영업손실 433억원을 기록했다.

역시 지난해 정유업에서 3505억원 가량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에쓰오일은 전년대

같은 6개의 자사 운영 직영주유소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직영주유소는 같은 기간 12개 증가해 직영주유소와 상이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임대직영주유소는 정유사가 사업자로부터 임대비 수익을 거둘 수 있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수익금 확보가 용이하며, 결국 임대직영점을 늘리면 정유사의 이익 개선에 더 효과적인 셈이다.

반면, SK네트웍스와 현대오일뱅크가 운영하는 직영주유소는 증가했다. SK는 지난해 4월 445개였으나 올 4월 452개로 늘었으며, 현대오일뱅크는 1년새 3개를 신규 오픈해 172개점을 보유하고 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제주항공 vs 아시아나 사이판 하늘길 쟁탈전

"다워" 제주항공이 '골리앗' 아시아나항공이 독점해왔던 사이판 노선에 취항한다. 양사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사이판 노선 취항허가를 위한 한국-미국 정부의 주요 절차를 지난주에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운항을 개시한다.

제주항공은 보잉 737-800기종으로 매일 1회씩 인천-사이판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운임과 항공권을 예매 시점 등은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제주항공이 2012년 9월 인천-괌 노선에 취항한 사례를 볼 때, 대형 항공사의 운임보다 최소 20%에서 최대 50% 가량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할 것이 유력하다.

10월부터 제주항공이 사이판 노선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의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국적사 중 해당 노선을 독점해왔으며 현재 주 2회 운항하고 있다.

미국 9·11테러 이후 관광경기 위축과 고유가에 따른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03년 대한항공이 사이판을, 아시아나가 괌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까지 두 노선은 국적항공사의 복수운항체제로 유지돼 왔다. 이후 10년 가까이 단독선으로 유지됐던 괌 노선은 2012년 제주항공과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의 취항으로 경쟁체제로 전환됐다.

제주항공은 아시아나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자신하고 있다. 앞서 2012년 대한항공이 독점했던 괌 노선에 취항할 당시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쓸쓸한 재미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괌 노선이 제주항공 취항 이후 실질적인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자유여행객과 가족단위 여행객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등 여행패턴이 바뀌고 대중화가 실현됐다"며 "사이판 노선 역시 아시아나 독점으로 가격이 비쌌으나 제주항공이 취항하면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확대돼 괌 노선과 같은 신규수요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대기업, 수익 악화에도 고용 늘려

직원수 작년보다 4.6% 증가

대기업들이 지난해 생산성·수익성 악화에 고용을 도리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CEO스코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47개 기업집단내 1544개 계열사의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내 상주 직원은 142만8550명으로 전년 136만6201명보다 4.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실적 부진과 계열사 감소에도 고용 확대에 적극 나섰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지난해 매출은 1455조2000억원으로 전년 1485조4000억원 대비 2% 줄었다. 영업이익도 80조6000억원에서 76조1000억원으로 5.6% 감소했다. 계열사 수의 경우

2012년 1577개에서 지난해 1554개로 23개가 줄어들었다.

대기업 그룹의 고용 증가는 삼성, 현대차 등 상위 그룹보다 유통업을 영위하는 내수 중심의 중견그룹 주도도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47개 그룹의 지난해 고용 증가 인원 중 40%에 달하는 2만4600여명을 신세계, 현대백화점, CJ 3개 그룹이 늘렸다. 대체로 투자 증대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이 주도하고 고용은 중견 유통그룹이 떠맡는 모양새인 것이다.

현대차(4.7%), 삼성(2.3%), SK(1.7%), LG(1.3%)의 고용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자산 규모 5위로 유통업종에 속하는 롯데의 고용증가율은 7%(8만5059명→9만1044명)로 평균치보다 높았다. 서지희 기자 jhsseo@

한국타이어, 중앙연구소 '테크노돔' 첫삽

"R&D 투자 늘려 2020년까지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한국타이어가 글로벌 톱 타이어업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강화를 연구인력 확보에 나선다.

한국타이어는 10일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신축 중앙연구소 '한국타이어 테크노돔' 기공식을 열고, 매출액 4~5% R&D 투자, 연구인력 400명 충원으로 2020년까지 글로벌 타이어 기업 선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승화 한국타이어 부회장은 "2020년까지 세계 리딩 컴퍼니가 되는 것을 목표로 품질 수준을 더 높이고 원천기술과 미래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R&D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범 마케팅본부장 겸 경영운영본부장 사장은 "주요 경쟁업체보다 1%포인트 더 높은 매출액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꾸준히 비중을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연구개발비로 매출액의 3.5%인 1309억원을 투자했다.

한국타이어는 앞으로 해외 유망연구원 영입과 신인 연구원 육성 등 연구인력 강화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이 회사는 중앙연구



한국타이어 중앙연구소 '테크노돔' 조감도. 사진제공 한국타이어

소를 새로 지으면서 400명을 총원해 연구인력을 1000명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조 사장은 "공정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전에 연구소를 설립하지만, 지방에 오면 좋은 인력을 모집하기 어렵다"며 "세련된 기업문화, 젊은 사람이 호응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갖춰가면서 좋은 연구원을 꾸준히 영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타이어 테크노돔에는 총 2666억원이 투자됐다. 오는 2016년 완공 예정으로 첨단 연구장비와 상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90개의 실험실이 들어선다.

권태성 기자 tskwon@

2014 여름 제조업체별 에어컨 특징 출처: 각 사

제조업체: SAMSUNG (삼성전자)
제품명: 삼성 스마트 에어컨 Q9000
특징점: 강력·청정 냉방
 - 강력한 회오리 바람 더 멀리 보내는 아이스 덩굴
 - 한계점의 시원한 바람 재현한 휴(休)바람
에너지효율 1등급
 - 초절전 디지털 인버터
벽걸이형 에어컨
 - 세계 최초 트리아앵글 디자인 채용



제조업체: LG (LG전자)
제품명: 휘센 빅토리 에어컨
특징점: 포커스 4D 입체냉방
 - 적년 제품 대비 최대 20% 빨라진 냉방 속도
이스쿨 파워 기능
 - 일반 에어컨 바람 온도보다 4℃ 이상 낮은 온도
 - 정속형 모델 대비 65% 빨라진 냉방 속도
투웨이(2 way) 제습 기능
 - 강력제습 및 절전제습
3M 초미세 먼지필터 채택



제조업체: WiniaMando (위니아만도)
제품명: 2014 위니아 에어컨
특징점: 강력 냉방
 - 360도 아이스쿨 입체냉방
 - 슈퍼 아이스쿨링 및 풀파워 클링
청정 냉방
 - 미세망 온나노 살균
 - 플라즈마 이온 청정
절전 냉방
 - 초절전 인버터 시스템
 - 첨단 SCC 실외기
편리냉방
 - 스마트 O쿨링 모드
 - 취침모드 및 제습 냉방



제조업체: Carrier (캐리어에어컨)
제품명: 립스틱 플러스
특징점: 스마트 컨트롤 시스템 개선
 - 원격제어 앱 통해 운전 제어
단독제습 및 공기청정 기능
 - iD(전자제어 해파필터) 국내 최초 에어컨에 독점 적용
 - 총 3단계 필터로 초미세먼지 제거
에너지효율 1등급
 - 초절전 DC하이브리드 인버터 기술
 - 정속형 에어컨 대비 약 70% 에너지 절감
인체 감지 센서 탑재



조작은 쉽게, 냉방은 세계... 에어컨의 진화

때 이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에어컨을 향해 열리고 있다. 당초 올해 초반 해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같은 '에어컨 대란'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였다. 올 1분기 전체 에어컨 판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10% 줄었다. 2012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125% 증가했지만 작년만큼의 특수는 없었던 셈이다. 지난해 신규 구입자가 많았던 데다가, 제습기가 여름 계절상품의 다다르면서 수요가 떨어진 것이 초반 부진의 요인이다. 그러나 4월 말부터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5월 31~6월 1일 일주일간 에어컨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두 배 급증했다. 이는 지난 5월 첫째주 주말(5월3~4일)에 비하면 5배나 많은 판매량이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춤했던 올해 에어컨 판매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제품 유통업계 관계자는 "초반에 부진했던 만큼 작년 판매 규모를 뛰어넘을 수는 없겠지만 현 추세라면 차이는 크지 않을 것 같다"며 "올해 출시된 제품들이 다기능으로 무장한 것도 소비자들에게 서서히 먹혀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올해 에어컨 제조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차별화에 주력하면서 소비자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사용 편의성을 크게 높인 프리미엄급

이른 더위에 1분기 판매부진 반전 삼성·LG·캐리어·위니아만도 4사 각각 제습·급랭·디자인·입체냉각 마케팅 차별화 소비자 공략 나서 'Q9000'을 출시하고 마케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 제품은 '제습 버튼'을 따로 만들어 올해 '제습' 트렌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에어컨이 제습 기능을 갖췄다는 사실을 모른다가나, 작동이 번거로우며 별도로 제습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작은 팁'을 준 것이다. 여기에 3개의 바람문을 활용, 바람의 종류를 7가지로 다양하게 까다로운 소비자 입맛을 맞췄다. LG전자의 올해 주력 모델인 '휘센 빅토리'는 빠른 냉방 속도를 강조했다. 일반 에어컨 바람 온도보다 4도 이상 차가운 바람으로 공간 온도를 빨리 낮춰주는 '아이스쿨 파워'를 적용해 기존 정속형 모델 대비 65%, 인버터 모델 대비 15% 빠르게 온도를 낮춰준다. 이 제품 역시 소비자들이 제습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투웨이(2way) 제습' 기능을 추가했다.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강력 제습과 절전 제습을 선택할 수 있다. 캐리어에어컨은 '립스틱 플러스'를 통해 디자인과 바람의 길이를 차별화했다.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좁은 공간에도 쉽게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작해 원통 또는 신혼가구를 고려했다. 여기에 바람문의 머리가 270도까지 회전하는 매직 마이프리 오토스윙 기능과 바람이 20m까지 나오는 '롱 런치 허리케인 펌속 냉방 기능'을 더했다. 이밖에 위니아만도는 더 넓게 바람을 내보낼 수 있는 '2014년형 위니아 에어컨'을 내세웠다. 이 제품은 정면과 양측면에서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360도 아이스쿨 입체냉방' 기술을 적용해 더 빠른 냉방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신제품 리뷰 팬택 '베가 아이언2'

날렵한 메탈... 속도·편의성 '합격점'

두께 7mm대... 빠른 부팅도 장점 잠김 화면서 카메라 기능 터치




팬택 '베가 아이언2'의 첫 인상은 합격점이다. 본체 테두리를 꿰뚫고 금속 재질로 두른 '엔들리스 메탈' 디자인은 전작의 명성을 고스란히 이었다. 금속 소재와 7mm대 두께가 주는 손 안의 느낌은 만족스럽다. 금속으로 한껏 치장을 했지만 실제 무게감은 부담스럽지 않다. 더불어 제품 우측 상단을 45도로 꺾은 '파인 컷(Fine Cut)' 가공, 그리고 가공된 금속 사이로 상황에 따라 변하는 7가지 색상의 '핀 포인트 라이팅'도 색다른 느낌을 준다. 팬택 이준우 대표가 "최고의 걸작"이라며 칭이 마르도록 자랑한 것이 이해된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801 프로세서와 3GB 램을 탑재한 만큼 디바이스 부팅 및 애플리케이션(앱) 구동 속도는 빨랐다. 화면 크기는 5.1인치인 '갤럭시S5'보다 0.2인치 크지만 육안으로 차이를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 잠김 화면에서 한 번의 터치로 카메라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유용하다. 카메라가 스마트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기능으로 자리잡은 만큼 편의성을 높인 UX(사용자 경험)가 돋보였다. 배터리 효율이 좋았고, 충전 속도도 빨랐다. 완전히 방전된 후 100% 충전되기까지 2시간이 채 안 걸렸다. 기능 면에서는 '시크릿 모드'가 단연 눈에 띈다. 스마트폰 뒷면의 덮개를 떼어내고 지문 인식 케이스를 씌우면 시크릿 모드와 시크릿 박스 등 보안 기능 이용이 가능하다. 최초 지문 등록을 위한 설정 방법도 간단했고, 후면 카메라 바로 아래에 감지기가 부착돼 있어 집게손가락을 이용해 한 손 조작도 쉽다. 지문 인식률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다만 시크릿 모드를 이용하기 위해 전용 케이스를 씌워야 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장효진 기자 js62@



LG전자 '포켓포토' 국내 판매 50만대 돌파
 LG전자는 초소형 모바일 프린터 포켓포토가 국내 누적판매 50만대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2년 9월 국내 시장에 처음 선보인 후 매출 약 2만5000대가 판매된 수치다. 50만대 돌파를 기념해 LG전자는 사용하던 즉석카메라를 가져오면 '2014년형 포켓포토'를 11만9000원(정가 14만9000원)으로 할인해 주는 '즉석카메라 보상판매' 이벤트를 한 달간 실시한다. 사진제공 LG전자

찍스 '디카북'·교보문고 퍼플 '자가출판'·북팔 '매니지먼트 시스템' '나도 작가'... 1인 출판서비스 붐

최근 자신의 이름을 건 책을 출간할 수 있는 1인 출판 서비스가 늘고 있다. 출판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콘텐츠 구성, 편집, 제작, 유통에 이르는 모든 출판 과정을 개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9월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시대 인화업체인 찍스는 최근 사진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을 수 있는 디카북 서비스로 1인 출판 서비스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올해 기준 찍스의 디카북 판매량은 2010년 대비 4배가량 증가했을 정도로 관련 수요도 늘고 있다. 소비자들은 디카북 서비스를 통해 레시피 북이나 여행포토북, 여행사진을 삽입한 에세이 북을 제작할 수 있다. 자체 편집기능을 활용해 사진과 텍스트를 손쉽게 편집할 수 있고 동영상, 음악링크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도 삽입 가능하다. 또 단순 소장·선불용 책을 넘어 자가 출판을 통해 판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교보문고 퍼플은 개인의 저작물을 이북(e-book)과 종이책으로 제작해 실제 판매 수익까지 낼 수 있도록 서비스

를 제공한다. 종이책 출간도 가능하며, 출간된 책은 교보문고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에 나설 수 있다. 전자책 전문기업 북팔은 전문작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이 업체는 웹 소설 분야에서 아마추어 작가를 발굴하는 전문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수익과 출판물을 만들어낸다. 북팔의 웹 소설 작가 중 대다수가 네이버에서 베스트 작가로 활동 중인 만큼, 성과도 가시적이다. 북팔은 홈페이지 가입 후 작품 올리기 코너를 이용해 간단히 콘텐츠를 올릴 수 있다. 로맨스, 무협 판타지 등 총 14가지 장르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자신이 직접 콘텐츠의 유·무료 여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20회 이상 등록된 콘텐츠는 네이버 북스와 연계해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찍스 기획팀 현창호 차장은 "누구나 한번쯤 자신의 이름을 내건 책 출판을 꿈꾸지만 복잡한 절차와 만만치 않은 비용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1인 출판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세계가 반한 비비고! 이제 한국에서 만나세요








비비고 Enjoy K-food **bibigo**

국내 쇼핑몰, SNS로 해외 고객 잡는다

중국 '시나 웨이보' 20대 비중 높아 젊은고객과 소통 일본은 블로그 전문 '아메바'... 미국은 '페이스북' 나라마다 애용하는 채널 달라 국가별 계정 운영

국내 쇼핑몰 업체들이 해외 고객 확보를 위해 SNS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온라인쇼핑몰 솔루션업체 카페24에 따르면 해외 마케팅을 진행하는 국내 쇼핑몰의 90%는 SNS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별로 현지 쇼핑 이용층이 주로 활용하는 SNS 채널이 달라 각 나

라별로 기업형 SNS 계정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어권은 소셜미디어의 트래픽 발생량이 높은 편이다. 국내 의류 쇼핑몰들은 20~30대의 젊은 중국 현지 고객들을 유입시키고 소통하기 위한 채널로 '시나 웨이보'의 기업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온라인 쇼핑 구매자를 분석해보면, 시나 웨이보를 주로 사용하는 18~29세가 약 60%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다. 국내 업체들은 브랜드에 대한 초기 인지도 확보를 위해 기업 계정을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경우도 포털 사이트 내 광고와 함께 SNS 활용이 눈에 띈다. 특히 일본 내 블로그 전문 사이트인 '아메바(Ameba)'를 이용하는 업체들이 많은 편이다. 파워블로거와의 콜라보레이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리뷰 콘텐츠, 한국 관련 키워드 콘텐츠 등에 고객의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권은 상대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한 SNS 운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인속 카페24 해외광고팀장은 "모바일과 PC 등을 통해 SNS에 익숙해지는 세대가 늘면서 초기 인지도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 현지 SNS 채널을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특히 해외의 소셜 매체를 통해 결제까지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과 점점 강화와 매출 확대에도 효과적인 채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카페24는 주요 언어권의 해외 포털 사이트의 공식 광고 대행권을 획득해 현지 광고를 운영하고 있고 페이스북, 아메바, 웨이보를 비롯한 해외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한 마케팅도 제공하고 있다.

김정유 기자 thec98@

이통사 불법보조금 추가제재 검토

방통위 사실확인 조사

이동통신 3사가 순차 영업정지를 마치고 영업재개에 들어간 이후 또다시 불법 보조금이 살포되자, 방통위위원회가 사실확인에 나서면서 추가제재 검토에 들어갔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10일 3사 마케팅 관계자를 불러 불법 보조금에 대한 사실조사 확인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현장 조사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각 사 임원들을 소집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이 광범위하게 살포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진상을 파악한 뒤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달에도 "시장 과열을 주

도하는 사업자 1곳을 집중적으로 제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발표해,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 1곳에 추가 영업정지 등 강한 제재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달 9일 저녁부터 10일 새벽까지 휴대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LG G3, 삼성 갤럭시S5, 갤럭시 노트3 등 최신 스마트폰이 공짜에 팔렸다. 이들 스마트폰의 출고가 각각 89만9900원, 86만6800원, 106만7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합법적인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을 제외하고도 60만원이 넘는 불법 보조금이 뿌려진 셈이다. 인터넷에서는 이를 두고 '6·10 보조금 대란'으로 회자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말 2월과 3월의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추가 영업정지 실시시기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병근 기자 nova@



골 넣으면 브라질 로밍 할인 LG U+ 'Goal~!값 하는 로밍'

LG유플러스는 월드컵 기간 동안 브라질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골을 넣을 때마다 브라질 무제한 데이터 로밍 요금제 요금을 5000원씩 할인해주는 'Goal~!값 하는 브라질 로밍 이벤트'를 오는 13일부터 진행한다. 11일 밝혔다. 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게 되면, 당일 브라질에서 사용하는 무제한 데이터 로밍 요금을 무료로 제공한다. 8강 진출 시에는 당일 무제한 데이터 로밍 요금 무료 제공에 추가로 브라질에서 발신하는 음성까지 무료로. 사진제공 LG유플러스

한기평, KT 신용등급 '부정적' 전망

유무선 매출감소 등에 하향 조정

한국기업평가가 10일 한국신용평가에 이어 KT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신용등급은 'AAA'를 유지했다.
한기평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제 강화 추세와 대규모 명예퇴직 실시 등의 자체적인 비용절감 노력에도 유선 부분의 매출감소 지속 전망, 높은 마케팅 경쟁 강도 등으로 수익성 압박 요인이 상존함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별도 재무제표 기준 수정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EBITDA) 및 총 차입금·영업현금흐름(OCF) 지표가 각각 23% 미만, 2.3배 이상 수준을 유지할 경우 신용 등급 하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신용평가도 지난 3월 KT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나이스신용평가는 KT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KT케피탈과 KT렌탈은 각각 'AA-'에서 'A+', KT오토모티브는 'A'에서 'A-'로 내려 갔다. 나이스신평 관계자는 "KT ENS 기업회생 절차 신청으로 계열사에 대한 그룹의 지원 의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CJ넷마블 "하반기 모바일 RPG 시장 업그레이드"

'레이븐'·'크로노블레이드' 등 신작 게임 6종 출시 앞둔



'몬스터 길들이기'로 역할수행게임(RPG)장르의 대중화를 이끈 CJ넷마블이 또 한번 RPG관의 변화를 예고했다.
CJ넷마블은 10일 '레이븐'과 '크로노블레이드' 등 액션 RPG 게임 2종과 프로젝트 A, G, K, S(가제) 등 총 6종의 신작 모바일 RPG 게임을 올해 하반기에 출시한다

고 밝혔다.
CJ 넷 마 블은 지난해 8월 몬스터 길들이기를 시작으로 RPG 장르의 게임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다함께 던전왕' '사이닝스토리' '세븐나이트' '드래곤가드'까지 총 5종의 RPG를 출시한 상태다.

특히 몬스터길들이기는 국민 RPG로 불리며, 누적 매출 1400억원을 달성하는 등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CJ넷마블은 이러한 성공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그래픽과 게임성을 지닌 '레이븐'과 '크로노블레이드'를 출시하며 모바일 RPG 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구상이다.
레이븐은 1편의 3D(3차원) 판타지 영화를 연상시키는 그래픽이 돋보인다. 블록버스터급 액션 RPG로 총 1000종에 이르는 독특한 장비를 수집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국내 외 관심이 집중된 크로노블레이드도 처음으로 선보였다. 레이븐과 크로노블레이드는 CJ넷마블의 퍼블리싱을 통해 각각 7월과 8월 출시될 예정이다.
조영기(사진) CJ넷마블 대표는 "2013년 넷마블표 모바일 RPG게임이 큰 사랑을 받았다"며 "이번에 공개한 레이븐과 크로노블레이드가 올 하반기 모바일 RPG 시장에 새로운 판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기업연구소 3단계 시대 열렸다

기업부설연구소 3단계 시대가 열렸다. 이는 1981년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 도입 이후 33년 만에 이뤄진 결과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기업연구소는 그룹기업이 설립을 주도하면서 1981년 53개를 시작으로, 1991년 1000개, 2004년 1만개, 2010년 2만개에 이어 지난 달 3만개를 기록했다.
기업규모별로는 현재 소기업(46.7%) 비중이 가장 높고, 벤처기업(31.1%), 중기업(16.7%), 대기업(5.5%) 순이다. 분야별로는

제품개발의 경우 전기전자(25.1%) 분야가 4분의 1가량 차지했으며, 지식서비스분야는 SW개발공급(14.2%) 분야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기업연구소 수가 갑작스럽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부터다. 기술혁신 시대로 접어들며 벤처 붐에 힘입어 닷컴연구소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000년 당시 6307개였던 중소기업 연구소는 5년 만에 1만개를 돌파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PC의 데이터는 어떻게 영구삭제 하실 건가요?

보안 전문 기업 - 하우리
SECURE YOUR NETWORK WITH HAURI

유출되면 안되는 귀중한 데이터! 휴지통 비우기, 포맷, Fdisk 등의 단순 삭제만으로는 영구삭제 될 수 없습니다.
ViRobot DataEraser 2.0은 미 국방성 표준안에 따른 삭제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도록 완벽히 영구삭제해 드립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영구삭제 솔루션

HAURI 바이로봇 데이터레이저 2.0

제품 주요기능

- ▶ 지워진 파일까지 영구삭제 (복원 불가능)
- ▶ 파일 검색기능으로 원하는 파일만 영구삭제
- ▶ 논리 드라이브 단위 및 물리 드라이브 단위별 지능형 영구삭제
- ▶ 디스크 단위의 빈 영역 영구삭제
- ▶ 보안 등급별 삭제 강도 조절 및 편리한 예약 삭제 기능
- ▶ FAT 16/32, NTFS 파일 시스템 지원
- ▶ 빠르고 안전한 영구삭제

제품문의: 02) 3676-1100

특이점

2003년 관련 기술 특허 등록 완료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파일의 영구적 삭제 방법 및 그 기록 삭제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ViRobot DataEraser X v1.0

www.hauri.co.kr

쌍용건설, 말레이시아와 '남다른 의리'



법정관리 중 820억 호텔 본공사 계약

쌍용건설은 최근 말레이시아의 세계적 휴양지 랑카위에서 '세인트 레지스 랑카위 호텔&컨벤션 센터(사진)' 본공사를 8100만 달러(약 820억원)에 단독 수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쌍용건설은 2013년 8월 말레이시아 정부와 인도네시아 굴지의 라자왈리 그룹이 공동 투자한 이 프로젝트의 기초 토목공사를 수주했으나 지난해 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본공사 수주가 우려됐다. 회사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호텔 본공사에 대한 설계 컨설팅과 시공 전반에 걸친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주처 최고경영자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본공사를 따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인트 레지스 랑카위 호텔은 말레이시아 정부

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랑카위를 발리, 모나코 등 국제적 해양관광지를 능가하는 세계적 관광 허브로 개발하는 국책사업의 첫 프로젝트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 호텔이 완공되면 2015년 4월 자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일 3개국 정상과 동남아시아 정상들이 만나는 '2015 ASEAN SUMMIT+3'의 공식 행사장이자 각종 정상들의 숙소로 활용될 계획이다. 호텔은 모든 객실이 스위트 룸(suite room)으로 구성되고, 개인 요트 정박장과 수영장을 갖춘 수상 빌라 16개 객실이 들어서는 등 최고급 호텔로 시공된다. 회사 관계자는 "기업회생계획 인가를 앞두고 해외 수주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기업 정상화 및 M&A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영관 기자 kwan@

동부건설, 2080억 규모 행당6구역 재개발 수주

동부건설은 서울 성동구 행당6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을 위해 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공사금액 2080억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00번지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행당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지하 2층~지상 39층(최고), 1034가구(일반분양 294가구)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로 공사기간은 32개월이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내달부터 이주가 진행될 예정으로 동부건설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 및 분양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행당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분당선, 중앙선이 환승되는



왕십리역 쿼드러블 역세권에 위치한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고 서울숲 인근에 위치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며 한강 조망까지 가능하다"며 "올해 주거지 최고 공사시기를 자랑하는 강남의 랜드마크 대치센트럴빌에 이어 강북의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진 기자 tipippo@

'제2롯데월드' 조기개장 신청 서울시 이달말 허가여부 결정

제2롯데월드의 조기 개장 여부가 이달 말께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2롯데월드 저층부 판매시설 등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가 롯데 측으

로부터 제출됐다고 11일 밝혔다.

임시사용승인신청서에 따르면 서울시 송파구에 들어서는 이 건물의 건축용도는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예비뉴얼동, 캐주얼동(공연장 제외), 엔터테인먼트동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 건물 저층부의 연면적은 42만8933.72㎡로 건물의 총 연면적은 80만7886.07㎡다. 또 주차는 2756대가 가능하며 건물 전체 층 주차대수는 3773대다.

박태진 기자 tipippo@

추천 경매 물건

용도	소재지	대지 (㎡)	대지 (평)	건물 (㎡)	건물 (평)	감정가(원)	최저 입찰가(원)	감정가 대비(%)	입찰 및 개찰일	경매계	사건 번호
아파트	서울 마포구 염리동 520 삼성래미안 106동 11층 1101호	29	8.6	60	18.1	380,000,000	304,000,000	80.00%	7월 08일	서부5	2013-12675[2]
아파트	서울 성동구 행당동 346 행당한진타운 105동 5층 506호	32	9.8	85	25.6	530,000,000	424,000,000	80.00%	7월 07일	동부6	2013-19254
아파트	서울 용산구 한남동 802 리버탑 101동 4층 403호	36	10.9	85	25.6	570,000,000	456,000,000	80.00%	7월 08일	서부2	2014-2989
아파트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53 에스케이이북한산시티 146동 11층 1104호	51	15.5	115	34.7	410,000,000	328,000,000	80.00%	7월 07일	북부8	2014-4552
아파트	서울 중랑구 목동 386 금호아울림 101동 11층 1106호	47	14.1	102	30.8	470,000,000	376,000,000	80.00%	7월 07일	북부7	2014-3986
아파트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9-4 셋별 609동 9층 907호	24	7.1	35	10.6	155,000,000	124,000,000	80.00%	7월 08일	안양1	2013-13536
아파트	경기 이천시 중포동 478 한솔솔파크 201동 16층 1602호	46	14	85	25.7	265,000,000	185,500,000	70.00%	7월 09일	여주4	2013-17853
아파트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6 주공 314동 4층 405호	77	23.3	59	17.9	215,000,000	150,500,000	70.00%	7월 08일	안산5	2013-19802
아파트	경기 광명시 철산동 55-1, -2, -3, -4, -5, 56-286 광복현대 103동 15층 1508호	33	9.9	85	25.6	310,000,000	217,000,000	70.00%	7월 08일	안산5	2013-26152
아파트	인천 연수구 연수동 634 우성 217동 5층 502호	33	9.9	60	18	207,000,000	144,900,000	70.00%	7월 07일	인천13	2013-97566

◇서울 마포구 염리동 520 삼성래미안= 서울 마포구 염리동 520 삼성래미안 106동 1101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1년 준공된 10개동 683가구 단지로 해당 물건은 17층 건물 중 11층이다. 6호선 대흥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다. 노고산동체육공원, 마포아트센터 등의 레저편의시설이 있고 용강초, 서울여중, 서울여고 등의 교육시설도 가까이 있다. 최초 감정이 3억8000만원에서 1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매각가는 3억4000만원이다. 입찰은 오는 7월 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5계, 사건번호 2013-12675[2].



◇서울 성동구 행당동 346 행당한진타운= 서울 성동구 행당동 346 행당한진타운 105동 506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1년 준공된 24개동 2851가구 단지로 해당 물건은 24층 건물 중 5층이다. 5호선 행당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다. 주변에 대한산공원, 응봉공원 등의 레저편의시설이 있고, 행당초, 무학여중, 무학여고 등의 교육시설도 있다. 최초 감정이 5억3000만원에서 1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매각가는 4억 2400만원이다. 입찰은 오는 7월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6계, 사건번호 2013-19254.

강영관 기자 kwan@



그린벨트 풀린 땅에 상가·공장 허용

국토부, 도시관리계획 개정안 시행

임대주택 의무화 비율 사실상 폐지

임대용지 미분양면 분양주택 전환

특수목적법인 출자 비율 확대키로

민간업체 사업 참여도 적극 유도

여의도 4.3배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린벨트에서 풀린 마을에 상가나 공장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주택을 35% 이상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규제가 사실상 사라지는 등 그린벨트 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집단취락의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해제지역 개발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의 핵심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가운데 기존 시기거나 사회인프라시설과 인접해있어 상업·공업기능 수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준주거·근린상업·준공업 용도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제지역에 판매시설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2014.5.31 기준)

구분	당초 지정 (70년대)	기해제 면적 ('00~'13.12)	현재 면적 ('13.12)	2020광역도시계획상 해제 가능 잔여 물량	*광역도시계획상 해제 가능 총량
계(㎡)	5,397.11	1,531.13	3,865.98		531,555(100%)
대도시권	4,294.02	428.039	3,865.98	237,923(44.7%)	239,003
수도권	1,566.80	151.477	1,415.32	98,454	135,499
서울	167.92	17.137	150.783	2,456	14,608
인천	96.8	7.826	88.974	2,065	9,096
경기	1,302.08	125.723	1,176.36	49,297	135,499
국책		35.164		44,636	79.8
부산권(부산, 경남)	597.09	178.331	418.759	23,002	80,538
대구권	536.5	20.362	516.138	20,954	40,899
광주권	554.73	36.311	518.419	23,208	59,519
대전권	441.1	12.231	428.869	27,694	39,925
울산권	283.6	13.816	269.784	24,243	38,059
창원권	314.2	15.511	298.689	20,368	33,612
중소도시권	1,103.09	1,103.09		출천, 청주, 전주, 진주, 여수, 통영, 제주('01~'03 전면해제)	

*자료: 국토교통부

나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되고 집단취락 정비사업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자연녹지와 주거지역 용도로만 개발이 허용돼 주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해제 취락 1656개(106㎡) 가운데 정비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곳은 171개(10%)에 불과하다"며 "이들 지역에 호텔이나 쇼 핑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돼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땅에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을 통해 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 용지가 6개월 넘게 팔리지 않으면 분양주택 용지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급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창원 대전 등의 주택사업

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간업체들의 개발 사업 참여를 장려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간이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비율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종전 2분의 1 미만에서 3분의 2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들 미착공 사업이 촉진되면 앞으로 4년 동안 총사업비 기준으로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여의도 면적 4배 이상의 해제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촉진돼 향후 4년 동안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특히 민간의 개발 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개발사업이 조기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4-01297호(2014.03.12 ~ 2014.12.31)
www.iprovest.com

SMART K

음껏 누리자!

이벤트 기간 2014.2.10 ~ 2014.12.31.

누림 하나

1. 매 2주간 10억원 이상 거래금액 상위200명 10만원 지급

2. 월간 누적 거래금액 상위 5명 50만원 상품권 지급

* 기존이벤트 참가자는 참여 불가
* 월간 누적 상위는 해당월초부터 말일날까지 집계하여 지급
* SMART K로 매매한 주식 거래금액만 인정
* 발표는 해당회사 종료 후 SMART K 및 홈페이지 공지 예정

누림 둘

은행연계 개설계좌 거래시 0.014%의 착한 주식거래 수수료

* 무기한 적용(정책 변경시 홈페이지 공지)

누림 셋

고객님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4.95%의 저렴한 신용용자 이자율

용자사용기간	30일 이내	31 ~ 60일	61 ~ 90일	91 ~ 180일	연체이자율
이자율	4.95%	5.0%	5.5%	9.0%	12%

* 무기한 적용(정책 변경시 홈페이지 공지)
* 신용 거래이율시 신용거래 약관 및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3 스마트앱어워드 대상 금융/증권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최고 권위의 우수 모바일 앱을 선정하는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주관 [제 3회 스마트앱어워드] 금융 증권서비스부문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최고 앱으로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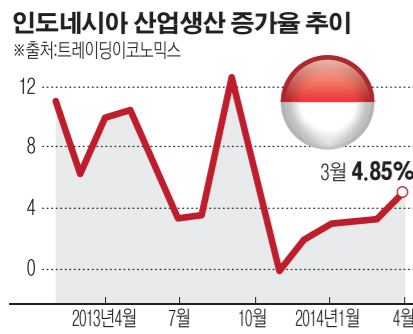
투자유의사항

- 당사는 본 서비스 및 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원금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연락처(휴대폰)불명 등의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당첨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사정으로 이벤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답보유지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담보증권을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정국불안 태국·베트남 떠나는 다국적 기업

인도네시아, 동남아 '제조업 허브' 뜬다

인건비 세계에서 가장 저렴 방대한 내수시장도 장점 GE·토요타·LG전자 등 수출기지로 적극 고려



인도네시아가 태국과 베트남을 제치고 아시아의 새로운 제조업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여 주목받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미국 CNBC가 보도했다.

싱가포르 화교은행(OCBC)의 웰렌 워란토 이코노미스트는 "인도네시아는 강한 경제성장세와 정치적 안정에 힘입어 동남아시아 제조업 1위에 오를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미 일부 다국적 기업은 인도네시아 진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제너럴일렉트릭(GE)은 인도네시아를 동남아 사업 허브로 키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토요타는 새 공장에 3억3700만 달러(약 3420억원)를 투입하는 등 인도네시아를 동남아 수출기지로 변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LG전자는 서저바에 에어컨 공장 설립을 계획이라고 CNBC는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생산은 동남아에서 태국이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올해 자동차 수출은 50억 달러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의 강점으로 저렴한 인건비와 거대한 내수시장, 안정적 정치 환경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다른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비교해 인도네시아의 시간당 임금은 가장 싼 편"이라며 "특히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임금이 매년 10-15%씩 오르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매력은 더욱 돋보인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대국으로 2억5000만명의 방대한 내수시장을 자랑한다. 연간 가처분 소득이 1만 달러를 넘는 가구가 지난 2008년의 600만명에서 2013년 1600만명으로 급증하는 등 중산층 부상으로 내수도 기대할 수 있다.

워란토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태국과 베트남의 정치적 불안이 외국 기업들을 인도네시아로 향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국은 지난 5월 쿠데타가 일어났으며 정국 혼란이 언제 진정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난 4월 제조업 생산은 정국 불안에 2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글로벌 공급망의 주축이었던 베트남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터진 반중국 시위로 신뢰에 금이 갔다. 근로자들이 과격 시위를 벌이면서 중국은 물론 대만과 우리나라, 일본의 공장이 피해를 봤다.

외국 기업들은 7월 인도네시아 대신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위탁생산업체인 중국 팍스콘은 대선이 끝난 후 10억 달러 규모 현지 공장 프로젝트 결정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리치머니

'60대 40' 투자 황금비율로 수익률과 리스크 동시관리

미국증시 다우와 S&P500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투자자들이 주식에 열광하는 시기일수록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비교적 높은 투자수익률을 올리려서도 증시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려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을 60%, 채권을 40% 비중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최근 미국 금융전문매체 마켓워치가 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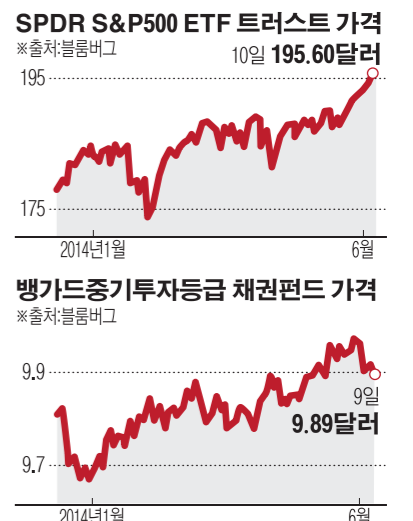
미국 자산운용협회(ICI)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4분의 1 이상이 은퇴에 대비한 자금 전부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투자자 대부분은 은퇴자금을 모으려면 주식에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100%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60대40 비율을 지키는 포트폴리오 사이에 수익률 격차는 거의 없다고 마켓워치는 지적했다.

실제로 아이비보스턴어소시에이츠의 분석에 따르면 1926년 이후 지금까지 전액을 S&P500지수와 연동된 인덱스펀드에 투자했다면 연평균 수익률이 10%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인덱스펀드에 60%를 투자하고 나머지를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미국 국채 중기물에 투입했을 경우 수익률은 연평균 8.7%로 둘 사이의 격차는 1.3%포인트에 불과했다.

특히 약세장에서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을만한 투자자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주식에 '올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투자방법이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채권에 일정 부분 분산투자하면 증시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 견디면서도



100% 주식 올인할 때보다 수익률 격차 年1.3P% 불과 분산투자로 약세장 대비를 수수로 저렴한 ETF 추천

주식펀드 부피가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마켓워치는 투자자들이 수수료 부담이 적은 분산투자 ETF를 추천했다. 미국 증시 S&P500지수 연동 ETF인 'SPDR S&P500 ETF 트러스트'가 0.09% 수수료로 매우 저렴하다고 마켓워치는 추천했다. 채권 ETF 중에는 지난 15년간 수익률이 S&P500지수를 웃돈 '뱅크OF아메리카 중기채권펀드'를 꼽았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버핏, 태양광에 또 15조원 투자... 코끼리 사냥 나설까

(우량기업 M&A)

"이익잉여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재투자할 것" M&A 방식으로 이어질 경우 업계 영향 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사진) 버크셔해셔웨이 회장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150억 달러(약 15조2000억원)를 추가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핏은 9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에디슨전기협회 연차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버핏은 "우리는 수십억 달러의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고 있으며 또 다른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핏은 캘리포니아의 태양광발전시설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사업에 1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프로젝트

가 마무리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이 가동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버핏의 이날 발언은 캘리포니아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에 15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버크셔가 최근 보험사업을 비롯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에너지와 운송 등 자본집약적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버핏은 유틸리티산업에 진입했던 15년 전에 "유틸리티는 부를 보전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버핏은 현재 버크셔해셔웨이에너지(BHE)를 통해 영국에서 파워그리드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오대호에서 텍사스까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다. 또 오레곤에서 네바다주까지 전기 유틸리티사업을 진행 중이다.

BHE의 자산은 700억 달러 정도로 전세계에서 840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BHE가 현재 가장 중이거나 계약 단계에 있는 전기 생산용량은 3만4000메가와트에 달한다. 이 중 4분의 1이 태양광을 비롯해 풍력 수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설비

에서 만들어진다.

시장은 버핏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그동안 꾸준히 밝혔던 '코끼리(우량기업) 사냥'을 통해 이뤄질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버핏이 150억 달러를 태양광산업의 인수·합병(M&A)에 쏟아부을 경우, 업계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 태양광시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미태양광에너지산업협회(SEIA)에 따르면 미국의 태양광패널 설치 규모는 지난 1분기에 1.33기가와트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이는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태양광패널산업의 성장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GTM리서치는 올해 총 설치 규모가 6.6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민대성 특파원 tsmin@

헤지펀드가 사랑한 기술주 구글 1위·MS 2위

3위 애플은 주가상승폭 가장 커 이베이·페이스북 각각 4·5위 차지

헤지펀드업계는 구글을 비롯해 애플 등 5개 대표 기술주를 집중 매입했다고 마켓워치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투자정보기관 인사이더몽키가 640여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헤지펀드업계는 주요 기술주 중에서 구글에 가장 많이 투자했다.

23%의 헤지펀드가 지난 3월말 기준 구글을 포트폴리오에 중장기적으로 포함시켰다고 인사이더몽키는 전했다.

이는 전 분기의 26%에 비해서는 비율이 하락한 것이나 이퀄캐피탈매니지먼트를 중심으로 구글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이퀄캐피탈은 79만7000주의 구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치는 8억8800만 달러(약 9000억원)에 달했다.

구글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가 2위를 차지했다. 131개의 헤지펀드가 MS에 투자해 MS의 순위는 전분기에서 1계단 상승했다.

애플은 3위에 올랐다. 129개 헤지펀드가 애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분기의 160개에서 감소한 것이다.

이베이와 페이스북이 나란히 4·5위를 차지했다.

헤지펀드 투자 상위 5개 종목 중 올들어 주가 상승폭이 가장 큰 종목은 18% 오른 애플이었다.

페이스북이 15%로 뒤를 이었고 MS(11%) 구글(0.6%) 이베이(-8%) 순이었다.

뉴욕=민대성 특파원 tsmin@



중 남부지방 홍수

10일(현지시간) 중국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물에 잠긴 쿤밍시 우자바 국제공항을 배경으로 한 시민이 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중국 기상당국은 앞으로 사흘간 중국 남부 지방에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다.

쿤밍/로이터연합뉴스

세계은행, 올해 글로벌 성장률 하향조정

기준 3.2%서 2.8%로 낮춰 美·中·러 등 회복세 둔화

세계은행(WB)이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고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등 주요국 경기 회복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조치다.

WB는 이날 올해 세계 경제가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1월 내놓

은 전망치(3.2%)에서 0.4%포인트를 낮춘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성장전망을 종전의 2.8%에서 2.1%로 낮췄으며 이른바 브릭스(BRICS)로 대표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도 낮췄다. 다만 WB는 이러한 성장 둔화가 일시적인 것일 것으로 전망했으며 종전에 제시했던 2015년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치(3.4%)는 그대로 유지했다.

WB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제는 올해 평탄치 않게

시작했으며 미국의 기록적 환파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험거운 시절을 보냈다"면서 "그러나 올 초만 이러한 약세에도 올해 성장세는 계속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은 재정 압력이 완화돼 내수와 고용시장이 개선돼 글로벌 성장에 힘을 보탬 것으로 전망됐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성장세를 가속화하는 데 실패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불안이 이들 경제의 하점을 찍을 것이라 우려에서다. WB는 이들 신흥국이 재정 적자를 줄이고 금리를 올려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글로벌 리포트

구글, 위성기업 스카이박스 인수

구글이 위성기업 스카이박스(미정액 5억 달러(약 5000억원))에 인수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현금으로 진행되며 구글은 스카이박스를 인수해 매핑서비스를 강화하고 인터넷접속사업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스카이박스의 주요 사업은 위성을 통한 영상 캡처 서비스이며 1m 이내의 세부 화면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구글은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스카이박스의 위성을 통해 구글 맵스가 더욱 정확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스카이박스의 인력과 기술을 이용해 인터넷접속을 개선하고 재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애플 역외탈세 의혹 조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아일랜드를 조세피난처로 활용해 역외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식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해 10월부터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예비조사를 벌여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호아진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11일 정식조사 착수 사실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애플과 아일랜드가 중심에 놓여있으나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와 애플 외 다국적 기업들도 EU의 조사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애플은 유럽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아일랜드 자회사 앞으로 돌린 뒤 다시 페이퍼 컴퍼니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난 4년간 440억 달러(약 44조748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라크 북부, 무장단체에 점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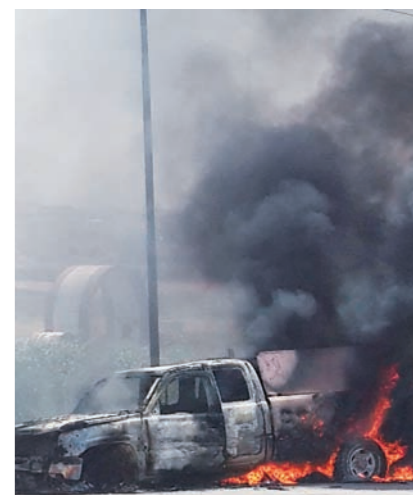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 '이라크·레바논·이슬람국가(ISIL)'가 이라크 북부에서 모술을 포함해 니네바주의 상당 부분을 점령했다고 1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올 들어 정부는 서부 안바르주의 팔루자에 이어 모술까지 이슬람 무장단체에 빼앗기는 등 통제력을 잃고 있다.

누리 알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의회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사태로 약 15만명이 피난길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BBC는 전했다.

미국 국무부의 젠 사키 대변인은 "이라크 제2의 도시인 모술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ISIL은 이라크뿐만 아니라 중동 전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침략에 맞서기 위한 강력하고 협력적인 대응을 미국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술 남동쪽 키르쿠크에서도 이라크 정부군과 ISIL 사이에서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10일(현지시간) 이라크 북부 니네바주의 모술에서 이라크의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와 정부군의 교전으로 이라크 보안군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다.

모술/로이터연합뉴스

박원순·조희연 '복지 공조'... 경제는?

박 시장 어제 기자간담회... 시정 운영 등 긴밀한 협력 전망 한정된 예산 복지 치중엔 "개발·일자리 등 뒷전 밀릴까" 우려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새로 서울시교육감에 오르게 된 조희연 당선자가 자칫 복지 면에서 공조하면서 때문에 경제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시장은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당선자와 공조를 시사했다. 이날 박 시장은 조 당선자에 대해 "많은 점에서 함께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는 교육감이 왔다"면서 "교육에 관한 부분 함께 협력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에는 학교 안에 들어가면 교육감, 나

가면 서울시가 책임지는 형식이었다"라고 비판하며 "문용린 교육감이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는 기존 보수성향 문 교육감과 손발이 맞지 않았던 점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것과 동시에 진보성향이자 1994년 참여연대 창립을 주도하며 인연을 맺은 조 당선자를 향한 신뢰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박 시장과 조 당선자는 향후 서울 시장 운영에 관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조 당선자는 전환경우상급기 지속적 확대, 혁신학교 확대 등 교육 복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10일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열린 '6월 민주항쟁 27주년 기념 국민대회'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뉴스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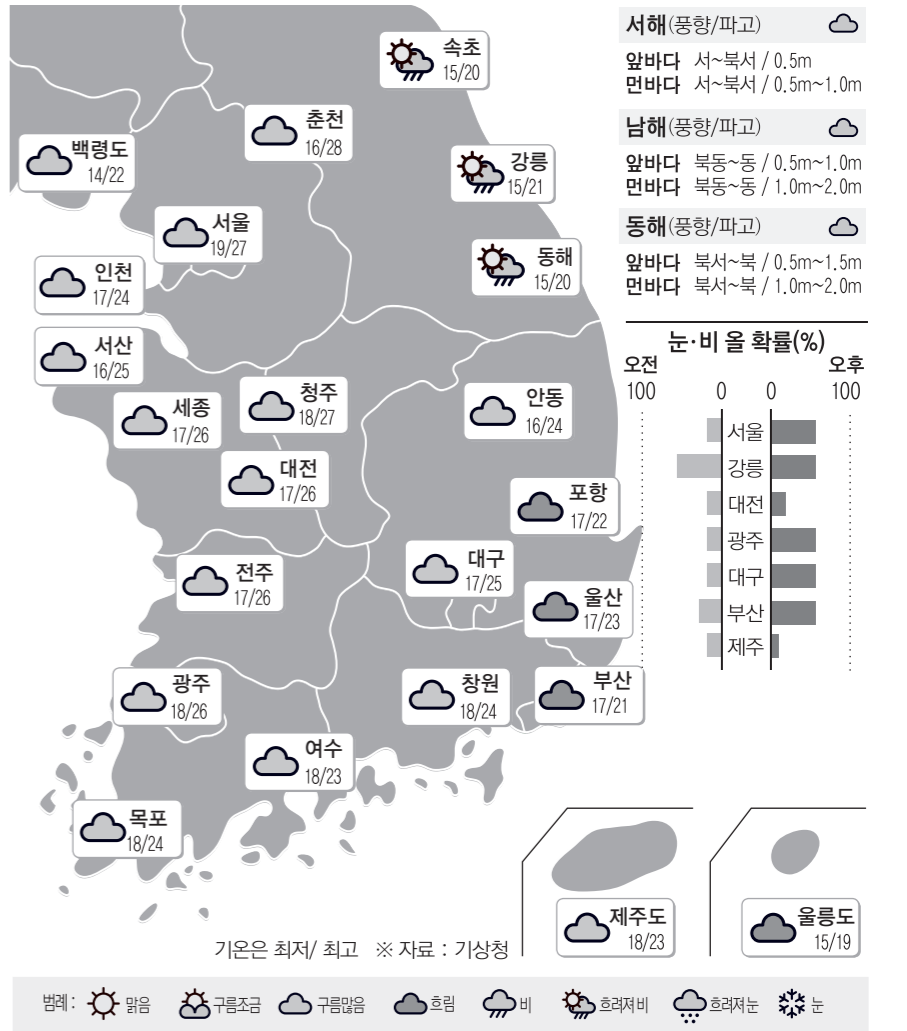
지를 강조했다. 박 시장도 복지를 3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다. 한정된 예산에서 만만치 않은 부분이 복지에 치중되면 자연스레 다른 정책은 멀어지게 된다. 서울시 개발, 일자리 창출, 경기 활성화 등 경제성장과 관련된 정책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의식한 듯 박 시장은 "공약의 내용으로 따지면 가장 많은 것은 경제 분야"라며 "워낙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6·4 지방선거 전부터 박 시장은 '서울플랜 2030'을 통해 창조경제를 강조했다. 정보기술(IT) 융합 집적지 G밸리(구로·금천), 디지털미디어 산업 중심지 삼암DMC, 디자인의 중심지 동대문창조경제클러스터, 문화·콘텐츠 집적지 신홍합(신촌·홍대·합정)밸리, 개포동 모바일융합클러스터를 5대 창조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박 시장의 무게중심이 복지에 쏠려 있는 만큼 경제 쪽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내일의 날씨 6월 12일 ☀ 해돋이 05:10 해질 19:54 🌙 달출 18:50 달짐 04:18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중국 상해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로 인해 전국이 구름때리고 일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낮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5~19도, 낮 최고기온은 20~28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5m로 일겠다.



LG화학·하우시스 세무조사 법인세 탈루 혐의 등 포착

국세청이 LG화학과 LG하우시스 등 LG그룹 핵심 계열사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과 요원 30~40명씩을 LG화학과 LG하우시스 여의도 본사에 각각 투입, 자금입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LG화학과 LG하우시스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 등을 포착, 전격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LG 측 관계자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

이번엔 금피아...금감원 간부 보험사 취업 논란

취업제한 대상 포함 안되는 1년미만 신설법인 부사장으로 는 회사에 취업할 경우 퇴직 후 2년간은 공직자윤리법 심사를 거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말 공직자윤리법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대상기업'을 관보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말 1차례 관보에 대상 기업을 공개하다 보니 관보에 게재되지 않거나 A씨가 취업한 B손보의 경우처럼 관보 게재 이후 설립된 신설법인은 취업제한 대상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하점이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가 이달 중 공직자윤리법 심사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

하수처리장 증설 입찰담합 검찰 한화건설 법인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부규 부장검사)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화건설 법인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담합을 주도한 한화건설 영업팀장 유모(51)씨를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들러리를 서준 코오롱건설(현 코오롱글로벌)의 전 본부장 이모(63)씨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지난 2009년 2월 인천 중구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코오롱건설과 짜고 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입찰해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한화건설은 코오롱건설에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 뒤 입찰할 금액을 정해줬다. 이후 한화건설은 예정가격 대비 94.95%를 제시해 공사를 따냈다. 코오롱건설은 이른바 'B설계'로 불리는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제출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됐다. 김민수 기자 tearand7@

'퐁빵' 상표출연 거절 적법 법원 "제조·판매 독점 부당"

퐁 모양으로 유명한 이른바 '퐁빵' 입체상표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퐁빵 입체상표를 출원했다가 거절당한 김모 씨가 "결정이 부당하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말 기준 전국에 40여개의 지점을 두고 퐁빵을 제조·판매해온 김씨는 2011년 9월 30일 퐁빵 입체상표를 출원했지만 거절당하고 특허심판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만일 붐어빵이 아닌 상표로 등록되지 않았음을 노려 특정인이 상표권을 취득한다면 붐어빵을 제조·판매하려는 사람들의 시장 진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tearand7@



검찰과 경찰이 11일 오전 경기 안성시 기독교복음침례회 총본산인 금수원에 진입, 수색 도중 한 신도를 긴급체포하고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인천 현역의원 '해운비리' 연루 수사

검, 관련 건설업체 압수수색
이인수 前 이사장 출석 통보
횡령 자금 정관계 로비 확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이 최근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A씨가 해운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검찰은 A의원

직을 두루 거친 뒤 2010년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에 임명됐다. 현재는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그는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민간 협회 등에 포진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해운비리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전 이사장을 비롯한 해운조합 관계자들에 대해 출구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해운조합 전·현직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 전 이사장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출석하면 횡령 자금의 용처와 정관계 로비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수 기자 tearand7@

동양사태 3200여명 집단소송 "승소땀 피해자 모두에게 배상"

동양증권·현재현 회장 등 상대
상청구소송이다. 이는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는데, 협의회 측은 이날 소 제기와 함께 허가 신청서도 같이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원고로 나선 총인원은 3205명, 총 피해금액은 1155억원이다. 상품별로 피해자를 살펴보면 (주)동양이 1163명, 동양인터내셔널 1117명, 동양레저 573명, 동양시멘트 221명, tv석세스 131명이다. 협의회 측은 이번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해자들 모두가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자 전부의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는 "이번 증권관련집단소송 제기하는 투쟁을 보다 한걸음 전진시킨 것"이라며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완전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선례를 남기겠다"고 말했다. 강인호 기자 kangih@

리엔케이 청담본점 판매 경력직 모집

여성직장 재탐색!
피부미용 관련 자격증 있어야
인력공급업체 케이텍앤퍼워(주)가 화장품 브랜드 리엔케이의 청담본점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일할 매장직원을 채용한다. 주요 업무는 매장 내 고객 응대 및 제품 설명으로 화장품 관련 경력직, 백화점·마트 판촉 및 행사 경험자 등을 우대한다. 지원자는 반드시 피부미용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월 급여는 200만원 이상이며 면접 후 조정 가능하다. 복리후생으로 4대보험과 퇴직금, 중식, 연차휴가 제공된다. 이메일(dukbin@lycos.co.kr)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면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2-3470-9340)로 문의하면 된다. 유혜은 기자 euna@

최효찬의 명문가 자녀교육 따라잡기 김득신 ①

59살에 과거 합격, 늦고 짧은 벼슬길

실학의 대가 연암 박지원(1737-1805)은 나이 50세에 우의정인 유언호의 추천으로 선공감 감역이라는 종9품의 미관말직을 받고 벼슬길에 나아갔다. 요즘의 국토해양부 9급 공무원에 임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연암의 '굴욕'이 아닐 수 없다. 그는 64세에 이르러 양양부사에 올랐는데 15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종3품에 오를 수 있었다. 또한 학자이자 초서로 유명한 미수 허목(1595~1682)도 56세 때 처음으로 최하 말직인 참봉(종9품)의 벼슬을 받았고 80세에 이르러 참판(종2품)에 오를 수 있었다. 명재 윤증(1629-1724)은 조선시대 선비정신의 상징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그는 36세 때 처음 종9품인 내시교관에, 53세에 성균관 사예(정사품)에 임용되었지만 관직을 받지 않았고 68세에 이르러 공조판서를 내렸는데 그레도 나아가지 않았다.



송현경경제연구소장

여기서 보듯이 조선시대에는 대학자여도 종9품에서 관직을 시작하는 게 관행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과거시험에 합격해도 최말단인 종9품에 임용되었다. 요즘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5급 공무원이 되고 경찰대를 나오면 곧바로 파출소장에 임명하는 것도 난센스다. 인제가 많지 않았던 개발

도상국 시절에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요즘처럼 인제가 넘쳐나고 전문가나 경력자가 홍수인 시대에는 5급 공무원 시험이나 경찰대의 파출소장 임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교수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관행처럼 돼 있지만 이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교수가 아니어도 인재들은 널려 있다.



백곡 김득신(1604-1684)은 무려 59살에 과거시험에 합격했다. 과거시험은 요즘 사법고사나 행정고시 공부하는 것보다 더 경쟁이 치열했다. 3년에 한 번씩 보는데 단 70명 정도밖에 뽑지 않았다. 대부분 30대까지 과거 시험에 응시하다 계속 떨어지면 포기를 하는데 김득신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과거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주변 사람들로 부터 과거시험을 때려치우라는 비아냥거림과 조롱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늦게 나간 벼슬길은 순탄치 못했다. 첫 관직으로 성균관 학유(요즘 9급 공무원)에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여러 벼슬을 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동료로부터 '왕따'를 당하기 일쑤였다. 흥천현감과 정선군수에 뽑혔지만 신하들이 그를 적임자가 아니라고 저지하는 바람에 결국 부임하지 못했다. 결국 김득신은 7년 동안 벼슬을 하다가 68살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다. 오기와 끈기로 예수를 앞두고 과거시험에 합격한 보람도 없이 초라한 귀향이었다. 충북 괴산에 가면 '취묵당'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김득신이 책을 읽고 시를 지으면서 말년을 보낸 곳이다. 높은 벼슬은 하지 못했지만 시를 416수나 남겼다. 신홍·이정구·장유와 함께 조선시대 한문사대가의 한 사람인 이시으로부터 "그대의 시문이 당금의 제일"이라는 평을 들었음으로써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시인으로는 역사에 이름을 남겼지만 고위 공무원에는 오르지 못했던 것이다.(계속)

자녀경영연구소장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송현경경제연구소장

최근 한국에서 시티은행의 대대적인 점포 감축과 감원, HSBC은행의 소매금융업무 철수, 몇몇 국제 투자은행들의 영업 축소 등 외국계 금융기관은 사업을 크게 줄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로 인해 외국계 금융기관이 밀려나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반가워할 수 없다. 오히려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금융계에서 외면받고 있는 표시일 수도 있고, 실무부문에 비해 크게 낙후된 한국 금융이 더 뒤떨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참여정부 때 서울을 동북아 금융 허브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당시 자산운용업 전락 업종으로 삼고 카이스트에 금융전문대학원을 만드는 등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성과가 없었고 현재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서울이 동북아의 금융 허브, 즉 동북아의 금융 중심지가 된다는 것은 서울에 잘 작동하는 국제금융시장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 국제금융시장이 잘 작동하려면 그 지역에 돈이 충분히 있거나 세계 여러 곳에서 돈이 모아야 하고,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모이거나 투자 대상이 많아야 한다. 이런 지역이나 국가가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보유자산이 안

한국이 국제금융허브 될 수 있을까

전하게 지켜지고, 금융거래가 명료하고 거래비용도 저렴하다. 또한 금융인이나 투자자의 의사소통이 잘되고 이들의 거주나 근무가 편해야 한다.

현재 세계를 주도하는 국제금융 중심지는 뉴욕과 런던이다. 뉴욕은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정치·경제력과 크고 효율적인 자국 금융시장을 바탕으로 형성된 세계 최대의 국제금융 시장이다. 런던은 탄탄한 금융 인프라에 외국 통화의 거래에 대한 규제 철폐를 통해 외국 자금·금융기관을 유치했고, 이러한 자금을 외국인의 수요자에게 싸고 편하게 제공하는 역외 국제금융시장의 대표다. 뉴욕과 런던 외에도 특정 지역·금융업에 특화된 국제금융시장이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유럽 대륙에서는 프랑크푸르트가 해당지역의 대표적 국제금융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 자산가를 위한 금융을 주도하는 룩셈부르크와 스위스,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인 칼라뭇푸르, 파생상품시장을 선도하는 시카고 등도 의미 있는 국제금융 중심지다.

이들 외에 미래의 국제금융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상하이이다. 상하이는 중국의 경제력과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뉴욕과 같이 국내 금융시장을 국제화하고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았지만 언젠가 상하이가 뉴욕과 견줄 수 있는 국제금융 중심지가 될지도 모른다. 서울도 앞으로 잘 작동하는 국제금융시장을 가질 수 있다면 국민경제에 좋은 점이 많다. 관점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물경제가 더 원활히 돌아갈 수 있고, 도시의 위상도 높아진다. 그러나 일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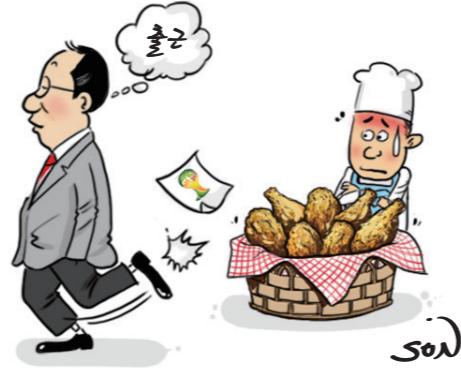
오랫동안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지위를 유지했음에도 도쿄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한 도시가 국제금융 중심지가 되는 것은 나라를 산업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서울은 숙련된 인력, 잘 갖춰진 교통과 통신 등의 인프라, 활발한 실물경제 기반 등의 강점이 있지만, 남북 대치라는 지정학적 위험과 함께 외국인의 거주와 교육 등이 불편하다는 약점도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점은 금융에 대한 규제가 불투명해 금융거래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은 금융규제의 많은 부분이 법과 원칙, 국제적 모범 관행보다는 관료들의 자의적 해석과 지시에 의해 이뤄진다. 외국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규제가 많고 강한 것보다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사업하기 어렵다. 이것이 외국계 금융기관이 한국을 동아시아 지역의 허브로도 선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서울을 국제금융 중심지로 만드는 것은 5년이라는 한 정부의 임기 내에 완성할 수 있는 쉬운 과제가 아니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가 1990년대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노력, 이제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도전해 보자. 국제금융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금융규제의 불투명성 등의 걸림돌을 조금씩 제거해 보자. 특히 관료에 의한 자의적 금융규제를 줄이는 일은 최근 문제가 되는 관피아 척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가시적 성과는 몇 개의 정부를 거친, 10~20년 후나 조금씩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길게 보고 씨앗을 뿌려야 나라가 발전한다.

온라인 와글와글 월드컵 경기 대부분 출근시간대, '치맥' 특수 없겠네

○...이번 브라질 월드컵 경기의 대부분이 출근 시간 전후에 이뤄져 치킨과 맥주 매출 증가를 노리던 전업계가 울상이라는 소식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치킨업계 입장에서 이번 월드컵은 도움이 안 될 듯" "새벽 5시에 치맥하고 출근했다 가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 "축구 팬들도 완전 속상할 듯" "시험 시기와도 맞아떨어지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한 네티즌은 "이번 월드컵은 시간 차이 때문에 치맥과 길거리 응원 이 거의 없을 것 같아 흥미가 반의 반감 된다"고 해 시선을 끌었다.

○...한 직장 장애인 이 서울 시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장애인이 할인을 받기 위해 이를 증명하는데 애를 먹었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고, 낳고 싶은 사람이 있겠냐. 도와달라는 건 아니지만, 있는 것만이라도 누릴 수 있길 바란다" "맞다. 현장 할인만 해주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결제를 한다. 장애인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영화관에서는 할인해준다는 문구도 없으며 매표원이 묻지도 않는다" "가짜 장애인 있어서 진짜 장애인이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아 아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우람 기자 hura@

오늘의 **배우** www.baekn.com

군도:민란의 시대' 백정 역 맡은 하정우



배극남닷컴은 10일 열린 영화 '군도:민란의 시대'(제작 영화사 월광, 배급 쇼박스)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주연 하정우를 만났다. 전작 '벌거벗은 천장:나쁜놈들 전성시대' '베를린' '더 테러 라이브'를 통해 흥행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하정우는 '군도:민란의 시대'에서 최하층 계급에 속한 천한 백정 돌무치로 분한다. 소, 돼지를 잡아 근근이 살아가는 식백정 돌무치는 의적단인 지리산 추살에 합류한 후 도살용 칼이 아닌 쌍칼을 휘두른다.

극중 백정을 위해 삭발한 하정우는 "이제 머리 많이 길었다"며 "생각보다 힘들더라. 매일 아침 촬영장 가서 면도하는 게 보통일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전기 면도기를 사용했는데 수동 면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았다"고 밝혔다.

하정우는 또 "윤종빈 감독과 4번째 작품이다"며 "전분을 떠나 윤종빈 감독의 작품을 보면 재미있다는 생각이 든다. 윤 감독이 준비하는 작품에 늘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다. '군도'는 이야기가 명쾌하고 짜릿했다. 그 안에서 캐릭터의 성장도 있기 때문에 배우로서 탐낼 만한 역할이었다"고 말했다. 하정우는 또한 말타는 연기에 대해 트라우마를 보이며 "예전에 사극을 찍을 때 말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 다시는 말을 안 타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나리오에 말 타는 장면이 있어 무척 공포스러웠다. 감독에게 '그냥 뛰어가면 안 되냐고 말했다'며 촬영의 고충을 털어냈다.

하정우는 상대역 강동원에 대한 평도 잊지 않았다. 그는 "'강동원은 강동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 생활하면서 처음 강동원의 이미지에 대해 생각했던 것 이상의 매력을 느꼈다. 무엇보다 굉장히 마초적이고 어찌보면 여기서 가장 상남자의 성향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화 '군도:민란의 시대'는 7월 23일 개봉한다. 최두선 기자 sun@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Hot Click 베스트5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 1 박원순-안철수 지지율 살펴보니...심상치 않네
2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극우' 논란에 '응성응성'
3 파리 '사랑의 자물쇠' 무개에 다리 난간 붕괴
4 고려대 대자보 '청와대로 향합니다' 결국 60여명 연행
5 '두 엄마 체포작전 임박' 김수원 기자회견

SPRING 아이타올(주) www.itowellmall.co.kr ISO 9001 인증업체 대표번호 02) 755-1091

正論

국가경영의 생태계적 처방

이번 6·4 지방선거 결과를 가장 눈여겨봐야 할 지역은 세종시인 것 같다. 세대간이나 지역대결보다는 지역특성 상 젊은 공무원들이나 그들 가족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김기찬

가톨릭대 대학발전추진단장
세계중소기업협회 차기회장

투표 결과는 세종시 거주 공무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으로 젊은 공무원들이나 가족이 직업적 자부심에 큰 상처를 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정부와 공무원의 디커플링(decoupling) 조짐은 경영 생태계의 중요한 변화를 시사한다. 해법을 경영의 구류, 피터 드러커에게서 찾아보자. 그는 경영을 생태계로 인식하고 스스로를 사회생태학자라고 불렀다. 그는 경영을 생명체를 보듯이 전체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생태학이란 생명체를 가진 대상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학문이다. 생태계는 자기평형적 특성에 의해 절묘한 균형을 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국가생태계 경영의 대실패 사례가 있다. 중국 마오쩌둥의 1958년 쌀 생산성 대약진운동이다. 그는 익은 벼를 먹어 치우는 참새를 보고 인민의 적으로 규정하고 소탕작전을 통해 그해 2억마리 이상 잡아들였다. 그러나 이듬해 매뚜기가 장렬히 살생사기 대실패를 하고 4000만여명이 굶어죽고 말았다. 이후 소련에서 20만 마리의 참새를 공수해왔다. 이는 생태계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식 국가개조의 종합대책을 생각해본다면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균형 찾기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

가경영의 생태계적 접근은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제임스 무어는 '경쟁의 종말'이라는 저서를 통해 생태계에서는 경쟁보다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생태계란 유기체 생물이 살아가는 세계를 말하며, 생태계 속에서 유기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가치사슬), 환경과도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태계적 처방의 핵심은 관계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국가경영에서 젊은 공무원들이 국가생태계의 핵심자(keystone) 역할을 담당했다. 이런 점에서 흔들리는 공무원들의 태도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자는 생태계의 핵심축이었던 공무원들의 사기 침체를 걱정하는 것이다. 이들의 마음이 떠나고 나면 제도만 남는다. 제도에 사람이 빠지면 관료화가 된다. 이것

이 제도경영의 한계이고 제도의 역설이다. 국가개조란 제도 개선과 함께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국가리더십이다.

앞으로 국가개조의 종합대책에서 퇴직공무원의 과도한 전관예우에 대한 견제 이상으로 젊은 공무원들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들이 국가미래에 대한 철학을 가지면 이들만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대체할 만한 유능한 인력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를 강조하지만 경영전부를 대체하기는 어렵다. 미국 뉴욕의 한 병원에서 수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발진제를 도입한 후 한달 만에 수술 사망률이 제(0)로 떨어졌다. 이것은 역시 성과였다. 의사들이 어려운 수술을 기피해 환자들이 수술도 못 받고 죽어 나갔던 것이다. 결국 제도는 사람의 열정과 철학으로 운영될 때 지속가능한 성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을 사람 중심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생태계적 처방이 필요하다. 처방이라는 이름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태계 경영이란 살아있는 적을 만들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들 간의 협력적 상호작용과 균형 찾기를 통해 진화시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사회적 적폐와 퇴직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점검하고 해결해 가야 함도 물론이다. 사람의 마음이 닫히면 제도만 남는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가경영은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진행될 국가개조가 특정 개체와의 투쟁이 아니라 균형 잡힌 생태계적 처방이기를 기대해본다.

차상업의 시선

홍명보號에 필요한 건 질타보다 응원



4년에 한 번 전 세계를 축구의 열기로 들썩이게 하는 FIFA 월드컵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3일 오전(이하 한국시간)에 열리는 개최국 브라질과 크로아티아 간의 경기로 2014 브라질 월드컵의 막이 오른다.

H조에 속한 한국은 18일 오전 러시아를 상대로 조별 라운드 첫 경기를 치른다. 정확히 일주일 후 이맘 때쯤이면 한국의 16강 진출 여부를 가늠하게 될 러시아전 결과도 나오는 셈이다.

대표팀은 10일 가나를 상대로 전지 훈련지인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평가전을 치렀다. 그리고 결과는 0-4 대패였다.

0-4라는 결과가 말해주듯 경기 내용도 결코 만족스럽지 않았다. 골공 강조해왔던 수비 조직력은 가나전에서도 온데간데 없었다. "평가전은 단지 평가전일 뿐"이라는 말도 이 정도의 점수차와 경기 내용을 감안하면 전혀 위트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러시아의 한 스포츠 전문매체는 "한국이 가나에 0-4로 대패했다. 연막 작전일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며 조롱 섞인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튀니지와와 출정식을 겸한 평가전에서도 0-1로 패했던 대표팀이 가나와의 평가전에서도 연달아 패하자 팬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온 듯 하다. 가나전 패배 이후 축구 팬들은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월드컵이 한 달 정도라도 남은 상황이라면 대패에서도 분명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이를 수정, 보완할 시간이 있다. 하지만 첫 경기를 일주일 남기고 치른 평가전에서 이처럼 대패한 것은 분명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침체된 팀 사기가 본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가나전 대패에 대해

속해서 질타와 비난을 가하는 것은 오히려 대표팀의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더 이상의 비난은 대표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수들 역시 월드컵에서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일부러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선수는 없다. 첫 경기까지 단일 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질타보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홍명보 감독은 물론 대표팀 선수들의 저조한 경기력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다.

무조건적인 비난이 아닌 건전한 비판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할 선수들도 대표팀에는 없다. 하지만 건전한 비판도 현 상황에서는 하무려 족하다. 앞으로 보완할 점을 철저히 보완해 러시아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홍 감독의 말을 믿고 응원해주는 것이 현 상황에서 팬들이 대표팀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다.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서도 대표팀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경기력을 보인다면 월드컵 이후에 비판해도 시간은 충분하다.

이제는 질타할 힘을 아껴 대표팀을 응원하고, 만족스러운 내용과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 그때가 비로소 예정 어린 비판이 필요한 시기다.

온라인뉴스부 차장 sycha@

객석

아집과 고집



정재열
STX 석유사업부 대리

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집인지 혹은 나의 삶에 대한 고집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은 감춰야 하고 타협을 이루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고, 다른 이들과의 조화와 협력을 위해 양보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내 삶의 가치관과 대립하게 된다면, 그때 나의 선택은 어떠한 방향으로 자리잡아야 하는 것일까?

삼십대 초반의 나에게 아집과 고집은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가치이고, 그러한 가치의 대립 중에서 보다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은 숙명이다.

이러한 고민이 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역시 조금은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보고자 한다. 어쩌면 순순히 버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고민하고 결정한 나의 선택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며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이 시대 젊은이들의 오늘 하루도 더욱 현명한 선택과 소중한 경험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아집과 고집은 단편 일률적인 잣대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누군가의 고집이 아집이 되고, 아집은 누군가의 성공의 뒷면에서 고집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재해석되기 마련이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조직이라는 곳

기자의 눈

차석용 부회장의 씩씩한 행보



송영록
자본시장부/syr@

해명을 들었지만 뭔가 씩씩하다.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의 최근 주시 매각 얘기다.

차석용 부회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과 3일까지 세 번에 걸쳐, 본인이 소유했던 LG생활건강 보통주 2만2000주 전부를 장내 매도했다. 앞서 차 부회장은 2005년 LG생활건강의 최고경영자(CEO)에 임명된 후 2013년 초까지 보통주 주식 3만9888주를 매입했다.

하지만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이 주식 전량을 210억원에 팔았다. 시세 차익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차 부회장의 퇴사 수순 혹은 기업의 향후 주가 전망이 밝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5일 관련 공시가 나오자 LG생활건강의 주가는 12% 급락하며 하

루 만에 시가총액 1조원이 증발했다. 36분기 연속 흑자를 내 '경영의 귀재'로 불리는 차 부회장의 행보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더구나 그의 해명 발언도 마뜩잖다.

차 부회장은 주시 매각대금 대부분을 모교인 코넬대 등에 장학금으로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이 돈을 미국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본인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한다지만, 대가업 최고경영자는 공인이다.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다.

게다가 그는 "연내에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 놀랄 큰 발표가 두 건 정도 나올 예정인데 그때 팔면 더 문제가 될 것 같고 민 끝에 지금 매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주식시장을 교란시킬 수도 있는 얘기가.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게 세상일이다. 두 건의 초대형 호재를 받고 투자한 투자자들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

올해가 끝나기까지 6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본인이 끌어내린 주가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깜짝 발표가 댈지 지켜볼 일이다.

이투데이

社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總編輯, 社長, 副社長, etc.

아픈 몸은 깨달음을 위한 좋은 도구
아프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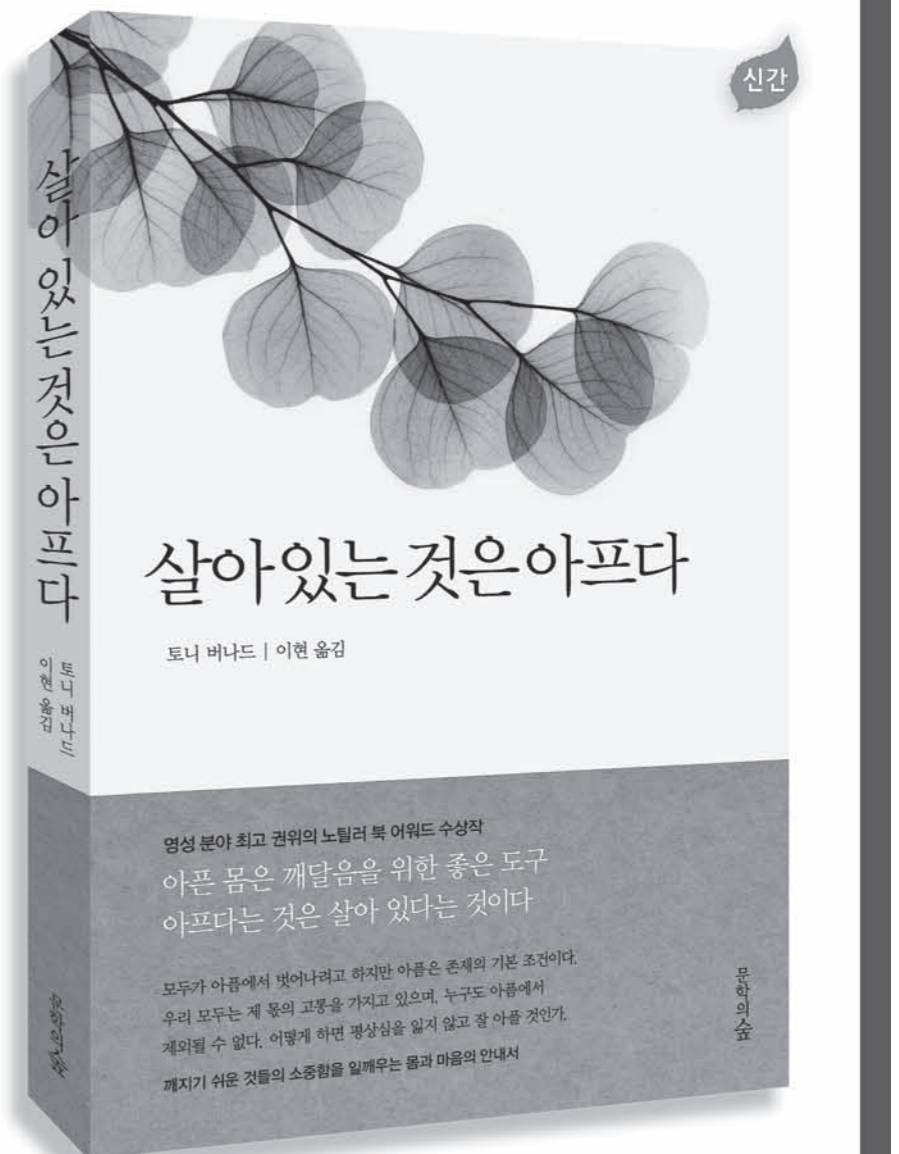
'아픔과 함께 잘 살아가는 법' 영성 분야 최고 권위의 노틸러 북 어워드 수상작

인생의 정점에서 갑자기 불차방에 걸려 쓰러진 법대 교수의 감동적인 실화. 그녀는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상실은 진정한 배움의 시작이 되었다. 영혼에 대해 용기 있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는 똑같은 평정심을 가지고 인생의 춤과 함께 진정으로 존재하는 법에 대한 안내서

깨지기 쉬운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몸과 마음의 안내서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토니 버나드 | 이현 옮김 | 236쪽 | 13,500원



“3중 정신으로 꿈 향해 과감히 도전”

〈中·重衆〉



중국삼성 장원기 사장이 10일 중국 베이징 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삼성 '열정락(樂)'에서 한·중 청년들에게 취업과 진로 고민에 자침이 될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

장원기 중국삼성 사장, 베이징에서 '열정락서' 강연 청년들에 '나만의 스토리·창조적 전문성·소통' 강조

중국삼성 장원기 사장이 한·중 청년들에게 꿈을 향한 과감한 도전을 당부했다. 꿈의 중심에 나를 세우고, 실력에 무게를 더하며, 주변과 함께하라는 '3중(中·重·衆)'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성공의 결실을 맺으라는 것이다.

10일 중국 베이징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삼성 '열정락(樂)'에서 장 사장은 한·중 청년들에게 가운데 '中', 무게를 '重', 무리 '衆'을 뜻하는 '3중'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우선 그는 "내 꿈의 중심에 나를 세우고"라고 강조했다. 부러워하는 사람의 스토리를 따라가려 하지 말고, 내가 주인

공이 되는 '나만의 스토리'를 써나가라는 것이다. 장 사장은 "중국은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무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가능성이 크다"며 "이 자리의 학생들은 이미 함께 중국이라는 배를 탄 사람들로, 여러분 삶의 중심에 '나와 중국'이라는 나침반을 놓고 미래의 자신의 삶의 방향을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청년들에게 자신의 실력에 무게를 더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의 역량에 새로운 전문성이 있는가를 항상 고민해야 한다"며 "여러분의 시대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퍼스트 무버 시대로, 창조적인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장 사장은 '혼자 하지 말고 함께하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지금은 세상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변화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개인의 힘보다 집단의 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협업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소통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내 분야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과 섭렵도 필요하고, 오픈 마인드로 협업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통과 개방을 통해 모두가 '윈-윈'하는 경쟁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 사장은 "여러분은 전공에 기반한 꿈꾸는 나라의 전문직으로 새로운 퍼스트 무버를 꿈꾸고 있다"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나만의 '마인드 맵'을 하나씩 그려 간직하고, 끊임 없는 도전과 실패를 통해 꿈을 이루라"고 주문했다.

김지영 기자 gutty@

소설가 신경숙, 美서 '리브콜' '어디선가 나를...' 영어판 출간

'엄마를 부탁해' 이어 두번째

소설가 신경숙(사진)씨의 장편소설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I'll be right there) 영어판이 나왔다.

이 책의 해외 출간을 기획하고 있는 KL 매니지먼트 측은 지난 3일 미국 현지에서 영어판이 출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엄마를 부탁해'(Please Look After Mom) 영어판에 이어 두 번째 신작의 영영판이다. 번역은 김소라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출간사는 '아더 프레스(The Other Press)'로 전해졌다.

이 작품은 누구에게나 가장 아깝게 빛나는 시간이자 가슴 시린 아픔을 겪는 시기의 정춘을 다룬 성장소설이자 연애소설이다. 헤어진 연인에게서 8년 만에 걸려온 전화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캠퍼스에서



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지나간 사랑과 아픔의 시간을 더듬는다.

이 소설은 지난 2010년 출간된 뒤 국내에서 40만부 넘는 판매부수를 보였으며 현재까지 8개 나라에서 번역 출간되고 13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박태진 기자 tipippo@

이외수, 축구대표팀 '세월호' 비유 논란

"폐부 찌르는 금기어... 반성합니다"

작가 이외수(사진)가 온라인상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을 '세월호'에 비유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외수는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축구 4대 0으로 가나에 점몰, 축구의 세월호를 지켜보는 듯한 경이였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접한 일부 네티즌들이 축구경기에 세월호를 비유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지적하자 이외수는 '속수무책'으로 침몰했다는 뜻인데 난독증 환자들이 참 많군요. 게다가 반 이상이 관계자들이라고 반박했다.

관계관은 본래 부화 직전의 계란을 삶은 것을 뜻한다. 트위터 상에서는 프로필 사진을 등록하지 않으면 알 모양의 이미지가 프로필에 보이는 데서 유래해 '주인이 없

는 계정'이나 '알바 계정'을 비하해 부르는 어로 통한다.

비난이 쇠도하자 이외수는 '속수무책'으로 침몰했다는 뜻으로 쓴 것입니다만 비유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아 원문 지웁니다라며 축구대표팀과 세월호 참사를 비교한 원문을 삭제했다. 그는 이어 '반성합니다. 세월호는 어쨌든 우리들의 폐부를 찌르는 금기어였습니다. 반성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사과했다.

한편 축구 대표팀은 10일(한국시간) 국내외 평가전에서 0-4로 대패했다.

박태진 기자 tipippo@

힐러리 "남편 訪北 당시 웃지말라 했다"

"2009년 '억류 여자 석방' 외교 감안해 무표정 행동지침" 회고록서 밝혀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2009년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웃지말라"는 행동 지침을 내린 사실이 공개됐다.

클린턴 전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출간된 회고록 '힘든 선택들(Hard Choices)'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 당시의 일화들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8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여자 두 명의 석방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 당시 북한은 미국의 고위급 특사단이 방북하면 여자자들을 풀어줄 수 있다고 전했다.

처음에 미국 측은 여자자들이 속한 커런트TV의 엘 고어 전 부통령, 전 세계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고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등을 고위 특사로 고려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북한이 이미 특정한 방문객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남편이었다"며 "김정은은 남편 빌이 1994년 김일성 사망 때 위로 편지를 보낸 이후 분명한 호감을 갖고 있었다. 또 전 미국 대통령의 구출 작전을 통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출간된 회고록 '힘든 선택들'에서 남편인 빌 클린턴이 2009년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웃지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이 이날 뉴욕 맨스앤노블 서점에서 열린 사인회에서 자신의 책을 들고 서 있다. 뉴욕/AP뉴시스·연합뉴스

해 국제적 관심을 끌고 싶은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북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은 사진을 찍을 때 절대 웃지 않고 무표정한 표정으로 일관해 화제를 모았다. 이에 대해 클린턴 전 장관은 "사안의 외교적 민감성을 감안해 방북이 정부로부터 충분한 브리핑을 받았으며 특히 김정일과 불가피하게 공식 사진을 찍을 때는 웃거나 정그리지 말라는 행동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공개된 방북 사진을 보니

빌과 방북팀이 아무도 웃지 않는 등 적절하게 행동했다"며 "빌은 나에게 007 제임스 본드 영화 오디션을 보는 기분이었다고 털어놨다"고 덧붙였다.

또 클린턴 전 장관은 2010년 7월 로버트 게이츠 당시 국방장관과 함께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일을 회고하며 "한국이 가난과 독재에서 벗어나 번영과 민주주의로 향하는 발전의 빛나는 사례가 된 반면 북한은 공포와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배준호 기자 baehj@4

박민규 중원대 교수 '세계 100대 과학자'에

중원대 방재안전공학과 박민규(사진) 교수가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 인명센터(IBC-International Biographic Center)가 선정한 '세계 100대 과학자'에 뽑혔다.

박 교수는 재해관리분야 연구에서 이변량 해석을 통한 정량화 방법과 관련한 국제표준 기법을 제시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았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다양한 분야에서 위험도 분석(risk analysis)과 취약성 함수(vulnerability function) 도출 수단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IBC는 지역과 국가, 국제 수준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과학자를 심사해 해마다 세계 100대 과학자를 선정하고 있다. IBC는 박 교수를 21세기 대표 지성인 2000명(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과 2014년 세계의 주요 전문가(Leading Professionals of the world, 2014)로도 선정할 바이다.

박 교수는 과학기술논문영색인(SCI)급 국제학술지 등에 50여편 이상 논문과 특허를 발표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김형식 교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재선

김형식(사진) 한반도국제대학원 교수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위원으로 재선됐다.

김 교수는 1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142개국 중 89개국의 지지를 받아 2018년까지 CRPD 위원

으로 활동하게 됐다. 앞서 이번 선거에는 9개 위원직을 두고 23명이 입후보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CRPD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의 보고서 심사와 당사국에 대한 권고 등 각국의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12월에 CRPD에 가입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인권변호사 천광청 美 망명안'은 한국계 해럴드 고 작품

美·中 외교갈등 속 묘안 제시

2012년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인 인권변호사 천광청씨의 망명 해법을 기획한 인물이 한국계 해럴드 고(고홍주·사진) 전 미국 국무부 법률고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출간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회고록 '힘든 선택들(Hard Choices)'에는 2012년 4월 25일 당시 중국 벽지를 여행



미·중 전략·경제 대화를 불과 일주일 앞둔 클린턴 장관은 천광청의 신병처리를 들

어린 외교적 문제를 잡을 없이 풀어낼 '묘안'이 필요해 평소 신임해온 예일대 법대 학장 출신의 고 고문에게 SOS를 보냈다. 고 고문은 천광청을 베이징에서 떨어진 법대에서 2년 정도 공부하도록 한 뒤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는 묘안을 내놓았다. 이후 천광청은 양국의 합의에 따라 바로 중국을 떠나 미국 뉴욕대로 유학을 가는 방식으로 망명했다.

정혜인 기자 haem2558@

우근민 제주지사

제주대 명예박사학위

우근민(사진) 제주 지사가 10일 제주대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대 명예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주대는 행정가이자 지역의 지도자로서 지역 발전에 애쓰는 우 지사의 공적을 높이 평가해 명예행정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 지사가 40년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5차례나 도박을 지내며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수립,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수상 등 제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허항진 제주대 총장은 학위 수여식사를 통해 "오늘날 제주도가 세계 속의 제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우 지사의 역할이 컸다"며 "우 지사는 행정가로서 지역의 지도자로서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다문화 가정·탈북 자녀 등 교육지원 한국다경문화재단 출범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회장 사재 출연

다문화 가정 및 탈북자 자녀, 장애인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재단이 만들어졌다.

한국다경문화재단은 다문화 가정 및 탈북 자녀와 장애인들의 언어역량 강화와 사회통합 지원을 통한 광역의식 및 상생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파고다교육그룹 및 한국학원총연합회의 박경실(사진) 회장이 개인 재산을 출연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박 회장은 이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한국다경문화재단은 △다문화 가정 및 탈북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 △다문화 가정 및 탈북 자녀와 장애인들의 직업 교육 △다문화 가정 및 탈북 자녀의 한국문화 탐방 △다문화 가



정 및 탈북 자녀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경실 이사장은 "저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돼 기쁘고,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며 "한국다경문화재단이 사회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진 기자 tipippo@

신나는 삼바 리듬에 맞춰...



노승열·김형성 US오픈 출전

시즌 두번째 메이저대회 정상 도전

노승열(23·나이키골프)과 김형성(34·현대자동차)이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정상에 도전한다.



노승열 김형성

노승열과 김형성은 13일 (이하 한국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인허스트 골프장에서 열리는 PGA투어 US오픈(총상금 800만 달러·81억6000만원)에 출전한다. 미국 지역 예선 통과자를 포함해 총 156명의 실력자들이 샷 대결을 펼치는 이 대회에는 전년도 챔피언 저스틴 로즈(34·남아공)를 비롯해 세계적 톱랭커들이 총출동한다.

노승열과 김형성은 코리안 브라더스를 대표해 파인허스트 필드를 밟는다. 노승열은 3일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열린 US오픈 지역 예선에서 2라운드 합계 5언더파 173타로 저스틴 레너드, 저스틴 토머스(이상 미국)와 함께 공동 1위에 올랐다. 김형성은 합계 3언더파 139타로 공동 9위를 차지해 상위 16명에게 주어지는 본선 진출 티켓을 거머쥐었다.

그러나 코리안 브라더스의 만능 최경주(44·SK텔레콤)는 1언더파 141타로 공동 19위에 머물러 US오픈 출전이 좌절됐다. 2002년부터 US오픈과 마스터스 등 4개 메이저 대회 PGA투어 메이저대회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전한 최경주는 이번에 처음으로 불참하게 됐다.

배상문(28·캐러웨이골프) 역시 멤피스에서 열린 지역예선에서 3언더파 140타를 기록해 상위 13명에게 주어지는 본선 티켓을 획득하지 못했다.

이로써 노승열과 김형성은 코리안 브라더스의 기대감을 한몸에 받게 됐다. 노승열은 올 시즌 취리히 클래식에서 PGA투어 데뷔 첫 우승을 차지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김형성은 지난해 일본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상급랭킹 2위에 올랐고, 올해는 더 클라운스에서 정상에 올라 US오픈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오상민 기자 golf@

'월드컵 카니발' 속으로

13일 새벽 브라질월드컵 개막식

프레보·카포에라... 전통문화 공연

제니퍼 로페즈·핏볼 등 팝스타 참석

1만4000여석 해외 초청 유명인들로

하반신 마비 장애인 로봇다리 시축

지구촌 '편의 전쟁' FIFA(국제축구연맹) 브라질월드컵 개막식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13일 새벽(한국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의 아레나 데 상파울루 경기장에서는 2014 브라질월드컵 개막식이 열린다.

이번 브라질월드컵 개막식은 브라질 전통춤인 삼바와 프레보의 향연이 될 전망이다. 브라질 현지 신문 폴하 데 상파울루는 이번 브라질월드컵 개막식과 관련해 삼바·프레보·카포에라·가오샤 등 전통춤과 무예·전통악기를 사용해 브라질의 전통문화를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 때제는 또 개막행사에 나서는 댄서들이 다양한 신체 부위를 활용해 브라질의 전통 춤사위를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최근 브라질 TV 광고 등을 통해 젊은 세대에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프리 스타일 무대도 준비됐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25분간의 다이내믹한 무대도 펼쳐진다. 브라질월드컵 공식 주제가의 주인공 팝스타 제니퍼 로페즈, 핏볼, 클라우디아 레이테 등이 참석, 개막식 분위기를 고조시킬 전망이다. 개막식 무대 디자인은 '태양의 서커스' 연출가로 유명한 이탈리아

아 출신의 프랑코 드라고네가 맡는다. 각각의 정장과 외교사절단,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유명인들의 참여도 눈길을 끌고 있다. 브라질 정부와 조직위원회는 개막식 경기장 6만5000석 중 1만4000여석은 해외에서 초청한 유명인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외교부는 30여개국 정상과 정부 대표들이 월드컵 기간 브라질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 중 상당수가 개막식과 개막전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정부에서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과 연방정부 각료, 연방의원, 주지사, 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브라질월드컵 개막식은 전 세계 과학계의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생각만으로 로봇 발을 움직여 시축을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시축 행사를 이끄는 미국 듀크대 신경생물학과 미켈 니콜레리스 교수는 20~35세의 실험 참가자 8명을 모집해 지난해 11월부터 브라질에 마련된 연구소에서 특별훈련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반신이 마비돼 걷지 못하는 실험 참가자는 뇌파를 감지하는 전극이 달려 있는 헬멧 형태의 센서를 머리에 쓴다. 이 센서는 사람이 생각을 할 때 뇌의 신경세포인 뉴런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감지한다. 실험 참가자는 하반신 근육이 마비됐지만, 뇌에서 근육을 움직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신호를 로봇 다리가 받아서 움직이는 원리다.

니콜레리스 교수는 최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8명 가운데 4명이 다리를 움직였고, 그중 한 명은 공을 한 번 차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니콜레리스 교수 연구팀은 현재 로봇 다리의 구체적인 사양과 실험 참가자 정보를 비밀에 부쳐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오상민 기자 golf@

홍명보호 마지막 모의고사 '낙제점'

가나에 0-4 대패... 수비진 순간 집중력 떨어져 대량 실점

홍명보호가 가나의 특급 공격수 조르당 아예우(마르세유)의 헤트트리에 침몰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0일 오전 (이하 한국시간) 미국 마이애미의 선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가나와의 평가전에서 0-4 대패했다. 2014 브라질월드컵을 앞둔 마지막 평가전이었던 시종일관 무기력한 경기 끝에 참패했다.

홍명보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전체적인 조직력에 큰 문제는 없었다"면서 "초반 2실점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감독은 또 "실수가 실점으로 이어진 장면이 많았지만 조직적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선수들의 컨디션이 아직 완벽하지 않았다"며 "실망하기는 아직 이르다. 평가전은 단지 평가전일 뿐이다. 오늘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월드컵 본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영표 KBS 축구해설위원은 "브라질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치른 마지막 경기였기 때문에 좋은 기본을 안고 브라질로 향했으면 했는데 아쉽다. 좋은 경기를 펼쳐 이기는 경기도 중요하지만 잘 지는 것도 중요하다.

다. 지더라도 다음 경기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90분 내내 쉴 틈 없이 뛰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나전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많이 뛰었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수비진의 순간 집중력이다. 한 번의 역습이 대부분 실점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비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는 "수비 불안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아직 조직력이 완성되지 않았다. 왼쪽 풀백이 공격에 가담했을 때 뒷방문하는 선수가 없었다. 홍명보 감독의 수비 축구 완성의 미드필드부터 시작된다. 미드필더는 볼 점유율뿐 아니라 상대 선수들을 강하게 압박해 일제감치 공격을 차단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18일 열리는 러시아전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수비 조직력이 좋은 팀이다. 공격보다 끈끈한 수비로 지지 않는 경기를 한다. 하지만 빠른 역습으로 득점을 노리는 만큼 미드필더진의 강력한 압박과 커버플레이를 염두에 둔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golf@

20년 앞선 세계 최고 고반발 타겟 설계 기술력 - **뱅** Class 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BANG** GOLF JAPAN

골프가 쉽고 편해진다

40yd 더 나가는 아이언

긴 거리를 더 짧은 클럽으로 쉽고 정확하게 칠 수 있다.

계속되는 진화, 또 하나의 기적

BANG Longdistance

반발계수 0.925 **극초고반발 Hybrid IRON** 세계최초

10번 아이언

6번 아이언 거리를 이제 10번으로 친다.

일반적인 아이언 보다

- 극초고반발 + 큰 헤드 체적으로 비거리가 40yd 더 나간다.
- M.O.I가 높고 Sweet Spot이 넓어서 방향성이 더 향상되었다.
- 총 중량과 헤드밸런스가 더 가벼워져서 스윙이 편하다.
- F1 포물러 타이어 접지 원리와 같이 백스핀량이 증가한다.
- 헤드의 와이드 솔 디자인으로 인하여 뒤땅이 없다.

Long IRON #2~#11 Middle IRON Short IRON

반발계수 0.925 >> 0.930 >> 0.962의 연속적인 세계최고 극초고반발 기술개발 성공으로 비거리가 30~40yd 증가

뱅 Longdistance (470 Driver · Fairway WOOD · Hybrid WOOD · Hybrid IRON)

뱅 Longdistance의 경쾌한 타구음과 손맛을 경험하면 다른 골프채는 둔탁한 느낌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골프 해설가 75%, KPGA 시니어투어 62%, 남자 미드 아마추어 상위랭커 다수, 여자 시니어 아마추어 최강자 93% 뱅 Longdistance 골프 클럽 사용

대표전화 : 1544-8070

신세계 백화점 본점 (02-310-1538) 강남점 (02-3470-1532) 영등포점 (02-2639-1536) 경기점 (031-695-1845) 인천점 (032-430-1563) 의정부 (031-8082-0712) 부산점 (051-745-1823) 충정점 (041-640-5753) 마산점 (055-240-1406) 광주점 (062-360-1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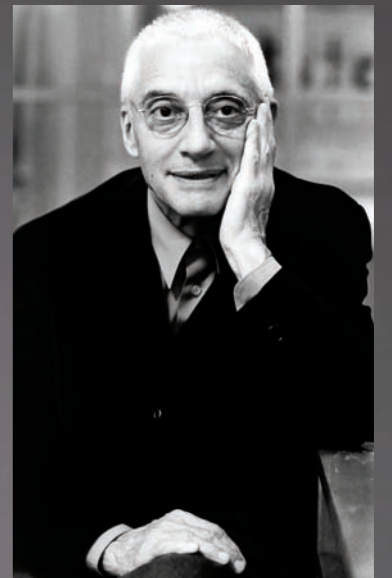
주요 - 뱅 BANG 뱅골프 로고가 틀리거나 사프트에 뱅골프코리아의 홀로그래피가 없는 것은 오조품입니다.

반포골프백화점 (02-534-0220) (주)뱅골프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537-3 (아람로 28) 한국골프회관1층 TEL : (031) 781-2041 FAX : (031) 781-2031 www.banggolf.co.kr

한국도자기 71주년
1943~2014

도자기의 여왕 한국도자기 본차이나는

미국, 영국 등 세계 80여개국에 수출하는 가장 안전한 식기입니다.



Geometrica

Alessandro Mendini

지오메트리카는 한국도자기와 OCDC(동양문화디자인연구소)가 기획하고 세계적인 거장 이태리의 알레산드로 멘디니가 디자인한 소장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A. Mendini

미국 식품의약국 FDA, 유럽식품안전청 EFSA,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가장 안전한 식기입니다.

Bone Ash란?

정제된 소의 뺏가루

국제 기준 Bone Ash 함량에 따라
미국 25% 이상
한국 K.S. 30% 이상
영국 40% 이상 (Fine Bone China)

한국도자기는 약50%로 세계 최고입니다

본차이나의 특성 가볍고 단단합니다 (일반도자기의 약3배 강도)
투광성이 좋고 진주처럼 우아합니다
보온성이 뛰어납니다

한국도자기 본차이나는
영국 직수입 천연 본애쉬 만을 사용합니다



실버리본



마카롱



첼시가든



연리지



머니&라이프- 직장 새내기 재테크 ■ 23면



기업은행 '창조금융' ■ 24면

금융결제 혁명일까... 찻잔 속 태풍일까 카카오發 SNS뱅킹



‘뱅크월렛 카카오’ 올 하반기부터 상용화
50만원까지 충전... 하루 최대 10만원 송금
인터넷 쇼핑물·오프라인에서도 결제 가능

가입자 3700만명... 막강한 파급력 기대
은행, 카드·계좌이체 위협 수익성 악화 긴장
수수료 배분·보안·금융사고 책임 등 숙제로

창구→ATM→온라인뱅킹→SNS.
올 하반기 금융거래 방식에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이어지는 제4의 물결이 일어날 전망이다. 금융결제 시스템은 창구의 대면거래에서 IT기술의 발달로 자동화기기(ATM), 온라인뱅킹에 이어 모바일뱅킹으로 진보해 왔다. 이제 더 나아가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한 금융거래 서비스인 뱅크월렛 카카오(Bank Wallet Kakao)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금융거래 방식의 파괴를 넘어 지급결제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뱅크월렛 카카오는 카카오톡 계정과 뱅크월렛의 선불충전 서비스인 뱅크머니를 결합한 일종의 전자지갑이다. 이 시스템은 우리·국민·신한·외환은행 등 시중은행 15곳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소액 송금과 오프라인 결제 기능이다. 최대 50만원을 선불 충전해 카톡 친구에게 1일 최대 10만원을 송금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물이나 NFC(근거리 통신기술) 단말기가 설치된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도 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카카오톡 친구와 쉽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녀에게 용돈을 주거나 친구에게 축의금을 보내는 등 50만원 이내에서 편리하게 자금이체를 할 수 있다.
카카오톡 친구에게 송금하기 위해서는 받는 친구 역시 스마트폰에 뱅크월렛 앱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기존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달리 친구가 송금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취소도 가능하다.
금융권은 뱅크월렛 카카오가 막대한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과거 현금 내지 신용카드가 담당하던 지급결제 수단 기능을 간단히 휴대폰을 이용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가 상용화될 경우 카드와 계좌이체를 통한 결제 횟수가 줄면서 일부 수수료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권이 모바일 금융시장이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이유다.
뱅크월렛 카카오의 결제 가능 범위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다. 서비스 출시 후 가맹계약만 체결된다면 결제범위의 확대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은행권 관계자는 “앞으로 보안문제가 해결돼 10만원 이상 결제와 송금이 가능해지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 인프라를 확장하면 말 그대로 지갑 없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3700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가입자를 감안하면 전통적인 은행의 사업범위(신용·체크카드, 계좌이체 등)를 위협하는 결제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들이 카드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없었던 수수료를 일정 부분 카카오에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미 회원 간 소액 송금·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했던 은행들의 걱정은 현실이 되고 있다. 현재 금융결제원

의 뱅크월렛을 포함해 신한은행(주머니), 기업은행(원머니), 하나은행(하나N월렛) 등 전자지갑 서비스는 대부분 투자에 비해 가입자 수와 거래 규모에서 초라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안문제를 거론하며 뱅크월렛 카카오의 한계를 예견하고 있다. 계좌 주체가 카카오와 금융결제원 인 탓에 보안이나 금융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수료 배분 문제는 선결 과제다. 현재 서비스 시작부터 수수료를 받을지 여부를 조율 중이며, 은행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금융결제원 간 수익 배분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다. 카카오톡 게임플랫폼의 경우 구글이나 애플 등 앱스토어가 30%, 카카오가 21%의 수익을 가져가고 나머지 49%가 콘텐츠 제공업체에게 제공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뱅크월렛 카카오의 수익 배분은 게임플랫폼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계좌 주체는 카카오와 금융결제원이기 때문에 금융결제원이 수수료에서 얻은 수익을 은행에 배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안철수 기자 acw@/일리스트=사유진 기자 yjsa2018@

진화하는 카톡... 이번엔 '뱅크'로 전자지갑 시장 노크

(뱅크 월렛 카카오)

업권	회사	상품	특징
이동통신사	SK플래닛	스마트월렛	가입자 700만명 최대, 170여개 브랜드 제휴
	KT	모카	가입자 200만명, QR코드·NFC·바코드 등 다양한 결제방식 지원
	LG유플러스	U+스마트월렛	가입자 200만명, 주변 할인 정보 검색, 각종멤버십·쿠폰·티켓 제공
금융	하나은행	하나월렛	개인간 충전금액 송금가능
	신한카드	스마트월렛	현재 위치에서 이용 가능한 가맹점, 할인쿠폰 정보 제공
	삼성카드	엠(M)포켓	앱카드 결제, 쿠폰 이용, 위치기반 정보 제공
	KB국민카드	KB와이즈 월렛	혜택 제공 가맹점 실시간 조회 가능
	롯데카드	롯데카드 클러치	앱카드 결제와 포인트 적립, 할인혜택 동시 제공
유통	신세계백화점	에스(S)월렛	신세계백화점 결제 및 포인트 적립 등 동시 관리
제조사	삼성전자	삼성월렛	한번의 패스워드 인증을 통해 편리하게 결제
IT	카카오	뱅크 월렛 카카오	소액 송금, 온·오프라인 소액 결제, 은행 자동화기기(ATM) 이용
	다날	바통	바코드 결제 솔루션, 지문인식 기술 도입
	KT모바일서비스	엠틱	바코드 결제 솔루션, 일 30만원 한도 직불 결제 가능

모바일 결제시장 판도 바뀌나

카카오가 전자지갑 시장에 뛰어들면서 모바일 결제시장에 격변이 예상되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는 저마다 전자지갑 서비스를 출시하며 스마트폰 사용자의 '사이버 지갑'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신용카드가 현금에 대체했던 것처럼 전자지갑이 플라스틱카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경쟁을 더욱 촉발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는 2012년에만 2조9800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 15개 은행과 손잡고 서비스 개시 수수료 초만 무료 100원 안팎 거론 올해만 100만여명 수요 창출 기대

이통·금융사 등 시장 선점 경쟁 NFC 인프라 구축 속제 남아

▷전자지갑 춘추전국시대 도래 = 전자지갑 시장이 바야흐로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하고 있다. 현재 전자지갑 시장은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은행, 카드사, 유통사 등이 진출해 다양한 방식으로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금 결제뿐 아니라 각종 멤버십카드 관리와 쿠폰 제공, 할인 및 포인트 적립, 영수증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진화하는 양상이다. 이미 통신사들이 시장에 먼저 진출했고 카드사들은 대규모 가맹점 정보를 활용한 고객서비스와 모바일카드 등을 통한 결제 편의성을 무기로 추격전을 펼쳐왔다.

여기에 유통업체와 단말기 제조사까지 가세했다. 전세계는 백화점 안에서 할인·적립과 결제가 동시에 가능한 '에스(S)월렛'을 선보였다.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삼성월렛'을 출시해 단말기 소비자를 잠재 고객층으로 확보했다.

여기에 카카오가 오는 3분기부터 소액 송금과 온·오프라인 결제를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지갑'을 출시할 예정이다. 모바일 결제시장은 다자간 경쟁구조가 될 전망이다.

카카오는 하반기부터 우리·국민·신한·외환을 비롯한 전국 15개 은행과 함께 '뱅크 월렛 카카오(뱅크)'를 선보인다. 회원수 3700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톡의 금융시장 진출로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뱅크 이용자는 카카오톡 전자지갑에 최대 50만원을 충전해 하루 10만원까지 스마트 폰 연락처에 등록된 사람끼리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검증되고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카카오톡이 금융서비스를 한다는 측면에서 위협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소비자들은 훨씬 진숙한 수단인 카카오톡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자지갑의 시초라 할 수 있는 SK텔레콤의 '스마트월렛'은 3년여 만에 사용자 1000만명을 넘어섰다.

KT의 '모카(모카페이)', LG유플러스(LGU+)의 '스마트월렛' 등 통신사들은 모바일 결제가 연동되는 플랫폼을 이미 구축했다.

지난해 신한, KB국민, 현대, 삼성, 롯데, 농협카드 등 6개 카드사들은 통신사에 대응해 공동으로 모바일결제 솔루션을 개발해 앱을 출시했다. 이통사가 주

도하는 결제방식은 근거리무선결제(NFC)이고 애플카드나 NFC뿐만 아니라 QR코드, 바코드, 직접 입력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한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지갑의 편리성 및 다양한 혜택 제공 측면에서, 기업들은 플라스틱 카드 발급 비용 절감과 마케팅 측면에서 전자지갑 사용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카톡 결제, 인프라 구축 성공 관련 = 모바일 결제 및 전자지갑 서비스는 현금이 없어도 상품 구매가 가능하고 카드 관리 기능을 통한 물리적인 카드 소지가 불필요하다는 장점이 크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현금과 카드 결제를 선호하고 있다.

소비 습관이 기존의 결제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바일 결제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깔려 있지 않은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카드업계는 카카오톡 결제 서비스가 위협적이지만 기존 신용카드를 대체할 만한 파급력을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부분의 결제가 마그네틱카드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찾잔속의 태풍'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가맹점 결제 인프라는 마그네틱카드 결제 위주이며 금융당국은 이것을 IC결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카카오톡이 선보이는 NFC를 기반으로 한 결제시장은 NFC 결제 인프라 구축 문제로 단기간 급성장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당 15만원가량의 동글을 가맹점에 설치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가트너에 따르면 전 세계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는 2011년 이후 연간 평균 42%, 이용자 수는 평균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모바일 결제시장 중 NFC 비중은 2011년 6.7%에서 2016년 6.2%로 소폭(-0.5%p)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최근 출시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NFC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향후 NFC 기반 결제시장이 어느 정도 점진될 가능성이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결제만 놓고 보면 아직 모바일 결제가 확대되기에는 요원한 실정"이라며 "결제 인프라 구축은 벤 사업자와 가맹점의 협조가 필요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KAKAO
그래픽 손미경 기자 sssmk@

Stay healthy and happy with GREEN CROSS CARE

녹십자

업무피로, 비맥스로 스마트하게

SMART 비타민제 비맥스정

나에게 딱 맞는 수트처럼 영양제도 스마트한 비맥스로

업무피로를 이기는 스마트한 방법, B-maxtab.

피로 해소를 위한 비타민 B	건강을 위한 UDCA와 메티오닌
남성 건강에 좋은 미네랄 마그네슘과 아연	활성형 비타민 벤토포아민

SMART 비타민제 B-max는 결핍될 수 있는 비타민B와 C의 섭취량을 보충해 주고, 건강을 위한 UDCA와 메티오닌을 함유하고 있어 당신의 삶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어 드립니다.

SMART 비타민제

비맥스정

광고심야: 1152-0600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뱅크를 보는 금융권 '두개의 시선'



“금융거래 새로운 지평열 것” 기대 “결제 주도권 상실, 수익 저하” 우려

뱅크 월렛 카카오(bank wallet kakao·이하 뱅카)에 대한 은행권의 시선은 둘로 나뉜다. “금융거래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란 기대감과 “결제 수단 주도권 상실로 수익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감이 있다.

전자를 택한 은행들은 카카오톡의 범용성에 주목한다. 결제 가능 범위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아 서비스 출시 후 가맹계약만 체결한다면 3700만명 가입자들이 모두 잠재 고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뱅카가 올해에만 100만명 넘는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미국의 금융솔루션 제공업체인 디지털 인사이트(Digital Insights)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의 46%는 구매활동에 SNS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60%는 SNS가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각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국민·신한·외환 등 15개 은행들이 뱅카 출시를 던진 이유다.

반면 후자를 택한 은행은 뱅카의 성장성에 의심을 품고 있다. 불합을 선안한 하나은행이 대표적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개인정보유출 등 보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용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 분석했다.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에서 무

료 제공되는 송금 서비스를 놔두고 편의성을 이유로 뱅카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IC칩이 내장된 현금카드 기능을 하는 만큼 가맹점 수수료는 기존의 신용카드(2~3%)보다 낮은 약 1%가 적용된다. 초기 송금 서비스 수수료는 무료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후로는 100원 안팎이 거론되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다양한 IT기업이 결제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은행들의 먹거리가 줄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금융회사들의 금융업 진출이 초기단계 머물러 있어 아직까지 본격적인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있지만 가뜰스나 비대면 거래 발달로 직접 수익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체널 중 인터넷뱅킹 거래 비중은 34.1%로 2010년 26.6%에 비해 7.5%포인트 상승한 반면 창구거래 비중은 같은 기간 15.5%에서 12.2%로 하락했다. 송금·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 수수료 인하로 인해 우리, KB, 신한, 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대고객 수수료는 2010년 3014억원에서 2013년 2221억원으로 26.3%나 줄었다. 적자 점포에 대한 구조조정이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SNS와 같은 비대면 거래 증가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박선현 기자 sunhyun@

돌다리도 두드려라

공인인증서 탈취

피싱 스미싱

해킹 가능성

보안 뚫리면 끝장

'카톡지갑' 활성화 관건은 보안·안전성

하반기 실시되는 카카오톡 결제 서비스인 '뱅크 월렛 카카오톡(뱅크)'의 시장 과급력 전망에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3700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장 은행권에서는 올해에만 100만명이 넘는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금융권의 스마트폰 전자지갑 서비스로는 금융결제원의 뱅크월렛, 신한은행의 주머니, 하나은행의 하나N월렛 등이 있다.

하지만 카카오톡 결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친구를 빙자한 피싱·스미싱 위협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또 금융서비스 과정에서 보안사고 발생 시 은행·금융결제원, 카톡 결제 신뢰에 치명적이다.

친구 빙자한 금융사기 터질뻔 치명적 보안 강화 위해 상용화 하반기로 미뤄 금융당국 "보안 수준 높아야 허가"

'투 채널 방식'으로 부정 사용 방지 인터넷뱅킹 가입 1기기에 1계좌 허용

최근 신종 수법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활개를 치는 가운데 공인인증서 탈취나 위변조, 비밀번호 해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뱅키는 지난달 초 출시 예정이었으나 하반기로 미뤄진 것도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등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결제원은 뱅카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보안뿐 아니라 시스템, 서비스 등을 보다 철저히 점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결제 서비스인 만큼 출시 전에 금융당국과 여러가지 논의했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보안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뱅카의 하반기 출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뱅카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보안성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결제원과 은행들의 소관 기관이 각각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나눠지면 서로 문제가 복잡해졌다. 담당 기관이 다르다 보니 보안성 심의를 수행할 곳을 한 곳으로 정하기가 애매해진 것이다.

금융당국의 보안 점검을 통과하는 것이 관건인데, 아직까지 보안 심의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중 심의를 맡을 곳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의에 들어가더라도 높은 수준의 보안이 갖춰지지 않으면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보안 심의과정에서 카카오 송금 서비스가 보안·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뱅카 출시 얘기가 돌았던 초기에는 금융결제원 관계자와 만나 보안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금융결제원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보안 마련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카오는 앱카드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부정 사용 방지 차원에서 처음 서비스 이용 시 투 채널(two channel)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 뱅킹에 가입한 14세 이상의 사용자에 한해 1기기에 1계좌만 허용된다. 하루 송금 한도도 10만원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출시 전 보안쪽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신속히 기반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뱅카의 본격 시동을 앞두고 카카오, 은행, 금융결제원 각각의 서비스 영역과 서비스가 연계되는 접점에서 피싱·해킹 등 차단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3자간의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해 문제 발생 시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뱅카 이용자는 카카오 전자지갑에 최대 50만 원을 충전해 하루 10만원까지 스마트폰 연락처에 등록된 사람끼리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 송금은 개인 카톡방에서만 가능하고 단체 카톡방에서는 할 수 없으며 송금 및 입금 이력도 조회할 수 있다. 송금 서비스 수수료는 100원선으로 초기에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구귀 기자 kkk@

해외 IT기업, 금융시장 속속 진출

중알리바바, 알리페이 운영·MMF 판매

<결제 시스템>

텐센트 금융상품에 8조원 몰려 페이스북, 아일랜드 금융서비스 눈앞 구글, 영국 전자화폐 발행권한 획득

IT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의 선두엔 중국의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중국의 알리바바는 독자적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운영하고 있다. 알리페이란 인터넷 쇼핑 사용자가 개인 인터넷 계좌를 만든 뒤 송금, 모바일 결제, 신용카드, 쇼핑 쿠폰 등을 통해 충전해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신용카드가 없는 소비자와 미성년자들도 손쉽게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알리바바는 지난해 기준 중국 결제시장 점유율 48.7%를 차지하고 있는 알리페이의 두터운 사용자층을 활용해 인터넷 결제뿐 아니라 금융상품 판매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지난해 6월 말 머니마켓펀드(MMF) 상품인 '위어바오'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올해 4월까지 8000만명에게 5000억 위안(약 81조 원)을 끌어모으며, 세계 최대 가입자 MMF 상품으로 등극했다.

모바일 메신저와 게임으로 유명한 중국의 대표적 인터넷 기업 텐센트도 지난 1월 '리차이퉁'이라는 인터넷 금융상품을 내놓았다. 이 상품은 출시 40일 만에 운용 규모가 500억 위안(약 8조 원)을 넘어섰다.

IT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은 미국에서도 활발하다. 페이스북, 구글 등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내놓는 등 국내시장보다 앞서 금융업계에 진출한 상태다.

페이팔은 2013년 말 기준 이용자 수 1억4000만 명, 연 매출 66억 달러(약 6조7000억 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온라인 모바일 결제 회사다. 페이팔은 이용자가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카드정보 등을 입력해 놓으면 페이팔 제휴업체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쉽게 결제할 수 있다. 카드번호를 매번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페이팔 카드만 있으면 물건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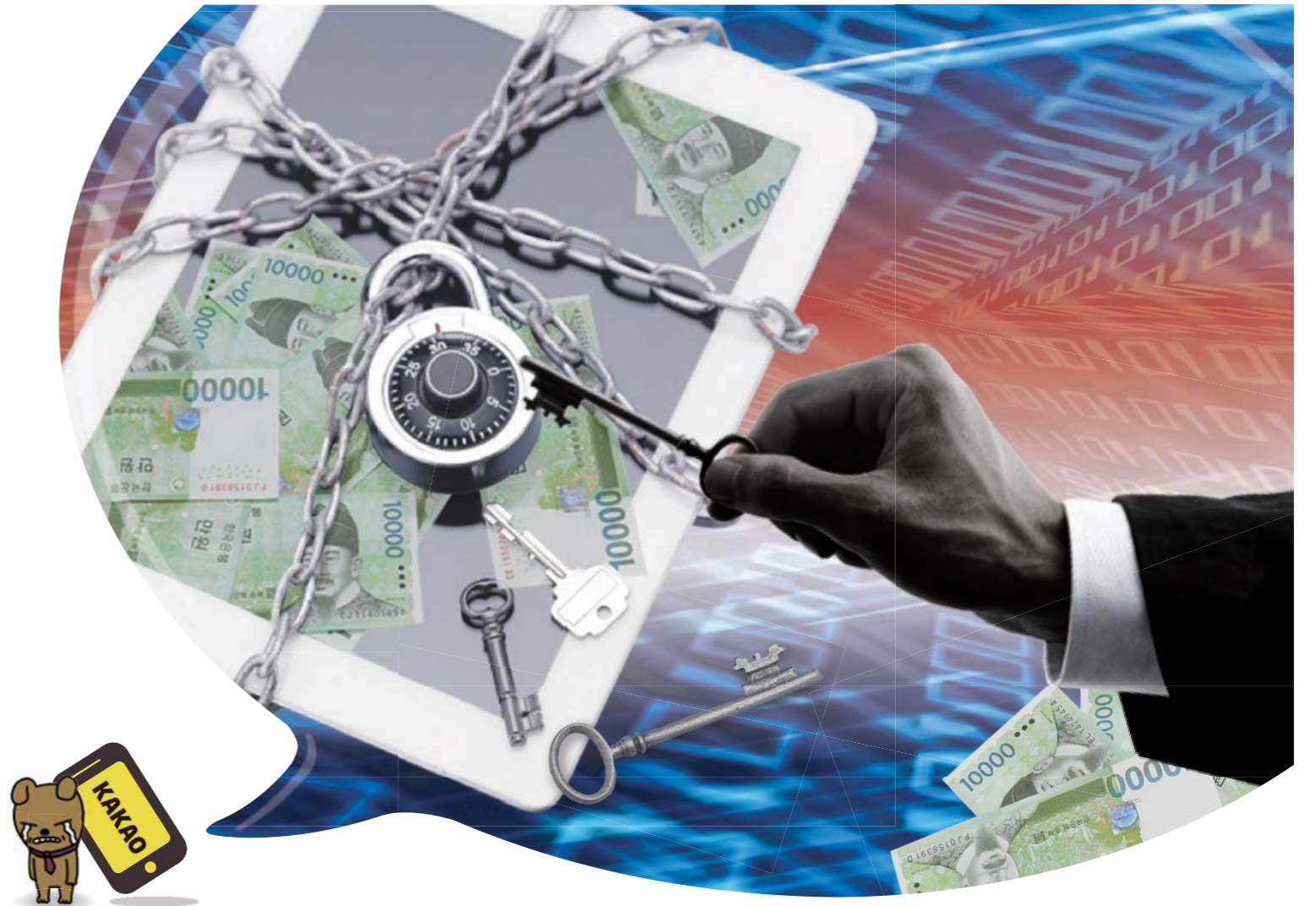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업체인 페이스북은 아일랜드에서 금융업 진출을 앞두고 있다.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정식으로 인가하면 페이스북은 전자화폐 취급기관으로 인정받는다.

시가 총액 기준 세계 5위에 해당하는 '페이스북 은행'이 탄생하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에서 예금 보유와 지급, 송금, 결제 등 은행과 닮은 금융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은 이미 영국 내 온라인 및 모바일 송금 서비스 업체인 트랜스퍼와이즈, 모니테크놀로지, 아지모 등과 협력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이를 바탕으로 이주 노동자의 송금할 거래가 많은 신흥개발도상국으로도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구글도 금융업 진출에 적극적이다. 구글은 이미 영국에서 전자화폐 발행권한을 받아냈다.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모바일 결제서비스 '구글 월렛(지갑)'을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들 모두는 IT기업이 전통적으로 금융회사의 업무이던 예금, 송금, 결제 등의 영역에 다가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돈이 나가는 것은 같지만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금융회사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금융주치의'는 엄격하게 선발된 자산관리 전문가 입니다.



전문금융지식과 투자컨설팅경험을 갖춘 165명 금융주치들이 시장의 기회와 리스크를 분석하여 최적의 자산 리밸런싱을 제안합니다.

대신증권 [금융주치의]

* 금융주치는 특허청에 등록된 서비스표로서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서비스표 등록 제 41-0271044호)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이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4-02245호(2014.04.07 ~ 2015. 04.06)

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

FILCO (주)필코인터내셔널 동부화재 생산물 책임배상보험 1억원 가입



옷, 알러지, 피부트러블, 두피염증, 모발손상, 눈따가움

염색부작용!

리시리 트리트먼트가 해결해 드립니다.



리시리 트리트먼트 사용자 이야기

역한 냄새에 머리가 지끈지끈, 두피가 따갑지 않아서 좋아요!



집에서 혼자 염색준비를 하는게 귀찮고 염색하고 나면 머릿결이 푸석해져서 염색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리시리 트리트먼트는 무첨가라서 역한 냄새도 없거나와 캡을 쓰고 5~10분 정도 방치하면 염색이 되기 때문에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가르마 언저리에 새치가 잘 보이는데 부분적으로 사용하니까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정말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이나바 (50대)

저에겐 예쁘게 젊음을 지속시켜 주는 아이템이죠!!



새치가 생기면 실제 나이보다 5~6살 정도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게 충격적이었어요. 혼자서 염색약을 사서 해보기도 하고 미용실에서 염색 해보기도 했지만 피부에 맞지 않아서 고민이었습니다. 친구의 추천으로 리시리 트리트먼트를 사용해 보았는데 간편하게 염색이 잘되어 놀랐습니다. 그 뿐 아니라 머릿결이 차분하고 찰랑찰랑하니 수시로 머리에 손이가고 기분도 좋아지네요. 이 제품은 나에게 예쁘게 젊음을 지속하게 해주는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마쯔오 (40대)

리시리 트리트먼트는 염색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개발된 제품입니다.

리시리 2+1 무료체험 기회!

리시리 트리트먼트 (10gX2개)
리시리 샴푸 (10gX1개)
*배송료 2,500원은 고객 부담.



無첨가

암모니아 | PPD | 산화제 파라벤



리시리 트리트먼트는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염색 부작용 때문에 염색을 못하시는 분.
- ✓ 염색 시 눈 따갑고 두통이 심하신 분.
- ✓ 모발과 두피 손상이 심하신 분.
- ✓ 화학성분에 민감하신 분.
- ✓ 피부알러지가 있으신 분.
- ✓ 염색 후 부드러운 머릿결을 원하시는 분.

흰머리 커버용

리시리 트리트먼트

옷, 알러지, 모발손상 걱정없이 흰머리를 커버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

간편한 사용방법



리시리를 손에 덜어 머리에 바르고 맑은 물이 나올때까지 헹구면 끝!
*염색을 위한 준비절차가 필요없고 번거롭지 않아 집에서 혼자서도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리시리 트리트먼트 주요성분

리시리 트리트먼트는 건과물, 울금, 치자, 자근, 인삼, 캐모마일, 서양송악 크레송, 국화, 로즈마리 추출물 등 28종의 식물성분으로 트러블 없이 자연스럽게 머리색을 변화시키고 리시리 성분 천연 다시마의 알긴산은 모발과 두피에 촉촉함을 주고 후코이단은 영양을 공급합니다.



국내최초!!

임상실험 및 개선효과 평가 시험 완료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인체피부 일차적 시험

저지극 범주의 물질로 판단 (피부반응 관찰되지 않음)

인체피부 사용성 시험

인체사용성 측면에서 안전한 제품으로 판단

모발의 윤기 링 개선효과 비교

큐티클 층 손상도 개선효과 비교

모발의 윤기 링, 큐티클 층 손상도, 인장력 및 빛질 개선됨

윤기 링, 큐티클 층 손상도, 인장하중 및 빛질하중 개선효과 평가시험

인체피부일차적 시험

부분 새치커버용

리시리 감추미

고객의 요청으로 탄생한 리시리 핫이슈 아이템

묻어나지 않습니다!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無첨가

암모니아 | PPD | 산화제 파라벤

22종의 식물성 엑기스 배합

검정색, 흑갈색, 밝은갈색



리시리 감추미는 외출시 순간적인 새치커버뿐 아니라 칫수를 더할수록 흰머리가 자연스럽게 착색됩니다!!



리시리 샴푸 & 컨디셔너

색깔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사용할수록 착색이 쉽게되고 색을 오래 지속시켜 이상적인 머릿결로~

리시리를 구입하시는 모든 고객님께 리시리 샴푸를 무료로 드립니다!

증정품 30ml

상담 및 주문 무료전화

080-582-0119

취급점 모집

자연파 自然派 club 헤어마인드 www.hairmind.co.kr

빠른배송
안심배송

*자연파(自然派) 클럽 헤어마인드를 방문하시면 필코의 다양한 천연성분 헤어제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잠자는 카드 포인트, 이젠 1점까지 알뜰하게

Point

직장인 김지은(33세)씨는 A카드사의 신용카드를 7년째 사용하고 있다. 김씨가 보유한 신용카드 2장으로 A신용카드는 주로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만 사용됐다. 김씨는 매월 20만원 정도로 A신용카드를 사용했고 그동안 포인트가 얼마가 쌓여 있는지에 대해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카드사들의 신용정보 유출 소식을 접하며 해지를 생각하다 포인트 조회를 한 결과, 꽤 많은 포인트가 적립된 것을 알고 계속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달부터 적립포인트 사용 최저한도 폐지

최근 5년간 6000억 소멸...먼저 통합조회 통해 잔여량 확인
현금캐시백 전환·포인트파크 이용·결제대금 사용 등은 예외
삼성카드 등 종류별로 달랐던 유효기간 통일하고 5년으로 연장



신용카드의 포인트는 사용한 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일종의 돈이다. 하지만 김씨의 상황처럼 자신이 보유한 신용카드에 포인트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특히 최근 카드사들이 1포인트만 적립돼 있어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 최저한도를 폐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쌓은 포인트는 공짜로 얻어진 것도 아닌데 현금처럼 요긴하게 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작년 쓰지 않아 소멸된 것이 1386억원이나 된다. 해마다 활용되지 못한 채 공중으로 사라지는 소멸 포인트는 800억~1500억원 사이를 오가는데 최근 5년간 소멸된 카드 포인트만 해도 6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현금과 같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잘만 사용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신용카드 포인트는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카드포인트 통합 조회 시스템은 카드회원이 개별카드사를 통해 조회 가능한 포인트 내역을 통합조회시스템 홈페이지(www.cardpoint.or.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포인트 안내대상 카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카드사 관리 포인트의 잔여 포인트 및 소멸 예정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다.

제휴사 관리 포인트(항공마일리지, OK캐시백 등)는 제휴사와 협의 중이며, 제휴사 동의 여부에 따라 추후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그동안 신용카드 포인트는 일정 수준을 적립해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1포인트만 적립돼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약관 개정을 통해 6월부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최저 한도 설정을 없애기로 했다. 5000포인트가 적립돼 있지 않으면 포인트가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마이신한포인트'의 세부 운

영 기준을 바꾼 것이다. 앞으로는 1포인트만 적립해도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금 캐시백으로 전환할 경우 사용 가능 최소 단위가 10만 포인트다.

삼성카드 등 보너스 포인트와 빅포인트 등 포인트 종류별로 달랐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통일했다. 유효기간을 늘려 포인트 사용 여지를 높여준 것이다. 1포인트만 있어도 사용이 가능한 대신 카드결제 대금에 포인트를 쓸 때는 3만 포인트 이상 적립돼 있어야 한다.

국민카드 역시 1포인트만 적립돼도 포인트를 쓸 수 있게 하되, '포인트파크'를 이용할 때만 예외조건(1만포인트 이상 보유)을 두고 있다. 하나에스케이(SK)카드의 경우 문화상품권 구입(1만포인트 이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이용대금(SMS·300포인트 이상), 현금 캐시백 전환(3만포인트 이상) 시에 한해 최저 포인트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재현 기자 nts0118@

사회초년생 목돈 마련 '재테크'

전용상품으로 '우대금리'... 소장펀드로 '소득공제'



저금리 저성장 시대를 맞아 직장 초년생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재테크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입성한 직장에서도 초년생들은 낮은 임금과 높은 물가, 여기에 저금리라는 복병까지 만나 뽕 찻돈 벌리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직장 새내기 전용 특화 상품과 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장펀드로 경제적 자립의 첫 단추를 꿰매라고 조언한다.

은행권에서 가장 돋보이는 상품은 KB국민은행이 사회 초년생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출시한 '첫재테크컬렉션'이다. 이 상품은 'KB Star*트 통장' 'KB국민첫재테크적금' 'KB국민첫재테크예금'으로 구성됐다.

우선 'KB Star*트 통장'은 20~30대 고객 입출금 통장 잔액이 많지 않은 점에 착안해 결산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중 2개월 이상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에게 평균 잔액 100만원에 대해 연 2.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KB국민첫재

KB국민은행이 선보인 '첫재테크컬렉션'

적금 연 3.3% 예금 2.9%에 월복리 적용

연봉 5000만원 이하 대상 '소장펀드'

최대금액 납입 땀 연 6.6% 수익률 효과

테크적금은 출시 1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한 히트 상품으로 기본 이율은 연 3.3%(월복리 효과를 감안하면 연 3.41%)이다. 이 상품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최고 0.5%포인트의 우대 이율까지 제공한다.

KB국민첫재테크예금은 소액 정기예금으로 가입 금액은 1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 상품은 1년제 기준으로 기본금리 2.9%에 월복리까지 적용하며, 국민은행으로 급여이체 등

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 0.2%포인트의 우대이율을 부여한다.

KB국민은행 측은 "20~30대 고객들이 원하는 금융거래를 반영한 상품을 꾸준히 출시해 사회 초년생들이 효과적으로 재테크를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사회 초년생들의 썬릿돈을 불러 줄 효과 재테크 상품으로는 소장펀드도 대표선수로 꼽힌다. 지난 3월 첫 판매가 시작된 소장펀드는 세테크 금융상품으로는 유일하게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 연금저축 상품의 소득공제 혜택이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현재 유일하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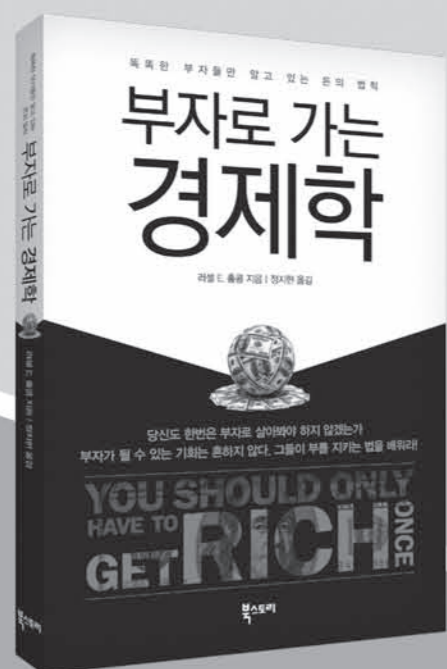
소장펀드의 최소 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간 최대 납입액 600만원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39만6000원은 연말정산 시 환급된다. 이는 매년 투자금액 600만원 대비 6.6%의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다.

혜택이 훌륭한 만큼 연간 총급여 5000만원 미만인 근로소득자만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은 "소득공제 혜택만으로도 연 6.6%의 수익률을 보장받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펀드 가입이 가능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특히 좋은 상품"이라며 "5000만원 미만 연봉자라면 소장펀드에 가입해 최고의 절세 혜택을 누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당신도 한번은 부자로 살아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세상이 바뀌고, 시장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부자들의 특별한 자산 관리법



똑똑한 부자들만 알고 있는 돈의 법칙 부자로 가는 경제학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다. 그들이 부를 지키는 법을 배워라!

러셀 E. 홀콤 지음 | 정지현 옮김 | 값 13,000원

You Should Only Have To Get Rich Once



창조형 中企 생애맞춤지원... 창조금융 성공모델 만든다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中企 인프라 구축 확충 주력

IBK기업은행은 창조형 중소기업들을 위한 맞춤 금융에서 지속성장 모티베이션을 찾고 있다. 기업은행이 제시한 '창조형 중소기업 생애 맞춤형 금융'은 창조형 중소기업이 창업부터 대기업이 될 때까지, 내수부터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창조금융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금융의 패러다임이 '대출→투자, '담보→기술력 및 성장성', '자금 지원→육성'으로 변화하면서 이에 맞춰 중소기업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기술평가 역량 강화 △지식재산권(IP)금융 활성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창조기업 육성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제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금융 패러다임 변화 발맞춰 IP대출·문화콘텐츠 지원 등 차별화 기술금융팀 신설해 우수中企 발굴을 신산업분야 기업 16조 공급 예정 2·3차 협력사 전용 수혜상품 개발 중 IP대출 한달새 7개 기업에 50억 지원 특허청과 300억 전담펀드 조성 계획



기업은행은 △기술평가 역량 강화 △지식재산권(IP)금융 활성화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제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진은 권선주 행장이 IBK창조기업으로 선정된 (주)로보티스를 방문해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권선주 행장(오른쪽)이 한정화 중소기업청장(가운데),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포괄적 동반성장 업무협약식을 갖고 있는 모습.

산업, 중소벤처기업, R&D기업 등 신산업 분야의 기술력 보유기업에 총 16조4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올해 2월 기업은행의 모든 지점에서 기술평가를 신청하고 평가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기술평가 업무프로세스도 구축했다. 기업은행은 이밖에 동반성장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협약과 동반성장협력대출 한도를 늘릴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2008년 은행권 최초로 동반성장협력대출 한도 1000억원을 조성한 이래 지난 4월 말 기준 6000여개 협력 중소기업에 5조2000억원의 동반성장 자금을 공급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3차 협력기업도 동반성장 자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전용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라며 "올해에는 동반성장 협약을 더욱 확대해 동반성장 협력대출 한도를 증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 중소기업에 저리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권(IP)사업화 자금대출, 출시 한 달 만에 총 50억원 지원 = 기업은행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IP사업화자금대출을 통해 7개 기업에 총 50억원을 지원하는 등 IP금융에 대한 투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IP사업화자금대출은 부동산 등의 담보 없이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지

난 4월 500억원 규모로 출시됐다. 기업은행 기술금융부의 사전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대해 한국개발진흥회가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수수료(건당 1500만원)는 기업은행과 특허청이 전액 부담한다. 기업은행은 IP사업화자금대출 출시 이후 약 한 달간 40개 업체에 대한 상담 및 특허 가치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 중 평가를 마친 7개 기업에 50억원을 우선 지원했다. 이들 기업 가운데 석유난로와 가스레인지 등을 미국과 중동, 러시아 등에 수출하는 ㈜파세코는 과일방지 센서 탑재로 자동 연소되는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아 IP사업화대출 1호 기업으로 선정됐다. 또 친환경 의료용 튜브를 생산하는 ㈜폴리사이언텍은 그동안 자산 및 매출 규모가 작아 자금 조달이 어려웠지만 이번에 보유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기업은행은 향후 특허청·IBK캐피탈과 공동으로 300억원 규모의 IP전문펀드를 조성해 부실화된 담보 IP를 매입하는 한편 우수한 IP 보유기업에 대한 투자를 병행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IP사업화자금대출과 IP전문펀드를 통해 기존의 실패 담보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술우수 기업 및 기술창업 기업을 적극 지원해 창조 금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imji@

기업은행 문화콘텐츠산업 주요 지원실적

구분	세부 내용
영화	수상한 그녀, 관상, 설국열차, 베를린, 타워, 연가시
드라마	양귀비, 돌싱녀, 예쁜 남자, 주군의 태양, 최고야 이순신, 7급 공무원, 뿌리깊은 나무, 빛과 그림자
음악·공연	레이제라블, 조용필 콘서트, 그리스, 지킬앤하이드
애니·캐릭터	뽀로로, 로보카폴리, 브루믹스, 너츠, 로보텍스
기타 운영자금	영화 제작사, 저예산영화 배급사 및 주요투자 중소기업, 드라마 제작사, 영화CG스튜디오

설국열차·뽀로로 뒀엔 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의 창조금융 핵심 사업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다. 기획화, 해외 이전 등으로 고용이 정체된 제조업과 달리 문화콘텐츠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도 크다. 특히 자원이 부족하지만 창의적인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산업으로 평가되면서 이를 육성하기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제1금융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은행은 국내 은행권 최초로 2012년 문화콘텐츠 사업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이후 문화콘텐츠 금융부서 확대·개편했다. 에 특화된 대출상품 및 IP저작권자산권 펀드 등 맞춤형 상품 개발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콘텐츠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 2013년 말 기준 강소기업 99개를 선발해 대출 154억원(20개 기업), 투자 30억원(2개 기업), 맞춤형 컨설팅(10개 기업) 등을 지원했다. 또한 문화콘텐츠 거점지점(총 54개 영업점)에 콘텐츠 전담 실무자를 배치하는 등 현장 밀착형 기업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회계사, 경영 컨설턴트 등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금융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하는 한편 정부·유관기관, 학계 및 업종별 전문가 5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문화콘텐츠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산업계의 견도 수렴하고 있다. 은행권 최초의 여성 수장인 권선주 행장의 취임 이후 영화, 공연,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기업은행은 향후 문화콘텐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 수단도 다각화

문화콘텐츠산업 금융지원 강화 국내 은행권 최초 전담부서 운영

작년 말 3040건에 5417억원 투자 '연가시' 4억5000만원 수익률 75%

그 결과 2013년 말 기준 대출·투자 총 3040건에 5417억원을 공급해 문화콘텐츠 산업 금융지원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기업은행의 이 같은 행보는 문화콘텐츠 중소기업의 '고위험 산업군'으로 인식, 일부 전략적 출자자만이 자금을 공급하고 제1금융권의 지원은 미약한 현 상황과 대조적이다. 기업은행이 투자한 문화콘텐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영화 '연가시'로 투자 원금을 제외하고도 4억5000만원의 수익을 남겼다. 75%의 높은 수익률이다. 영화 '베를린'도 29%의 투자 수익률을 올려 2억9000만원의 수익을 냈다. 기업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문화콘텐츠 분야 투자 수익률은 2.2%다. 기업은행은 이밖에 문화콘텐츠 산업 김민지 기자 kimji@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3-2280호(2013.10.8) [13-A-CL-212]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가 많아도 아픈 적이 있어도 까다로운 심사없이 가입되니까 지금 편하게 전화하세요!



라이나생명

라이나 무배당 **OK실버보험** (갱신형) 약질문 및 의료검진 없이 계약이 성립되는 상품으로, 가입 시 특정 질병의 유무가 문제되지 않는 사망보장 보험상품입니다.

- ✓ 50세~81세 분이라면 나이, 건강, 직업 상관없이 가입!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 등의 경우 계약무효 사유에 해당됨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없음
- ✓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 전액 지급!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 보장 제외, 가입 이후 발생한 재해 사망은 즉시 보장
- ✓ 질병·재해·사고 등 각종 사망에 대해 사망보험금 보장!
*재해로 사망 시 일반사망보험금의 두 배 지급

24시간 무료 상담 문의 080-026-3030

*최초계약 7년 만기 후 5년 마다 갱신되는 상품으로 갱신 시 피보험자(보통대성자) 나이와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 시 최대 86세까지 보장됩니다.(갱신가능 최고 나이 81세). *계약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지급. *단, 재해 원인 시에는 사망 보험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뿔는 족족 대박... '족집게 투자' KB자산운용

다음 합병발표 후 매도타이밍 돋보여... 코오롱인더는 하락기에 매입 30% 수익

KB자산운용이 잇따른 지분투자 성공에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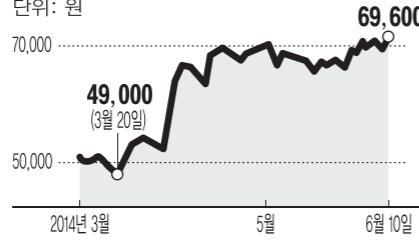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일 KB자산운용은 다음 주식 124만7902주(9.20%)를 장내 매도했다. 매도 시점은 지난달 26일 카카오와의 합병 발표 이후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가가 10만원대로 뛰어오른 28일(101만9273주)과 29일(37만4680주)이었다. 매도 단가는 각각 10만3200원, 10만4185원이었으며 총 매도 금액은 1442억원가량이었다. 현재 KB자산운용의 다음 보유주식은 기존 165만2789주(12.19%)에서 40만487주(2.99%)로 감소했다.

KB자산운용은 지난 2008년 처음으로 다음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후 꾸준히 매입을 해 2009년 2월 말까지 83만주를 사들여 14.76%까지 지분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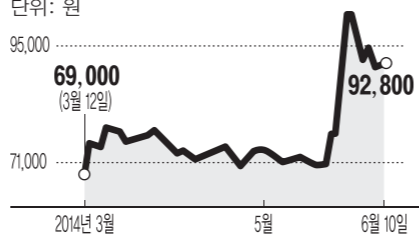
이후 2009년 후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자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달 동안 4.79%를 되팔아 3배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KB자산운용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코오롱인더 추가 추이



다음 추가 추이



사고 팔고를 반복하다 지난 2011년 7월 또한 차례 대량 매도에 나섰다. 주가가 15만원까지 치솟자 약 4%에 달하는 지분을 처분한 것. 이때도 2배 이상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KB자산운용은 코오롱인더스트리 투자에서도 탁월한 감각을 선보였다. 미국 듀폰의 아라미드 영업비밀 소송과 관련해 주가가 급락하자 주식을 매입했다.

KB자산운용은 2011년 11월 코오롱인더가 패소한 직후 5.73%의 신규 지분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인더 주가는 2011년 7월 12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이후 2년 사이에 4만원대까지 떨어졌다. KB자

산운용은 주가 하락기에 꾸준히 지분을 늘려 현재 13.70%를 보유 중이다. KB자산운용이 저가에 주식을 사들이는 사이 코오롱인더는 2심에서 승소해 기사화생의 기회를 맞았다. 4만원대까지 하락했던 주가 역시 최근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코오롱인더의 경우 KB자산운용이 추구하는 가치투자 전략과 부합하는 종목이라는 판단으로 꾸준히 지분을 확대해오고 있다"며 "매입 단가 대비 수익률은 30%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외국인 상장증권 순투자 및 보유 현황

단위: 십억원, 결재기준 *순투자: 상장주식은 장내거래 기준, 상장채권은 장내·장외거래 기준

구분	순투자					보유
	2013년	2014년	3월	4월	5월	
주식	4,724	2,079	△1,245	3,811	1,451	437,132(32.5%)
채권	3,470	2,150	1,151	1,341	807	97,199(6.8%)
합계	8,194	4,229	△94	5,152	2,258	534,331

돌아온 '오일머니' 국내 증시 '기름칠'

중동계 주도... 2개월째 순매수

외국인투자자들이 올해 5월 국내 증시에서 1조5000억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자금이 중동계 자금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가 순매수를 주도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주식 1조5000억원어치를 사들여 4월(3조8000억원)에 이어 순매수를 나타냈다.

국가별로는 아랍에미리트가 1조2000억원을 사들인 가운데 사우디와 일본도 각각 5000억원, 4000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영국은 가장 많은 1조300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케이만아일랜드와 프랑스도 각각 5000억원, 2000억원을 순매도했다.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

식은 437조1000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12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별 보유 규모는 미국 172조5000억원(외국인 전체 보유액의 39.5%), 영국 36조2000억원(8.3%), 룩셈부르크 26조원(6.0%) 순으로 집계됐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도 3개월 연속 순투자 상태를 나타냈다.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채권 순투자액은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싱가포르(5000억원), 태국·대만(각각 3000억원) 등 아시아 국가가 순매수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영국(-5000억원), 홍콩(-3000억원)은 순유출 상태를 보였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 규모는 97조2000억원으로 4월보다 8000억원 늘었다

이미정 기자 lmj@



디피엔케이 코넥스 상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는 10일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여성용 정장 제조업체인 디피엔케이의 코넥스시장 신규상장 기념식을 개최했다. 상장기념패 전달 후 강홍기 IR협회 부회장(왼쪽부터), 임승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이창세 디피엔케이 대표이사, 임홍재 대신증권 전무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젊어진 주식투자자... 1인당 5800만원 보유

경제활동 5명중 1명 총 507만명 평균연령 47.8세... 1년새 0.8세↓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5명 중 1명이 주식투자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 30대 주식 투자자와 증권권의 주식투자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증권시장에 상장된 1932개 종목의 주주수와 주주별 보유수량 등을 전수 조사·분석한 결과 주식투자자는 507만 6362명으로 전년 말보다 6만명 증가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19.5%이며 총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거래 부진에도 주식투자자가 증시에서 이탈하지 않고 소폭 증가한 것은 증시 안정세와 경제활동인구가 60만명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투자자는 1인당 평균 3.2개 종목, 58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연령은 47.8세로 지난 2012년 48.6세보다 0.8세 낮아졌다. 이는 젊은 층과 중년층 중심으로 투자자가 증가한 반면 55세 이상 고령층의 증시 이탈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20~30대 주식투자자는 지난해 134만명으로 전년보다 9만명 늘었다.

이와 반대로 55세 이상 주식투자 인구는 149만명으로 2012년보다 11만명

줄었다. 고령층의 이탈은 노후 대비 등으로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퇴직연금 및 보험 등의 자산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50대 이상의 투자자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60대 이상의 1인 주식보유 규모가 가장 커 주식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별 평균연령은 유가증권시장(48.6세)에 비해 코스닥시장(45.8세)이 2.8세 낮아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코스닥시장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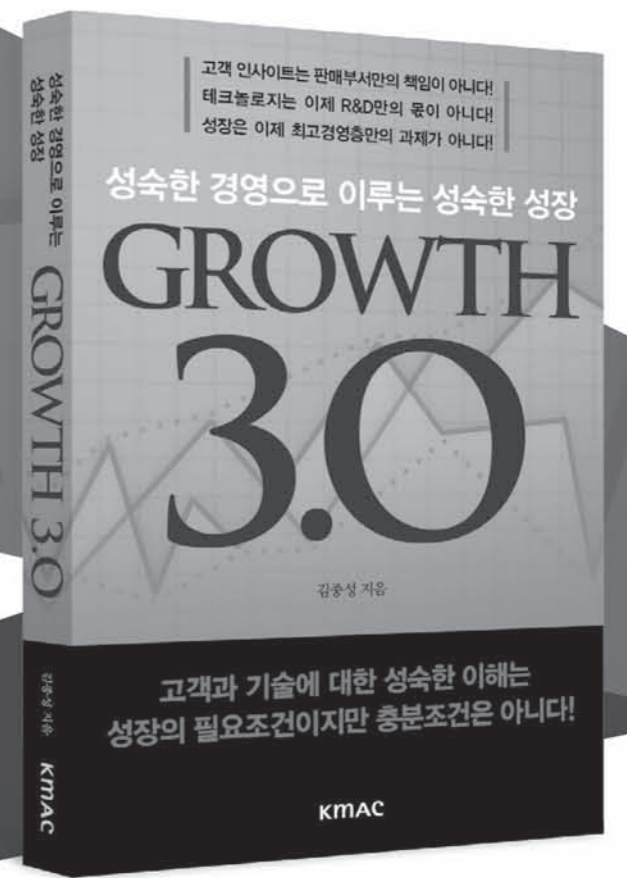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4.5%를 차지했고 시가총액 비중은 84%를 차지했다. 수도권 투자자는 2012년 251만명에서 작년 241만명으로 10만명 감소한 데 반해 충청권 투자자 수는 급증했다. 2년 전 23만명에 불과하던 충청권 주식투자자는 1년 만에 10만명이 늘어난 33만명에 달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고객과 기술에 대한 성숙한 이해는 성장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성숙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4대 역량!

- 혁신력** :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은 성장에 대한 비전과 리더십, 성장에 대한 정책,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각 기업의 전통과 사업 무대, 전략 등과 연계되어 갖추어져 있다.
- 예측력** : 시장에 대한 예측력은 성장 기업이 가지는 공통적인 역량이다. 마켓 인사이트에 기반한 예측력과 추진력은 핵심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미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 활용력** : 성장에 능한 기업들은 성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할 때 자신들이 가진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한다. 브랜드, 유통망, 고객 관계, 기술, 네트워크 조절점 등 모든 자산을 성장에 활용한다.
- 적응력** : 성장에 능통한 기업들은 서로 다른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결합, 연결, 혹은 분리시킴으로써 성장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해외 리츠상장 접은 롯데쇼핑, 국내매각 선회

KB자산운용에 백화점·마트 등 6000억 규모 부동산 처분

싱가포르 리츠상장이 무산된 롯데쇼핑이 보유 부동산을 국내 편드에 매각해 자금을 마련한다. 세일앤리스백 형식으로 이르면 오는 7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 2곳과 (일산점, 상인점)과 마트5곳(부평점, 구미점, 고양점, 당진점, 평택점) 건물 및 토지를 6017억 원에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산총액 대비 1.54% 규모이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다. 거래상대방은 KB자산운용이 설정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이다.

롯데쇼핑은 올해 초 점포를 담보로 한 부동산집합투자신탁(REITs·리츠)의 싱가포르 증시(SGX) 상장을 계획했으나 낮은 수익률 때문에 결국 무산됐다. 이에 국내에서 부동산 편드를 활용해 자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롯데쇼핑은 "자산을 매각한 후 부동산을 다시 20년간 임차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 방식"이라며 "오는 7월 내 처분키로 계획했으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롯데쇼핑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제주점 등 3개 점포를 2200억원에 매각했고, 2010년에

는 롯데백화점 분당점 등 6개 점포를 6123억원에 팔았다. 해외사업 적자와 실적부진에 최근 재무구조가 악화실적이 악화되자 부동산을 매각해 상황 전환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지난 1분기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각각 1.5%, 7.8%, 35.6% 감소했다. 이는 1997년 외화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표다. 증권업계에서는 중국 마트 사업 구조조정에 따라 2분기에 손실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차입금은 더 늘었다. 분기보고서를 보면 1분기 말 유동부채(단기차입금, 사채, 사채할인발행차금)가 2조79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7% 증가했다.

한편 롯데쇼핑은 최근 3년 간(2011-2013) 부채비율이 125% 134%, 130% 상승세이며, 유동비율은 128%, 117%, 115%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매출액순이익률은 4.55%에서 3.12%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은 7.62%에서 5.26%로 감소했다. 영업이익증가율의 경우 2012년 마이너스(-13.42%) 전환 후 지난해 1.21%를 기록했다.

황윤주 기자 hyj@

자사주 사는 황호찬 대표 악재 털고 주가부양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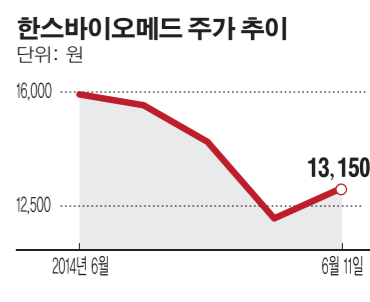
〈한스바이오메드〉

최근 대규모 공급계약 해지라는 악재가 터지며 급락한 한스바이오메드가 주가 방어에 나섰다. 황호찬 대표가 장내에서 주식을 사들이며 주가 부양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 9일 회사 주식 5만주를 주당 1만2250원에 장내 매수했다. 이로써 한 대표의 지분은 기존 22.22%에서 22.65%로 늘어났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1월말에 신주 인수권을 행사, 18만4162주의 신주를 보유하게 되면서 보유 주식수는 기존 198만2486주(지분율 21.11%)에서 216만6648주(22.22%)로 늘어난 바 있다.

황 대표의 장내 매수는 지난 5일 한스바이오메드가 메디톡스와 맺은 682억원 규모의 실리온인공유방보



형물 OEM 공급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한 후 나온 조치다. 실제로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이 전해지자 다음 거래일인 지난 9일 한스바이오메드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며 1만 2250원에 장을 마쳤다. 그러나 전날 장 대표의 장내 매수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상승폭을 확대하며 장중 한때 10% 넘게 상승하기도 했다.

강인호 기자 kangih@

개발부진 프롬써어티 경영진 교체 '초강수'

반도체 검사장비 생산업체인 프롬써어티가 난국타개를 위해 경영진 교체를 강수를 뒀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프롬써어티는 지난 9일 임광빈, 남정현 공동 대표 체제를 임광빈 각자 대표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임광빈 대표는 자회사 에이티세미콘의 공동 대표직을 내려놓고 프롬써어티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업총괄을 담당했던 남정현 대표는 지난 3월 28일 책임경영 강화 및 사업 시너지 목적으로 공동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임광빈 대표는 자회사 에이티세미콘의 공동 대표직을 내려놓고 프롬써어티에 집중할 계획이다.

남정현 대표는 삼성LCD 디스플레이 사업부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를 거쳐 2003년 프롬써어티에 합류해 연구소장직을 맡아왔다.

프롬써어티는 신규 장비 개발을 위해 2012년부터 73억원 가량을 연구개발에 투입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1분기에만 매출액의 40%가 넘는 금액이 연구개발비용으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비개발이 난항을 겪으면서

프롬써어티는 장비개발에 난항을 겪으면서 납품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삼성전기와 패닉 전기검사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지난 5월 26일까지 납품하기로 했지만 30% 밖에 진척되지 않아 일정을 오는 13일로 연기했다

조승에 기자 sysy@

추락하는 피엘에이... 출구없는 동일방직

〈엑시트〉

BW 등으로 주요주주 등급 추가 하락하며 회수에 난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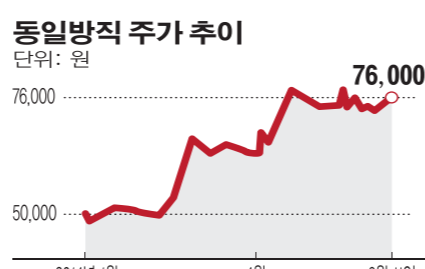
전통적인 자산주로 분류되는 동일방직이 자원개발 업체 피엘에이의 투자금 회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동일방직은 피엘에이 보통주 3만6847주(0.67%)를 장내매도해 보유주식이 865만5319주(21.76%)에서 860만8417주(21.9%)로 줄었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30일 동일방직은 피엘에이 주식 864만5319주를 보유해 신규 주요주주에 올랐다고 밝힌 바 있다.

동일방직이 피엘에이 주요주주에 오르게 된 시점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동일방직은 카자흐스탄 유전탐사 및 개발을 진행하던 피엘에이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 100억원 등을 투자했고, BW의 출자전환 등을 통해 2011년 기준 피엘에이 주식 297만2347주(13.63%)를 보유했다.

그러나 피엘에이는 계속된 해외자원개



발 사업 손실로 자본잠식 위기에 처했고, 2011년 3월 다시 FI(재무적투자자)인 동일방직 등을 대상으로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당시 동일방직은 전환우선주 27만9912주를 인수했다. 전환우선주는 1주당 보통주 20주로 전환되는 것으로 했다.

전환우선주의 전환 청구기간은 발행일 1년 이후의 날로부터 5년간. 투자자인 피엘에이의 주가하락이 계속되자 동일방직은 최근 보유중인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결정했다. 지난해 6월 전환우선주 8만912주를 1주당 보통주 26주(210만 3712주)로 전환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전환우선주 16만5000주를 1주당 28보통

주(462주)로 전환하며 주식 864만5319주를 보유(21.76%), 최근 주요주주에 올랐다.

다만 동일방직은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며 장내매도를 통해 피엘에이 주식을 꾸준히 처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전환우선주 8만912주를 주당 1240원에 보통주로 전환해 지난 3월 전환가보다 낮은 1125원~976원에 25만8000여주를 장내매도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처음부터 단순투자 목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경영권 방어 의사는 전혀 없다"며 "납은기간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해 투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엘에이는 2012년 이후에도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67억원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피엘에이는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통해 "카자흐스탄 유전탐사구 지분매각(MGK LLP)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계획에 차질이 발생해 계속기업으로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미정 기자 mj@

유양디앤유, 라이파이 설치 확대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라이파이를 상용화해 이마트에 공급한 바 있는 유양디앤유가 최근에는 다른 업체와도 공급 협의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유양디앤유 관계자는 "이마트에 설치했던 VLC 시스템은 지난해 했던 것"이라며 "최근에는 다른 업체와 공급 관련 협의의 중"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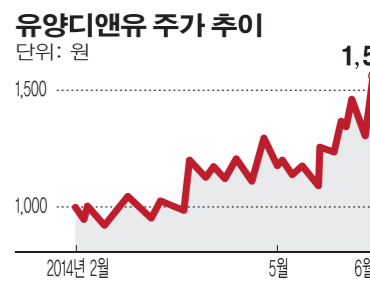
이어 "구체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다"며 "VLC시스템은 애플이 추진하는 비콘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일 주식시장에서는 한 방송국에서 기존 인터넷 보다 100배 빠른 라이파이 혁명 뉴스에 유양디앤유를 비롯한 필룩스, 에너지솔루션, 시티엘등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특히 해당 뉴스에 나온 라이파이 영상 이마트에 설치된 바 있는 유양디앤유 제품이 나오면서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라이파이 관련 특허를 보유한 곳은 삼성계열사를 비롯해 서울대 산학단체와 유양디앤유이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상용화 시킨 업체



는 유양디앤유 뿐이다. 여기에 이 날 애플은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한 스마트 플랫폼인 홈킷에 조명 제어의 기능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양디앤유가 또 한번 조명을 받았다.

유양디앤유는 스마트 LED조명 제어기술 특허를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양디앤유의 주가는 라이파이와 가시광무선통신등의 테마로 올해 연중 최고치에 거래중이다.

이에 한 증권전문가는 "향후 실적 등 펀더멘탈 변화를 확인한 후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며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누구의 마음에도 들지 않을 용기, 당신에게는 있는가?"

말 못 할 콤플렉스와 우울로 인생이 괴로운 사람을 위한 자존감의 심리학

나답게 살아갈 용기

Je Depasse Mes complexes et mes deprimes

"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거절 못하는 나, 쫓대 없는 당신, 남의 인정에 연연하는 우리... 콤플렉스와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회복 매뉴얼

- ◎ 늘 할 말을 못해 당하고 후회하는 사람을 위한 자존감 따라잡기
- ◎ 건강염려증에 시달리는 예민한 현대인을 위한 불안감 떨쳐내기
- ◎ 열등감 조장하는 사회에서 생김 대로 살기 위한 자기사랑의 기술
- ◎ 스트레스로 우울하고 우울해서 스트레스 받는 '기본부전증' 해소법

문의: 02-332-0931

안전과 초과수익,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고수들의 필살기, 권리분석

저는 부동산 경매가 처음인데요!

권리분석 완전정복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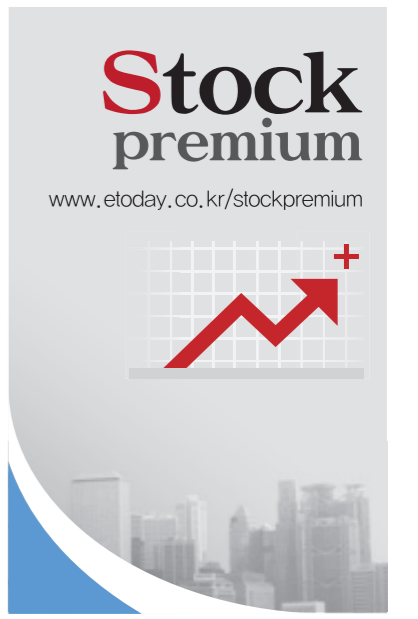
경매 고수 신정현의 초베스트셀러 《저는 부동산경매가 처음인데요!》 2판! 레알 생초보의 권리분석 실전편

내 집 마련부터 수익형 부동산까지, 경매 초보와 고수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적극적인 수익을 얻기 위함이다. 권리분석이 까다롭거나 복잡하면 그만큼 경쟁자가 줄어들고, 일반적인 물건에 비해 수익이 늘어 나게 된다. 《저는 부동산경매가 처음인데요!》는 고수들의 치밀한 권리분석 노하우를 다양한 현장 사례를 통해 차근차근 단계별로 알려준다. 또한 독자들도 배운 지식을 당장 적용해볼 수 있도록 실전문제를 통해 복습하고, 고수들의 Q&A를 통해 경매의 숨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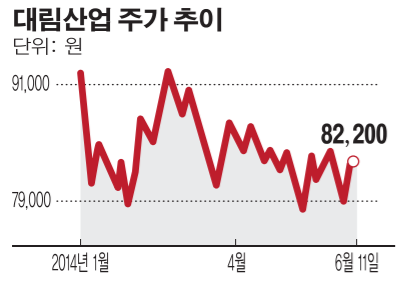
신정현 지음 | 한빛비즈 | 416쪽 | 값 18,500원

문의: 02-2128-8775

제 24차 경제경영 연합광고 캠페인 출판사 참여문의 ☎ 070-4333-0098



공시돌보기



‘돈 줄 급한’ 대림산업 2700억 공사반납 왜

대림산업이 지난해 효성으로부터 수주한 2700억원 규모의 공사에서 손을 뗐다.

11일 금융투자업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해 8월 계약한 효성의 DH-2 프로젝트 프로펠러 설비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림산업은 지난해 8월 효성과 2728억8200만원 규모의 DH-2 프로젝트 프로펠러 설비 신축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울산광역시 효성용연 1공장 부지내 연산 30만톤 규모의 프로펠러 생산설비를 건설하는 공사다.

대림산업이 이번 공사에서 손을 떼며 공사와 관련된 협력업체 또한 효성으로 넘어갔다. 본래 대림산업과 DIC 효성 DH-2 프로젝트용 가열로(Fired Heaters) 설계 및 공급 계약을 맺은 코스닥 업체 제이엔케이이더는 계약 상대방을 기존 대림산업에서 효성으로 변경했다.

제이엔케이이더는 “원발주자인 효성의 요청으로 계약주체가 대림산업에서 효성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의 변경과 관련해 효성과 대림산업 측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효성 측은 “공사를 하던 중 대림산업이 불가피한 이유로 공사의 주체에서 빠지면서 제이엔케이이더뿐 아니라 여러 실행업체를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림산업이 효성의 DH-2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며 2700억원가량의 매출도 무산됐다. 이는 2012년 매출액의 2.66%에 해당하는 규모로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림산업의 수익성이 매우 악화된 상황에서 부정적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96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9조8469억원으로 4% 줄었으며 당기순손실 102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빈 공간’ 신세계건설 채권회수 ‘골머리’

1분기 미지급 공사대금 등 1871억... 유동성 악화 우려

신세계건설이 현금흐름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현금성 자산은 88억원에 불과해 과도한 금융비용이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세계건설의 지난 1분기 매출채권, 미수금, 미청구공사는 1871억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말 390억원이던 매출채권은 1분기 말 1023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매입채무도 764억원에서 1023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과 유동성장기부채 역시 2500억원에 달하고 골프장 임회금 1400억원이 유동부채로 전환돼 남아있는 상태여서 매출채권 회전에 따라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신세계건설은 지난 1분기말 현재 이마트가 32%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명희 회장 및 특수관계자가 10.3%를 보유하고 있다. 주로 그룹 발주 공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해왔는데 지난 1분기 매출1196억원 중 600억원이 이마트(551억), 신세계투자개발(42억) 등을 통해 올렸다.

증가된 매출채권의 상당부분이 이마트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매출채권 회수에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88억원(6000만원(1분기말 기준)에 불과한 탓에 현금 부족이



금융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1분기 신세계 건설은 12억7500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소폭이나마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1분기 동안 금융원가(비용)가 25억7900만원을 기록한 탓에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손실(11억7400만원), 당기순손실(7억2000만원)을 초래했다.

결국 현금 부족이 금융비용으로 이어져 실적악화를 불러일으킨 셈이다.

신세계 건설 관계자는 “공사 관련 채권이 많이 발생한 것과 현금성 자산이 줄어드는 것이 시기상 맞물려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만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의료법 개정에 차바이오텍 수혜주 부상

영리 자회사 설립허용 주목

정부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놓자 차병원그룹 계열인 차바이오텍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10일 보건외교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8월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해외환자 유치 위한 의료관광호텔 개설과 환자.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의 임대업을 허용했다.

부대사업 목적의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이 허용되면 광범위한 의료 관련 사업이 수혜를 입는다. 특히 미국내 영리병원 운영 경험이 있고 이미 이에 관련해 준비를 해온 차병원 그룹 입장에서는 경쟁 우위에 설 가능성이 높다.

차병원그룹의 고급의료기관인 ‘차움’은 진료 부문은 성광의료재단이, 기타 부대 서비스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차바이오텍 디오스텍(분할전)이 맡으며 기형적으로 운영돼 논란이 일었다.

정부 발표로 차바이오텍이 성광의료법인의 자회사가 될 길이 열렸고, 차움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실질적 영리병원이 되는 셈이다.

차바이오텍은 지난 2일 코스닥시장에 분할 상장 후 첫등장했다. 하지만 상장 후 5거래일 동안 줄곧 내림세를 탔다. 2일 19400원을 찍고 내려 지난 10일 14900원에 마감했다.

박용남 기자 bangnam@

캠시스, 블랙박스 들고 해외로

아시아 2개 업체와 대량납품 계약... 해외 매출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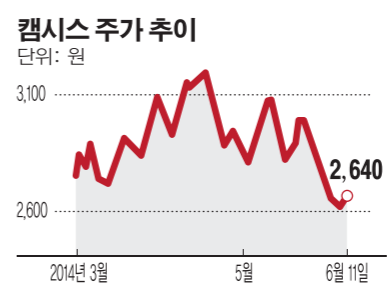
캠시스가 해외 두 나라 현지 업체와 블랙박스 대량 납품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돌입한다.

캠시스 관계자는 11일 “블랙박스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달 아시아 두 나라에 있는 현지 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은 후 바로 납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캠시스는 기존에도 해외 시장에 블랙박스를 판매해 왔지만, 소량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해외 진출은 분기당 몇만대가 개런티돼 있는 대량 공급계약 성격으로 그동안의 해외 사업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캠시스 블랙박스 사업 부분의 해외 매출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캠시스는 아시아 최대 시장인 중국과 일본 시장도 연내 진출한다.

회사 관계자는 “연내 중국과 일본에도 추가 진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해외 매출 비중을 80%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캠시스는 휴대폰 카메라 모듈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이 시장에 진출한 이후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확보하며 매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에도 갤럭시S5, 갤럭시W 등 주요 제품군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이 회사는 베트남 공장 양산을 통해 공급량도 늘릴 계획이다.

캠시스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봐야겠지만, 계획대로 연내에 베트남 휴대용 공장을 완공하고 양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상아프론테크, 중국시장 공략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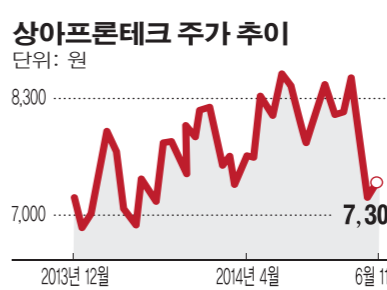
소주법인 102억 출자... 공장 건설

상아프론테크가 본격적인 중국시장 공략에 나섰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아프론테크는 계열회사인 중국소주법인에 102억원 규모의 출자를 결정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2.7% 규모이며 회사는 내년 6월30일까지 순차적으로 출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자된 금액으로 신규 공장을 설립해 현지에서 PCB, 디스플레이-OA 사업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중국소주법인이 기존에는 임대공장 형태로 있었는데 중국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이번 임대공장에서 아예 토지를 구입해서 신규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기존의 임대공장 때는 210만불이 출자가 됐었는데 이번에 약 1000만불 정도가 더 출자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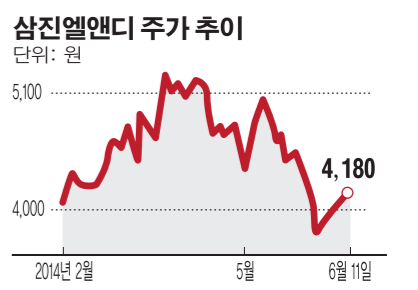
지난 201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상아프론테크는 특수플라스틱, 2차전지,



사무자동화 기기 사업에 이어 2013년 중대형 2차전지 및 의료기기 사업 진출했다. 상아프론테크는 신규사업 확장을 위해 말레이시아 및 중국소주법인 설립, 경남 양산에 중대형 2차전지 부품생산공장을 건립했다.

현재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특수 플라스틱 기반의 사출물 제조로 프린터·복합기의 주요부품인 전자벨트, 디스플레이 이송용 고정장비인 LCD 카셋, 2차전지 부품,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PCB기판 드릴용 부자재, 자동차용 부품 등 다양한 전방산업에 영위하고 있다.

이미정 기자 imj@



카타르에 LED공장 건설 삼진엘앤디 1조 수주 임박

한국LED컨소시엄(QKLC)에 포함된 삼진엘앤디가 카타르 국영기업과 조인트벤처 설립 본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올해 안에 1조원대 대규모 수주도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련업계 관계자는 “카타르는 5년 동안 1조원 규모의 LED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며 “이를 위해 예산 법안도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QKLC는 지난 2월 카타르 알와시타(카타르석유회사의 자회사)와 LED조명시스템 생산공장 설립을 위한 조인트벤처 설립 본계약을 체결했다.

본계약에 따라 양측은 카타르-한국 LED프로젝트(Q-LED)에 따라 총 6만㎡ 부지에 LED 생산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공장 설립 이후 국내 LED조명기업들은 관련 부품과 반제품을 조인트 벤처에 공급하고 현지 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설비투자는 알와시타와 QKLD가 각각 75%, 25% 씩을 담당한다. 완공 이후 LED 제품 생산 규모는 연간 15만5000개에 달한다.

카타르 현지 공장은 2016년에 조기 완공돼 이때부터 본격적인 LED 제품 양산에 나서게 된다. 이후 2018년까지 연구기술개발 센터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I'Lavita

일'라비타

ITALIAN LIFESTYLE CONCEPT STORE

OPEN 2014.02.28(FRI)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HYUNDAI DEPARTMENT STORE
MAIN STORE · B2F · 02)547-2233

현대자동차 6월 NEWS

🎁 그랜저 디젤 탄생 기념 이벤트

- 1,000만원 상당 5년간 주유비 지원 등 푸짐한 선물 증정
- 6~7월 그랜저 디젤 계약/출고 고객 추첨
- ※ 사전 계약실시중

여름 휴가 시즌맞이 이벤트

- 현대자동차 고객 전용
횡성자연휴양림 펜션/캠핑지원
: 현대차 홈페이지/전시장 방문 응모 고객 중
1,100가족 추첨
- 쏘나타/그랜저 5박6일 렌탈
: 현대차 홈페이지 응모 고객 중 800명 추첨

대한민국을 브라질로 보내자!

- 응원 메시지를 브라질로 보내자
- 내가 쓴 응원 메시지가 브라질 현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게로 GO! (기간: 6/9~7/15)
- ※ 자세한 내용은 현대차 월드컵 홈페이지
(worldcup.hyundai.com) 참조



👑 6월 아반떼 출고고객을 위한 특별 구매 혜택

- 30만원 구매 지원 또는 3.9% 특별 저금리 혜택 (최장 36개월, 선수율 15%)
- 자동차 보험료 50% 지원 (차량 대금 200만원 이상 현대 M카드 결제 시, 출고 월 포함 3개월 내 보험금액 최대 30만원 한)
- '스무살의 아반떼' 20대 고객 대상 20만원 구매 지원 (1984년 이후 출생자, 개인/개인사업자 한)
- ※ 상기 모든 내용은 아반떼 쿠페 제외

수입차 비교시승센터 > 강남 (02)3452-7365 | 목동 (02)2644-7365 | 분당 (031)705-7365 | 인천서부 (032)425-7365 | 수지 (031)264-7365 | 부산중앙 (051)465-7365 | 대구동부 (053)525-7365 | 광주 (062)366-7365 | 대전 (042)621-7365

블루멤버스 > 구매 횟수에 따라 차량 금액의 최대 3%까지 드리는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편리한 자동차 생활을 즐기세요 (법인 및 렌트/리스 고객은 0.3%) ※ 자세한 내용은 블루멤버스 홈페이지 (bluemembers.hyundai.com) 참조

※ 본 광고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hyundai.com) 및 현대자동차 지점/대리점에 문의 바랍니다

